생명과 충북 태양의 땅

유기농특구 조성 방안 연구

연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충청북도

차 례

제1장 서 론

1. 연구배경 ····· 1
2. 연구목적 ····· 3
3. 선행연구 검토 ····· 4
4. 연구방법과 범위 ····· 6

제2장 유기농특구 조성 사업의 개관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11
2. 유기농특구와 유기농푸드밸리의 개념 ····· 13
3. 유기농특구 조성을 위한 클러스터 이론 ····· 18
4. 유기농특구 조성의 제도적 근거 ····· 24

제3장 유기농특구 조성을 위한 대내외 여건 분석

1. 특구권역 내 농업여건 진단 ····· 29
2. 특구권역 내 친환경농식품산업 여건 ····· 42
3. 친환경·유기농업단지 조성 현황 ····· 48
4. 유기식품산업의 동향과 전망 ····· 50
5. 유기농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정책 ····· 66
6 대내외 여건분석 종합(SWOT 분석) ····· 68

제4장 유기농특구 조성 관련 계획

1. 제3차 충청북도 종합계획 수정계획(2008~2020) ····· 69
2. 충북 제3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2011~'15) 계획 ····· 70
3. 충북 자원순환형 친환경농업·농촌 4개년(2011~'14) 종합대책 ····· 72

제5장 유기농특구 관련 국내외 사례

1. 국내사례 ····· 76
2. 해외 사례 ····· 85
3. 국내외 관련 사례의 시사점 ····· 101

제6장 유기농특구의 핵심사업으로 유기농푸드밸리의 타당성

1. 유기농푸드밸리 조성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 103
2. 유기농푸드밸리 조성의 정책적 타당성 분석 ····· 129

제7장 유기농특구 조성의 추진전략

1. 유기농특구 조성의 비전과 목표 ····· 166
2. 유기농특구와 유기농푸드밸리의 추진 방식 ····· 170
3. 유기농특구 조성을 위한 추진 방안(10대 핵심과제) ····· 173

제8장 요약 및 결론 ····· 233

참고문헌 ····· 235

부록 1 충북 친환경·유기농 특화구역 및 유기농명인 지정·운영에 관한 지원 조례 제정(안) ····· 238
부록 2 충청북도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 사업 추진 상황 ····· 250
부록 3 충청북도 친환경농업지구조성 사업 추진 상황 ····· 254
부록 4 괴산군의 유기농식품산업 발전 방안 ····· 257

표 차 례

제1장

표 1- 1. 분야별 과업의 주요 내용 ····· 9

제2장

표 2- 1. 지역특구제도와 기존 지역개발제도의 차이점 ····· 25

제3장

표 3- 1. 충북의 기후조건 ····· 30
표 3- 2. 충북의 인구 및 인구밀도 변화 추이 ····· 32
표 3- 3. 충북의 농가 및 농가인구 변화 추이 ····· 32
표 3- 4. 충북의 경지면적 변화 추이 ····· 34
표 3- 5. 괴산군의 표고분석 ····· 35
표 3- 6. 괴산군의 경사분석 ····· 35
표 3- 7. 괴산군의 하천현황 ····· 36
표 3- 8. 괴산군의 기상개황 ····· 37
표 3- 9. 괴산군의 지리적 위치 ····· 38
표 3-10. 인구 및 가구 ····· 39
표 3-11. 지목별 토지이용현황 ····· 40
표 3-12. 괴산군 경제활동 인구 현황(2009년 기준) ····· 40
표 3-13. 괴산군 농가수 및 농가인구 현황(2009년 기준) ····· 40
표 3-14. 연도별 농가 및 농가인구 ····· 41
표 3-15. 괴산군 사업체 및 종사자수 현황 ····· 41
표 3-16. 충북 친환경인증농산물 전국 대비 현황(2010년) ····· 42
표 3-17. 충북 유기농산물 생산 현황 ····· 43
표 3-18. 2010년 괴산군의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 ····· 45
표 3-19. 괴산군 읍·면별 친환경 농업 실천 현황 ····· 45
표 3-20. 충북지역 유기가공식품 인증 현황(2011년 9월) ····· 46
표 3-21. 충청북도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현황 ····· 48
표 3-22. 국내 유기식품 시장규모(2008년) ····· 50

표 3-23. 연도별 유기농산물 인증실적 변화추이 ····· 51
표 3-24. 국내 유기가공품 품질인증 실적 ····· 51
표 3-25. 최근 3년간 수입현황 ····· 52
표 3-26. 국가별 유기농산물 수입인증 현황 ····· 53
표 3-27. 유기가공식품 품목별 수입현황('06～'08 평균) ····· 54
표 3-28. 인증단계별 국내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 전망 ····· 56
표 3-29. 충북지역의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 전망 ····· 56
표 3-30. 유기식품의 시장규모 전망 ····· 57
표 3-31. 중국 녹색식품기업의 규모화 지표 변화 추이 ····· 61
표 3-32. 일본의 유기농산물 국내 인증물량 ····· 61
표 3-33. 일본의 유기농산물 해외 인증물량 ····· 62
표 3-34. 일본의 유기농산물 가공식품 국내 인증실적 ····· 63
표 3-35. 유기농특구 조성 관련 SWOT 분석 ····· 68

제5장

표 5- 1. 네덜란드 푸드밸리 클러스터의 개요 및 시사점 ····· 89
표 5- 2. 외레순 클러스터의 주요 역할 및 시사점 ····· 95
표 5- 3. 지바현 클러스터의 개요 및 시사점 ····· 99

제6장

표 6- 1. 유기농푸드밸리 전체 사업 범위(2015～2020) ····· 104
표 6- 2. 예비타당성 대상사업 범위(2015～2020) ····· 104
표 6- 3. 경제성분석 대상사업 범위(2015～2020) ····· 105
표 6- 4. 공업지역의 도로 설치기준 ····· 106
표 6- 5. 단지규모별 도로율 지침 ····· 106
표 6- 6. 단지규모별 공원녹지율 지침 ····· 107
표 6- 7. 산업단지별 폐수처리 현황 ····· 107
표 6- 8. 산업단지규모별 토지 이용 ····· 108
표 6- 9. 유기농특구 협력 연구소 시설규모 산정 ····· 108
표 6-10. 계획지표 설정 ····· 109
표 6-11. 용지보상비 산정 ····· 110
표 6-12. 가공단지 건축 공사비 ····· 110
표 6-13. 발효식품농공단지 건축 공사비 ····· 111

표 6-14. 물류센터 건축 공사비 ····· 111
표 6-15. Org-APC 건축 공사비 ····· 112
표 6-16. Org-RPC 건축 공사비 ····· 112
표 6-17. 유기농포장디자인센터 건축 공사비 ····· 113
표 6-18. 유기농특구협력연구소 건축 공사비 ····· 113
표 6-19. 유기농식품진흥원 건축 공사비 ····· 114
표 6-20. 부지조성 공사비 ····· 114
표 6-21. 기타 시설부대경비 ····· 115
표 6-22.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 공사비 집계 ····· 115
표 6-23. 경제성분석 대상 사업 공사비 집계 ····· 116
표 6-24. 경제성 분석을 위한 연차별 투입계획 ····· 116
표 6-25. 유기농특구협력연구소 및 오가닉의농연구센터 인력 현황 ····· 117
표 6-26. 유기농특구협력연구소 및 오가닉의농연구센터 연간 운영비 ····· 117
표 6-27. 유기농특구협력연구소 SW 사업내용 및 예산 ····· 118
표 6-28. 유기농특구협력연구소 장비비 ····· 118
표 6-29. 유기농포장디자인센터 장비비 ····· 118
표 6-30. 유기농식품진흥원인력 현황 ····· 119
표 6-31. 유기농식품진흥원의 연간 운영비 ····· 119
표 6-32. 유기농식품진흥원 SW 사업내용 및 예산 ····· 120
표 6-33. 유기농특구 종합 협력 센터 장비비 ····· 120
표 6-34. 입주기업 시설투자비 ····· 120
표 6-35. 예비타당성 대상 총사업비 세부내역 ····· 121
표 6-36. 예비타당성 대상 재원 분담 ····· 122
표 6-37. 경제성 분석 대상 총사업비 세부내역 ····· 122
표 6-38. 유기농푸드밸리 및 발효식품농공단지 조성사업 편익항목 ····· 123
표 6-39. 신규투자로 인한 편익 도출 과정 ····· 123
표 6-40. 신규투자로 인한 편익 산출 (2017년 기준) ····· 124
표 6-41. 입주 대상업체의 입주전 매출액(2017년 기준) ····· 125
표 6-42. 경제성 분석기법의 비교 ····· 126
표 6-43. 비용-편익 연차별 흐름표 ····· 127
표 6-44. 농식품부의 유기농식품 클러스터(가칭) 조성 개요 ····· 131
표 6-45. 푸드밸리 입주업체의 비용절감효과(재무적분석) ····· 133
표 6-46. 입주예정업체 친환경농산물 원료 사용량 조사 결과 ····· 134

표 6-47. 40개 업체 유치시 원료 수요량 추정 ····· 135
표 6-48. 50개 업체 유치시 원료 수요량 추정 ····· 135
표 6-49. 충북지역 유기 및 무농약 농산물 생산 전망 ····· 136
표 6-50.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운영 현황 ····· 148
표 6-51. 충북, 괴산군 지역의 지역낙후도 및 순위 ····· 149
표 6-52. 지역경제 파급효과의 분석 대상 ····· 153
표 6-53. 지역간 비경쟁수입·이입형 산업연관표의 기본구조 ····· 155
표 6-54.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산업분류 ····· 157
표 6-54.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산업분류(계속) ····· 158
표 6-55. 지역경제 파급효과의 분석대상 및 지출규모 ····· 159
표 6-56. 지역별 유형별 경제적 파급효과 ····· 160
표 6-57. 16개 지역별 경제적 파급효과(총 효과) ····· 161
표 6-58. 16개 지역별 경제적 파급효과(1차 파급효과) ····· 161
표 6-59. 16개 지역별 경제적 파급효과(2차 파급효과) ····· 162
표 6-60. 지역별 산업별 경제적 파급효과(전체 총효과) ····· 163
표 6-61. 지역별 산업별 경제적 파급효과(1차 파급효과) ····· 164
표 6-62. 지역별 산업별 경제적 파급효과(2차 파급효과) ····· 164

제7장

표 7- 1. 농업환경지표 목록 ····· 177
표 7- 2. 충북의 작물양분요구량 및 양분공급구조 ····· 180
표 7- 3. 주요작물 재배현황(2010년 말) ····· 189
표 7- 4. 충북의 시군별 대표작목 현황 ····· 190
표 7- 5. 충북의 시군별 친환경농산물 인증량 현황(2011년 기준) ····· 191
표 7- 6. 충북 유기농특구의 농촌 어메니티 자원의 종류 ····· 209
표 7- 7. 충북 유기농식품 홍보사업 방안 요약 ····· 226
표 7- 8. 유기농식품 구매계층별 대응 전략 ····· 229
표 7- 9. 청원유통센터와 SK D&D 협력사업 규모 ····· 232

부록

부표 2-1. 옥천군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운영 현황 ····· 250
부표 2-2. 진천군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운영 현황 ····· 251

부표 2-3. 증평군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운영 현황 ····· 252
부표 2-4. 괴산군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운영 현황 ····· 253
부표 3-1. 충청북도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사업 추진 현황(2011년 사업계획) ··· 254
부표 3-2. 충청북도 친환경농업지구조성 사업 추진 내역(2003～'10) ····· 255

그 림 차 례

제1장

그림 1- 1. 유기농특구 조성의 권역 설정 ····· 8
그림 1- 2. 유기농특구 조성 연구의 흐름도 ····· 10

제2장

그림 2- 1. 유기농특구 조성의 기본 골격 ····· 13
그림 2- 2. 유기농특구 조성 추진계획(안) ····· 14
그림 2- 3. 유기농푸드밸리의 개념적 기본 골격 ····· 15
그림 2- 4. 유기농푸드밸리 조성단지 조감도 ····· 16
그림 2- 5. 유기농푸드밸리 조성지역 위치 ····· 17
그림 2- 6. 유기농푸드밸리 발전 구상(안) ····· 17
그림 2- 7. 지리적 경쟁우위의 원천 ····· 19
그림 2- 8. 산업클러스터 정책방향 ····· 22
그림 2- 9. 지역특화발전 특구의 지정 및 사후관리 흐름도 ····· 26

제3장

그림 3- 1. 충청북도의 위치 및 면적 ····· 29
그림 3- 2. 충북의 기후조건 ····· 30
그림 3- 3. 충청북도의 지역구분 ····· 31
그림 3- 4. 충북의 경지면적 변화 추이 ····· 33
그림 3- 5. 괴산군 유기농푸드밸리 조성지역 위치도 ····· 36
그림 3- 6. 괴산군의 교통입지 설명도 ····· 38
그림 3- 7. 괴산군 친환경농산물 인증량 ····· 44
그림 3- 8. 충북 생명농업 발전계획 ····· 47
그림 3- 9. 국내 친환경농산물의 시장전망 ····· 55
그림 3-10. 전국과 충북의 유기농산물 재배면적 전망 ····· 58
그림 3-11. 국내 유기가공식품의 시장전망 ····· 58
그림 3-12. 충북지역 국산원료 유기가공식품의 시장전망 ····· 58
그림 3-13. 미국의 유기식품 시장 규모 및 시장 비중 변화 ····· 60

그림 3-14. 유기식품의 시장규모 및 수출 전망 ····· 65

제4장

그림 4- 1. 충북 자원순환형 친환경농업·농촌 4개년 종합대책의 기본골격 ····· 72
그림 4- 2. 자원순환형 친환경농업 · 농촌 육성 대책 체계도 ····· 73
그림 4- 3. 친환경농업의 균형성과 지속성 유지를 위한 전략적 삼각형 영향요인 ····· 74
그림 4- 4. 자원순환형 친환경농업·농촌 4개년 종합대책의
비전과 정책목표 관계 ····· 75

제5장

그림 5- 1.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의 비전 ····· 81
그림 5- 2.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입지 ····· 82
그림 5- 3.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의 3대 R&D 지원센터의 역할 및 기능 ····· 83
그림 5- 4.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인근 연구기관 입지도 ····· 84
그림 5- 5. 론-알프스 유기농 클러스터의 위치 ····· 85
그림 5- 6. 론-알프스 유기농 클러스터 입주기업 ····· 87
그림 5- 7. 론-알프스 유기농 클러스터 제품 예시 ····· 88
그림 5- 8. 네덜란드 푸드밸리의 개발 연혁 및 성공요인 ····· 91
그림 5- 9. 스웨덴 외레순 지역의 위치 ····· 92
그림 5-10. 외레순 식품클러스터의 산 · 학 · 관 협력 프로그램 ····· 94
그림 5-11. 일본 식료산업 클러스터 연계 구축 체계 ····· 98

제6장

그림 6- 1. 유기농특구 조성 추진위원회 ····· 139
그림 6- 2. 유기농푸드밸리 추진단 ····· 140
그림 6- 3. 2015 괴산 세계유기농엑스포 조직위원회 구성 ····· 142
그림 6- 4. 충북 유기농특구 조성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경로 ····· 150
그림 6- 5. 지역간 환류효과 파급 경로 ····· 154

제7장

그림 7- 1. 유기농특구 조성의 비전, 목표, 전략과 핵심요소 ····· 168
그림 7- 2. 유기농푸드밸리 비전달성을 위한 핵심요소 ····· 169
그림 7- 3. 유기농특구 조성의 단계별 진전도 ····· 170

그림 7- 4. 유기농특구 조성을 위한 추진주체별 역할분담 체계 ····· 172
그림 7- 5. 충북의 농업생태계 물질순환 구조(2011년) ····· 179
그림 7- 6. 유기농산업 전문단지 확대 개념도 ····· 181
그림 7- 7. 충북 생태유기농업지원단의 운영 체계 ····· 185
그림 7- 8. 충북의 시군별 유기농 대표작목 육성 ····· 192
그림 7- 9. 충북 학교급식 농축산물 직거래 공급망 체계 ····· 199
그림 7-10. 유기농 융복합산업의 구성 요소 ····· 203
그림 7-11. 그린투어리즘 주요 자원의 사진 ····· 210
그림 7-12. 유기농푸드밸리 조성사업 종합 체계도 ····· 213
그림 7-13. 유기농푸드밸리와 지역 유기농업단지와의 연계 ····· 215
그림 7-14. 2015 괴산 세계유기농엑스포 개최의 비전과 목표 ····· 218
그림 7-15. 괴산군의 엑스포 연계 유기농업군 조기정착 기본골격 ····· 220
그림 7-16. 경북의 농민사관학교 운영체계도 ····· 224
그림 7-17. 유기농엑스포 교류의 장 (Organic Interaction Zone) ····· 227
그림 7-18. 경남 친환경 농산물 브랜드 사례 ····· 228
그림 7-19. 유기농식품 직거래 유형 ····· 230
그림 7-20. 도농교류 프로그램 개발가능성 ····· 231

요 약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유기농식품산업이 미래 농업부문의 성장동력으로 부각되고 있으나 국내기반은 취약하여 유기농식품산업 기반 구축이 유리한 거점지역을 선정하고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방안이 필요함.

○ 충청북도는 타 지역에 비해 산업구조적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동력이 취약함. 기존의 전통적 관행농업을 성장동력으로 삼기에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충북 농업부문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전국 최초의 유기농특구를 조성하는 경우 도내 농업부문의 혁신과 국가 녹색성장 견인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됨.

○ 유기농식품 시장의 급속한 성장과 정부의 유기농식품산업 육성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충북의 유기농식품산업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여 농업분야 녹색성장을 견인할 전국 최초의 유기농특구 및 유기농푸드밸리 조성 추진의 필요성이 제기됨.

○ 이 연구는 생명농업 충북 실현을 위한 유기농특구 및 세계적 수준의 유기농푸드밸리(Organic Food Valley) 조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주요한 목적이 있음.

○ 연구수행 관련 시간적 범위는 2013~2020년까지 8개년으로 설정함. 유기농특구의 공간적 범위는 우선 1단계로 유기농푸드밸리 조성지역(괴산군 칠성면 율원리와 율전리)을 중심으로 괴산군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2단계로 괴산군 지역의 40km 반경으로 충주, 제천, 단양, 음성, 진천, 증평, 청원, 보은, 옥천, 영동 등 여러 시군 가운데 유기농식품산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성과를 거둔 지역을 대상으로 충북의 유기농식품산업 특구 지정을 추진함.

○ 유기농특구 조성 연구의 과업은 유기농푸드밸리 예비타당성 조사와 충북도의 유기농특구 조성 추진계획 수립 등 크게 두 분야로 대별됨.

□ 유기농특구 조성 사업의 개관

○ 유기농특구는 지역특화발전 특구제도를 근거로 유기농업 및 유기농식품의 생산-가공-유통 등과 관련 특화지역을 선정하여 유기농식품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제도를 의미함. 특구는 단일지역 또는 여러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음.

○ 유기농특구 조성 사업은 충북이 유기농특화구역을 지정 및 조성하여 유기농식품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반조성단계, 발전단계, 특구조성단계, 완성단계 등 단계별로 추진하는 사업임.

○ 유기농푸드밸리는 유기식품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해 지식(knowledge), 기업(enterprises), 혁신(innovation), 유기농업인(organic farmer)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집적체를 의미함. 실제로 유기농푸드밸리는 유기농을 기본으로 생산·가공·판매·체험관광·R&D 등 1·2·3차 산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유기농식품 집적단지를 의미함.

○ 유기농푸드밸리 조성 사업은 유기농특구 조성 사업의 핵심분야로 충북 괴산군 칠성면 율원리·율지리 일원에 약 200만㎡의 유기농 집적단지를 단계별로 구축하는 대규모 신규 프로젝트임.

□ 유기농특구 조성을 위한 대내외 여건 분석

○ 전국의 친환경농산물 인증현황은 최근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기는 하였으나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충북지역 역시 인증 초기보다 크게 증가하였음. 충북지역은 무농약농산물이나 저농약농산물에 비하여 유기농산물의 전국대비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전국 유기가공식품 인증 현황은 서울·인천·경기 54개, 광주·전남 39개, 대전·충남 27개, 충북 19개로 전국 4위를 차지함.

○ 충북지역에 추진되고 있는 유기농 쌀, 유기축산, 유기농 채소, 유기농 과수, 유기농 한약생산단지 등 유기생산단지와 고추, 포도, 축산 등 농축산 클러스터와 인접해

있어, 유기농업과 유기식품산업의 상생에 유리한 지리적 입지에 위치하고 있음.

○ 충북의 친환경·유기농업단지 조성 사업 현황을 보면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6개 단지), 유기농업단지 조성사업(6개 단지), 녹색농업단지 조성 사업(103개소 조성) 등을 들 수 있음.

○ 우리나라 특유의 고품질 유기농산물 및 가공품을 개발·육성하여 일본과 중국을 대상으로 수출할 수 있는 공세적인 전략을 개발하여 실행한다면 2015년경부터는 유기식품의 해외수출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됨.

□ 유기농특구 관련 국내외 사례

○ 지역특화발전 특구 가운데 유기농특구와 관련된 특구는 양평 친환경농업특구, 울진 로하스농업특구, 순천 친환경농업특구 등 3개소가 운영되고 있음.

○ 양평 친환경농업특구는 한강수계와 연계된 각종 규제로 인하여 개발이 제한된 지역을 친환경농업 실천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2005년 12월 특구로 지정된 이후 괄목할만한 친환경농업 발전이 이루어짐.

○ 울진 로하스농업특구는 2005년「울진 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개최 이후 친환경농업 발전의 도약을 위해 2006년 6월 지역특구로 지정된 이후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에 힘입어 친환경농업 발전이 상당히 이루어짐.

○ 순천 친환경농업특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5대 연안습지이자 철새도래지인 순천만과 상수원인 주암호 수변구역에 조성되었음. 환경보전 및 수질을 개선 차원에서 2008년 12월 친환경농업특구로 지정된 이후 친환경 농업기반 및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짐.

○ 국내 친환경농업 특구로 양평, 울진, 순천 등은 특구 지정을 통해 친환경농업 발전의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함. 그러나 이들 세 지역은 유기농산업으로는 특화되어 있지 않고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확대 등 생산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음.

○ 해외사례로는 프랑스 론-알프스 유기농클러스터는 유기농식품 이외에 유기화장품과 유기섬유 제조업체 등을 포함하여 단지를 규모화 하였음. 충북 유기농푸드밸리도 클러스터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유기제품 연구기관 및 제조업체를 포괄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핵심사업으로 유기농푸드밸리 조성의 타당성 분석

○ 유기농푸드밸리 조성 사업의 B/C 비율은 여러 가지 가정조건하에서 산출되며, 할인율 5.5% 적용과 신규투자비율 60% 적용시 B/C비율(ratio)은 1.17, 내부수익율(IRR)은 8.1%로 산정됨.

○ 유기농푸드밸리 조성 사업의 경제적 효과를 보다 정확하게 계측하기 위해서는 핵심적 HW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유기농식품진흥원(유기농푸드밸리 종합지원센터), 유기농특구협력연구소, 국제유기농컨벤션센터, 유기농포장디자인센터 등에 대한 설득력 있는 편익추정이 이루어져야 함.

○ 유기농특구 조성은 국가사업화로 타당성을 지니며, 미래 농업부문의 성장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음. 농업분야의 대표적인 녹색산업으로 유기농식품산업 육성, 국가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에 부합되는 핵심 사업이라 할 수 있음. 농산물시장개방에 대응한 전략적 육성 분야에도 부합함. 집적단지를 통한 비용절감효과와 소비자 후생 증대, 지역낙후도 개선과 타부문의 산업생산 유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책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친환경농업특구의 경우 저농약 인증을 포함한 낮은 단계의 친환경농산물을 포함하나, 유기농특구는 유기인증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친환경농업특구와의 차별성이 있음. 소비자의 신뢰성이 관건인 유기식품 특성상 차별화된 특화단지 필요, 유기농푸드밸리 조성을 통한 도단위 식품산업 발전 파급 영향, R&D의 성격차이 등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와의 차별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지역낙후도 분석결과 충청북도는 전체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11위로 하위권에 속하며, 괴산군은 전국 168개 시군구 가운데 113위로서 하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지역낙후도를 통해 본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충북 유기농푸드밸리 조성 사업이 시행될 경우 사업비 지출(부지매입비를 제외한 4,786억 원)로 인하여 사업지역인 충북지역에는 생산이 7,136억 원 유발되며, 부가가치와 고용이 각각 3,268억 원과 7,480명이 창출되어 충북지역의 경기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유기농특구 조성의 추진 전략

○ 유기농특구 조성의 비전으로 유기농 특화도 충북건설을 위한 '동북아 유기농식품 산업의 허브'로 설정함.

○ 유기농특구 조성의 목표로 유기농산업전문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광역친환경농업단지 2012년 6개에서 2020년 9개로, 유기농업단지는 2012년 6개에서 2020년 30개로 확대하고, 녹색농업단지는 2012년 103개에서 2020년 223개로 확대토록 함. 친환경농업 재배면적의 비중은 2012년 4.7%에서 2020년에는 20%로 증가시키며, 친환경농산물 산지유통센터를 2012년 1개소에서 2020년에는 9개소로 확대함. 친환경학교 급식에서 친환경농산물의 구매비중을 2012년 31%에서 2020년는 100%로 증가토록 함.

○ 유기농특구 조성의 전략으로 유기농산업체제로 전환을 위한 유기농산업 전문단지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유기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를 위한 가공-유통 시스템을 구축하며, 유기농업 실천농가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해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함. 또한 유기농산업의 확고한 정착을 위해 혁신시스템을 구축함.

○ 유기농특구 조성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생산측면에서 친환경농업 직불제 개선, 유기농업 실천 보험제도 도입, 맞춤형 유기농자재 공급, 산림부산물 활용 퇴비화 지원, 유기농자재 생산단지 조성, 지역별 유기농 전략작목 육성 등을 들 수 있음. 유통측면에서 산지조직화의 규모화와 물류 효율화, 친환경학교 급식의 확대, 충북도 유기농식품 브랜드화 추진, 유기농식품 해외수출기반 지원 등을 들 수 있음. 혁신측면에서 유기농업연구센터 설치, 유기농업 실천 인력양성 및 교육 강화, 유기농업 명예지도사 제도 도입, 농업환경관리시스템 구축, 전담인력 확보와 조직

개편, 충북 유기농산업발전위원회 설치 등을 들 수 있음.

○ 유기농특구 조성의 비전달성을 위한 핵심요소로 유기농 특화도 충북건설에 대해 도지사를 비롯하여 시장·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실천의지와 강력한 리더십이 중요한 요소임. 유기농산업의 전략적 육성에 대해 농업인, 충북도민, 공무원,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요소임. 유기농산업 발전을 위해 관련주체의 역량 및 협력강화가 중요한 요소임.

□ 결론

○ 유기농특구 조성 사업은 지역특화발전 특구제도를 근거로 유기농업 및 유기농식품의 생산-가공-유통 등과 관련 특화지역을 선정하여 유기농식품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반조성단계, 발전단계, 특구조성단계, 완성단계 등 단계별로 추진하는 사업임.

○ 충북 유기농특구 조성 및 유기농푸드밸리 조성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10대 핵심과제에 대한 투융자 계획과 단계별 세부추진 로드맵이 설정되어야 할 것임.

○ 충북의 유기농특구와 유기농푸드밸리 조성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함. 유기농 특화도 충북 건설에 대한 도와 시군 공무원 및 유관기관, 농업인 등 관련주체의 적절한 역할 분담과 공감대 형성이 긴요함. 특히 충북의 유기농산업 관련주체는 미래농업의 성장동력으로 유기농산업 육성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함.

○ 충북의 획기적인 유기농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정부 정책결정자의 역할이 관건임. 도지사와 시장·군수 등 지방정부 최고의사결정자의 유기농산업 육성을 통한 유기농 특화도 충북건설을 위한 강력한 리더십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

○ 관행농업 중심의 기존의 틀로부터 유기농산업 중심 체제로 전환을 위한 전담인력 확보 및 관련 조직의 개편이 필수적임. 농촌현장에서 유기농업 실천 확산을 위해서는 농업인들을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한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함.

ABSTRACT

Joint Research on Establishing Regional Special Zone for Organic Agricultural Industry

○ Researchers: Chang-Gil Kim, Hak-Kyun Jeong, Yoon-Hyung Kim, Ji-Hyun Choi, Dong-Hyun Moon, Tae-Hoon Kim, Jang-Myoung Woo, and Seung-Woo Ryu

○ Research Period: 2011. 7 ~ 2012. 12

Background of Research

There is a need of creating organic farming districts and organic food valleys for the first time across Korea to positively respond to the fast growing organic food market and the policy for supporting the organic food industry by the Korean government, and to drive green growth in the agricultural sector by maximizing the use of infrastructure for the organic food industry in the Chungbuk province. The key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suggest an effective method of creating special districts for organic farming and organic food valleys recognized in the world in order to realize Chungbuk focusing on bio-agriculture.

Overview of the project of creating special district for organic farming

The special district for organic farming is the system for selecting an area specialized in production-processing-distribution of organic farming products and organic food on the basis of the system for special districts for specialized local development in order to strategically support the organic food industry. The special district can be a single area or a plurality of areas.

The project of creating a special district for organic farming is driven by the Chungbuk province to specify and create areas specialized in organic farming in order to strategically support the organic food industry, and is composed of the steps of creating a foundation, developing the foundation, creating special districts, and completing the project.

Analysis of domestic and overseas conditions for creating special district for organic farming

The special district is close to the complex for producing organic products, for example, organic rice, organic livestock products, organic vegetables, organic fruits, and organic herbal medicine, and to the agricultural and livestock clusters for chilly, grape, and livestock farming. Therefore, the special district is in an

advantageous geographical position for synergistic effects with the organic farming and organic food industry. The current project of creating an eco-friendly · organic farming complex in the Chungbuk province includes the project of creating eco-friendly agricultural complexes (6), the project of creating organic farming complexes (6), and the project of creating green agricultural complexes (103).

Domestic and overseas cases regarding special district for organic farming

The special districts related to special districts for organic farming among other districts for specialized local development are the Yangpyeong Eco-friendly Farming District, the Wooljin Lohas Agricultural District, and the Sooncheon Eco-friendly Agricultural District, currently in operation. The special districts for eco-friendly organic farming in Yangpyeong, Wooljin and Sooncheon in Korea have been designated as leaders for developing eco-friendly farming. However, these three areas have not been specialized in organic farming, but are focusing on production, for example, encouraging farmers to practice eco-friendly farming.

Analysis of adequacy of creating organic farming food valley as a key project

The B/C ratio of creating organic food valleys is calculated in various conditions. If the discount ratio of 5.5% and the new investment ratio of 60% are applied, B/C=1.17, and the internal rate of returns (IRR) is 8.1%. The analysis reveals that the special district project for organic farming is an adequate policy to promote national business. The reason is described below. The districts can: be used as growth engines in the future agricultural sector; support the organic food industry as a representative green industry in the agricultural sector; be key business areas in conformity with the Five-year Plan for National Eco-friendly Farming Support; match the field strategically supported to respond to the open agricultural product market; contribute to reducing expenses through integrated complexes and improving consumers' well-being; and contribute to improving underdeveloped regions and encouraging industrial production.

Strategy for creating district specialized in organic farming

The vision of creating districts specialized in organic farming is 'Be the hub of organic food industry in Northeastern Asia' for Chungbuk which is an organic farming province. The strategy for creating districts specialized in organic farming is to support organic farming complexes for switching to the organic farming industry system, to build a processing-distribution system for ensuring stable sales routes of agri-products by organic farming, and to provide appropriate incentives to encourage organic farming. Another strategy is to build an innovation system in order to have a firm base for the organic farming industry.

Key factors for achieving the vision in creating special districts for organic farming include the practical will and strong leadership of the governor, mayors and county governors of the Chungbuk province for building Chungbuk specialized

in organic farming. Another important factor is to draw agreement among farmers, residents in Chungbuk, the civil service, and people working for involved authorities in order to strategically support the organic farming industry. The capacity and strengthened cooperation of the involved authorities is also important for developing the organic farming industry.

Concluding Remarks

It is necessary to have a correct understanding of creating special districts for organic farming and organic food valleys in the Chungbuk province. It is needed to achieve appropriate role sharing and agreement among involved authorities including the civil service of the province and cities, involved institutions and farmers for building Chungbuk specialized in organic farming.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hat the authorities involved in the organic farming industry in the Chungbuk province have a correct understanding of supporting the organic farming industry as a growth engine for future agriculture. A key point for greatly developing the organic farming industry in the Chungbuk province is decision maker's role in the local government.

제 1 장

서 론

1. 연구배경

○ 경제발전에 따른 국민소득 증가로 웰빙과 로하스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면서 안전한 농산물(특히 유기농식품)에 대한 소비증가와 환경 질 개선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

- 유기농식품(유기농산물과 유기가공품 포함) 산업은 2000년대 북미와 유럽 등 주요 선진국 시장에서 매년 20~30%정도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분야임. 2008년 시장규모는 약 509억 달러(53조 4천억 원)로 세계적인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성장하였음(IFOAM, 2010).
- 국내 유기농산물 생산은 2000년 이후 매년 약 60%씩 증가하였음. 2010년 유기농산물 시장규모는 약 3,500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고, 2020년에는 약 3배 증가한 약 1조 300억 원으로 전망됨(김창길 외 3인, 2010).

○ 유기식품산업은 의약과 화장품 등 생명산업, 생태관광 등 타산업과 연계해 성장가능성이 높아 21세기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음.

- 프랑스, 네덜란드, 덴마크 등 유럽 주요국은 유기식품산업 발전을 통해 안전한 식량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기반을 구축하고 있으며,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통해 농업생태계 환경을 복원하고 동시에 고부가가치 신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음.
- 주요국들은 유기식품분야의 연구기능과 산업화 및 수출증대를 위해 산·학·연이 공동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유기식품산업의 글로벌화와 지역 유기실천농가, 지역기반 유기가공식품산업의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음.

○ 정부는 2008년 8월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환경친화적 산업을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의 국가 미래 발전전략을 발표하고, 「녹색성장 5개년 계획(2009~2013)」을 수립하여 추진해오고 있음. 농업부문의 경우 녹색성장 핵심분야의 하나로 유기농식품 분야를 선정하고, 2010년 4월 '유기농식품산업 육성 방안'을 발표함. 유기농식품산업 육성방안은 '유기농식품산업(유기농산물과 유기가공식품을 포함) 육성을 통해 동아시아 시장 선도'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유기농 재배면적 확대(2015년 50천ha), 유기농식품산업 시장규모 확대(2015년 2조원), 유기농식품 수출 확대(2015년 1억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음.

- 유기농식품산업 육성 과제로 ①생산기반 구축(유기농식품 전문단지 조성, 기술개발 및 지원체계구축, 전문인력양성), ②가공 및 농자재 산업 육성(가공산업활성화, 유기농자재 개발 및 산업화, 민간투자활성화), ③유통·소비활성화(유통채널의 다양화, 소비촉진활동 강화, 해외 시장 진출 확대), ④관리체계 확립(유기농식품 인증제도 정비, 인증체계의 소비자 신뢰 제고, 농식품 탄소표시제 도입, 유기농식품 통합정보 제공) 등 4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함.
- 유기가공식품 활성화를 위해 기 추진 중인 대규모 친환경 단지를 중심으로 유기농가공식품업체를 유치하여 시너지 효과를 높이며, 특히 생산-소비자연대 및 전문유통·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민간투자 방식 도입(입주업체 출자 및 펀드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함. 유사사례로 iCOOP생협연대 친환경유기농식품클러스터(2009~2012)를 소개함.

○ 유기농식품산업이 미래 농업부문의 성장동력으로 부각되고 있으나 국내기반은 취약한 실정임. 따라서 유기농식품산업 기반 구축을 위해 유리한 거점지역을 선정하여 육성하는 노력이 필요함. 특히 유기농특구는 유기농산물 생산, 유기농자재, 유기농산물 가공 및 유통, 유기농산물 소비 등 유기농식품산업의 가치사슬(value chain)을 고려한 건실한 산업기반 형성에 크게 기여함. 또한 유기농특구는 유기농식품의 시장규모 확대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과 유기농식품산업의 집적화를 통해 지역특화 발전을 도모함.

○ 충청북도는 타지역에 비해 산업구조적으로 지역발전 동력이 취약함. 또한 기존의 전통적 관행농업을 성장동력으로 삼기에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충북 농업부문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전국 최초의 유기농특구 조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 경우 도내 농업부문의 혁신과 국가 녹색성장 견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유기농식품의 전후방 산업과 연계 발전을 통해 충북도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함.

○ 유기농특구 조성의 핵심분야인 유기농푸드밸리 조성 사업은 향후 EU와 미국 등 주요국과의 FTA 체결에 따른 후속대책과 지역전략식품육성사업 등 국내외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부각될 수 있는 국가사업으로의 추진가능성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함. 특히 유기가공식품 분야는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을 대상으로 한 미래 수출전략 분야로써 육성한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짐 .

- 정부는 2007년 4월 한국과 미국의 FTA체결을 계기로 피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FTA 국내 보완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2011년 8월 'FTA 환경하에서 경쟁력을 갖춘 사업기반 구축'의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고부가가치화 핵심사업을 확충하는 종합대책을 발표함.
- 정부는 2011년에 발표된 '제3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011~2015)'에서 유기농식품의 세계화를 위한 글로벌 마케팅 지원 사업을 통해 동아시아 시장을 선도하는 유기농식품 수출전략을 제시함.

○ 유기농식품 시장의 급속한 성장과 정부의 유기농식품산업 육성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충북의 유기농식품산업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여 농업분야 녹색성장을 견인할 전국 최초의 유기농특구 조성 추진의 필요성이 제기됨.

2. 연구목적

○ 이 연구는 유기농 특화도 충북 실현을 위한 유기농특구 및 세계적 수준의 유기농 푸드밸리(Organic Food Valley) 조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음.

-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유기농식품 시장을 선점하고, 남부 · 중부 · 북부권 유기농벨트를 구축하여 중장기적으로 충북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이룩하기 위한 유기농특구 조성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특히 유기농푸드밸리 조성을 위한 국비확보(예비타당성 신청)와 관련하여 중앙정부(농림수산식품부,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설득력 있고 합리적인 논리를 개발하여 제시하고자 함.

※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유기농특구 조성 공동연구」 본보고서와 「유기농 푸드밸리 예비타당성 조사 사전 용역보고서」 등 2개의 보고서로 발간함.

3. 선행연구 검토

3.1. 친환경 · 유기농식품 연구

○ 김호(1995)는 충남 홍성군의 유기농업 생산자 조직을 대상으로 유통마진의 특징을 분석하고, 소비자단체의 상설직매장 개설, 일반소매점의 독자 코너신설, 가공공장의 설립운영 등의 유기농산물 소비확대 방향을 제시하였음.

○ 윤석원, 박영복(2000)은 수도권 소비자 설문조사응답을 바탕으로 유기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과 특성을 분석하고 품질인증과 표시제도에 대한 신뢰도 제고, 판매경로와 방식의 다양화, 유기농산물 가격결정방식의 개선 등 소비확대 방안을 제시하였음.

○ 오호성 외 8인(2000)은 10종류(쌀, 배추, 상추, 시금치, 치커리, 케일, 고추, 오이, 당근, 감자)의 친환경농산물을 중심으로 생산농가 150호, 소비자 250가구, 유통업자 50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를 기초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실태 등을 분석하였음.

○ 김창길 외 3인(2005)은 충남 홍성과 충북 옥천 사례지역을 중심으로 친환경농업 실천에 따른 경제적 분석을 기초로 지역여건에 적합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등 친환경농업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음.

○ 김창길 외 3인(2010)은 국내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실태를 분석하고, 2015년부터 폐지되는 저농약 인증제도의 영향을 반영하여 장·단기의 시장규모를 전망하였음. 또, 미국, 일본, 중국의 친환경농업 실천현황 및 시장규모 등을 제시하였음.

○ 김창길 외 6인(2010)은 유기농업 실천농가와 유기농클러스터의 경영실태, 주요국 유기농업 경영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유기농가의 경영개선방안과 마케팅 전략 개발을 통한 가격경쟁력 제고방안 등을 도출하였음.

○ 정학균, 장정경(2011)은 국산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수도권 소비자의 구매패턴, 장래소비 의향 등의 설문조사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소비확대를 위해 가격인하, 유

기가공식품의 아이템의 다양화, 신뢰성 제고 등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음.

○ Catherine Greene et al.(2009)은 최근의 유기농산물에 대한 소비의 급증은 유기 규정프로그램(organic regulatory program)과 상표(label)의 개발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소비 급증으로 부각되는 이슈들을 살펴보기 위해 유기농업 시스템, 공급사슬, 가격 프리미엄, 그리고 시장 조건들에 관한 최근의 경제적 연구들을 검토하였음.

3.2. 클러스터 및 푸드밸리 조성

○ 농업분야의 클러스터 구축에 관한 연구는 산업 클러스터 이론을 지역농업과 연계하여 가능성을 타진한 김정호(2004), 지역별 특화작목을 중심으로 농산업클러스터의 형성가능성과 조건을 제시한 소순열 외(2005)의 연구가 있음.

○ 친환경농업 분야의 클러스터에 관한 선행연구로 윤종열·김호(2005)는 지역농업개발 차원에서 경종과 축산을 연계하는 자원순환농업시스템 모형을 제시하였고, 이은석(2005)은 친환경농산물 생산 클러스터 사례로 충남 홍성군의 오리농법 쌀 생산단지와 충북 옥천군의 복숭아 단지의 사례를 분석하였음. 장덕기(2007)는 전라남도지역의 친환경 쌀 클러스터가 지역농업의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함.

3.3. 농업부문 프로젝트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 윤윤규(2004)는 농촌진흥청의 동물생명공학 중심의 전문연구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경제성을 시나리오별로 분석한 결과, 경제적 타당성이 있고 정부의 동물생명공학 육성정책이나 지역균형발전정책과의 부합성이 높기 때문에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함.

○ 이재형, 송하율(2004)은 대구충북 한방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B/C 비율이 시나리오에 따라 0.2~0.41 정도로 나타나 경제성이 낮다는 판단을 하였음.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 규모의 축소, 정책목표의 조정, 정부의 한방정책과의 연계 등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시함.

○ 설광언(2009)은 서산 간척지 농업기반시설 재정비사업의 경제성 분석 결과 수질 개선의 효과를 고려한 B/C 비율이 1.102의 값을 보이고 있어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개별 농민들에 의한 집약적 영농, 일반기반시설의 개보수 등을 전략으로 제시함.

○ 최지현 외 5인(2009)은 편익과 비용의 범위, 건축물의 잔존가치 등을 설정하고,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고, 기업· 대학·연구기관 등과 상호 연계를 통한 산업활동 지원, 생산활동 관련 전·후방 연계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 등의 발전전략을 제시함.

○ 김정욱(2009)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사업규모에 따른 2개의 대안과 편익산정 방법론 및 가정에 따라 6개의 시나리오에 대해 시도하여 B/C 비율이 0.80~0.97로 경제적 타당성이 다소 낮다는 결론을 도출함. 사업 추진 방안으로 중복성 지양과 최대한의 클러스터링 효과 도출을 제시함.

4. 연구방법과 범위

4.1. 연구방법

○ 국내외 유기농식품산업 육성 및 유기농특구조성 관련 문헌 조사
- 유기농산업 실태 파악을 위한 통계자료 등 관련자료를 조사함. 또한 농림수산식품부, 충북도청 및 유관기관의 유기농산업 육성 관련 정책을 조사함.
- 식품클러스터 및 유기농식품푸드밸리 관련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해 EU지역에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프랑스 론알프스 유기클러스터와 스웨덴의 외레손 푸드클러스터, 네덜란드 와게닝겐 푸드밸리 등을 방문(2011년 12월 11 ~ 18일)하여 현지 견학과 관계자와의 심층면담을 실시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함.

○ 면담 및 설문조사
- 유기농특구 조성을 위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정책담당자 및 유관기관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유기농식품 분야의 정책추진에 대한 심층 인터뷰 조사
- 유기농푸드밸리 조성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이해와 지지 정도 및 충북도의 사업

추진 의지 조사

- 유기농푸드밸리 입주 희망 유기농식품가공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실시

○ 유기농식품 실태파악과 전망을 위한 통계자료 분석

- 유기농식품 실태파악을 위한 관련분야 통계조사 분석
- 여건변화를 반영한 유기농식품산업의 시장규모 예측

○ 유기농특구 조성의 경제성 평가를 위한 비용-편익 분석

- 유기농특구 조성에 따른 직·간접효과를 계측하기 위한 비용과 편익의 식별과 계량화 추진
- 유기농특구 조성의 비용편익 분석을 위한 IRR 도출과 여건변화와 불확실성을 반영한 감응도 분석(Sensitivity Analysis)을 실시

○ 의견수렴을 위한 협의회, 자문회의 및 세미나 개최

- 유기농특구조성을 위한 농식품부, 지식경제부, 충북도청, 괴산군청 정책담당자와의 협의회 개최
- 효과적인 과제수행을 위해 유기농특구 조성 관련 대학교수, 친환경농업단체, 업계 관계자 등으로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의견 수렴
- 충청북도 유기농특구 조성에 대한 효과적인 의견수렴을 위해 국내외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

4.2. 연구범위

4.2.1. 시간적·공간적 범위

○ 연구수행 관련 시간적 범위는 2013~2020년까지 8개년으로 설정함.

○ 유기농특구는 유기농푸드밸리 조성지역(괴산군 칠성면 율원리와 율전리)을 중심으로 1단계로 괴산군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2단계로 괴산군 지역의 40km 반경으로 충주, 제천, 단양, 음성, 진천, 증평, 청원, 보은, 옥천, 영동 등 타시군 가운데 유기농식품산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성과를 거둔 지역을 대상으로 충북의 유기농식품산업 특구 지정을 추진함<그림 1-1>.

※ 충북도의 태양광산업특구는 태양광 부품소재산업을 특화하여 육성하기 위해 청주, 충주, 청원, 증평, 괴산, 음성, 진천 등 7개 시군이 연합하여 2011년 4월 특구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음.

그림 1-1. 유기농특구 조성의 권역 설정

4.2.2. 과업의 주요 내용

○ 유기농특구 조성 연구의 과업은 유기농푸드밸리 예비타당성 조사와 충북도의 유기농특구 조성 추진계획 수립 등 크게 두 분야로 대별됨<표 1-1>.

- 유기농푸드밸리 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한 분야는 유기농푸드밸리 조성 사업의 개관, 유기농푸드밸리 조성을 위한 대내외 여건분석, 유기농푸드밸리 조성 관련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클러스터에 관한 이론, 유기농푸드밸리 관련 국내외 사례, 유기농푸드밸리 조성의 비용·편익 추정 및 경제적 효과, 유기농푸드밸리 조성의 정책적 분석, 유기농푸드밸리 입주업체 수요조사, 유기농푸드밸리 조성의 추진전략, 투자계획 및 세부 추진사업 등의 내용을 담은 「유기농푸드밸리 예비타당성 조사 사전용역보고서」를 별도의 보고서로 발간함.
- 유기농특구 조성 계획에 관한 과업의 주요 내용은 특구조성의 이론적·제도적 근거, 국내외 사례 검토, 유기농특구 조성의 기본방향, 유기농특구조성 기반지원, 유기농 의농(醫農)산업 및 미농(美農)산업 육성 방안, 유기농 식품 산업 유치 및 지원 전략, 산·학·연·관 협력 시스템 구축, 홍보 및 운영 계획, 문화·

관광 산업과 유기농특구와의 연계 방안, 유기농특구 지정에 필요한 시군별 특화작목 개발, 괴산군의 유기농업 발전방안 등을 포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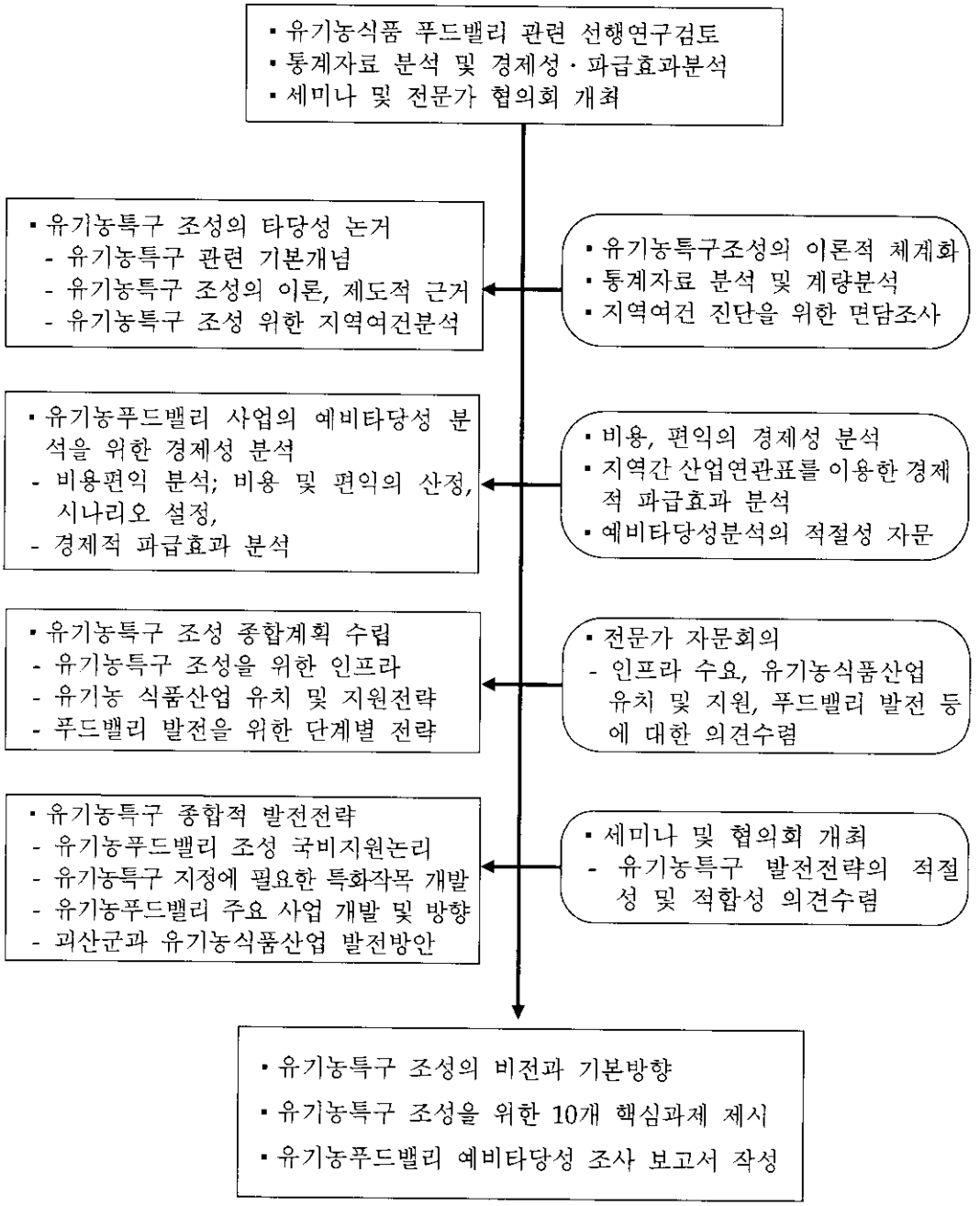
- 유기농푸드밸리와 연계된 괴산군 유기농식품산업 발전방안 연구는 충북발전연구원에서 수행하였고, 핵심내용은 유기농특구 조성 전략과 <부록 4>에 제시됨.

표 1-1. 분야별 과업의 주요 내용

분 야	주 요 내 용
유기농푸드밸리 사업계획의 타당성 여부에 관한 논리적, 객관적인 근거 제시	◦ 유기농특구 조성의 이론적·제도적 근거 제시 ◦ 지역여건 분석 ◦ 국외 사례 분석 ◦ 정책적 타당성 분석
사업의 비용·편익 분석, 투입산출표를 근거로 한 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 등을 실시	◦ 재무적 분석 ◦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유기농특구 조성 종합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방향 수립	◦ 유기농특구 조성의 기본방향 수립 ◦ 유기농특구 조성 기반 지원 ◦ 유기농 의농(醫農)산업 및 미농(美農)산업 육성 방안 ◦ 유기농 식품 산업 유치 및 지원 전략 ◦ 산·학·연·관 협력 시스템 구축 ◦ 홍보 및 운영 계획 ◦ 중·장기 유기농푸드밸리 발전 전략 수립
유기농특구 지정에 필요한 시군별 특화작목 개발 등	◦ 충북도의 지역별 유기농 특화작목 선정 ◦ 지역별 특화작목 개발 육성 전략
유기농푸드밸리 조성 필요성 등 국비 지원 논리개발	◦ 국가차원의 유기농푸드밸리 조성 논리개발 ◦ 충청북도 지역의 유기농푸드밸리 조성의 적합성 제시 ◦ 기존 유사사업과의 중복성 지양 ◦ 타 지역과의 차별화 전략 및 추진전략 제시 ◦ 향후 경쟁력 확보 방안 및 수출 증대 방안 제시
유기농푸드밸리 주요 사업개발 및 사업방향 설정	◦ 소요재원 및 조달에 관한 사항; 투자계획의 총괄, 부문별, 계획 단계별 소요액 분석, 소요재원에 대한 재원별, 회계별, 부처별 확보방안 제시 ◦ 사업추진 주체 정립으로 국비 확보 최대화 설정
괴산군과 유기농푸드밸리 발전 방안	◦ 푸드밸리와 괴산군이 연계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및 지역축제 개발 ◦ 유기농푸드밸리를 활용한 친환경농산물 생산·가공·유통 활성화 방안 ◦ 경종·축산·산림 등 지역의 풍부한 자원을 활용한 자원순환농법 체계 수립 ◦ 괴산군 여건에 맞는 다양한 품목의 특성화 방안 ◦ 친환경농산물, 생태마을 등 괴산군 대표브랜드 개발 및 지역이미지 홍보
기타 필요한 사항	◦ 문화·관광 산업과의 연계 방안

○ 유기농특구 조성 연구의 과업 달성을 위한 연구는 유기농특구 조성의 타당성 논거, 유기농특구의 핵심사업인 유기농푸드밸리 사업의 예비타당성 분석을 위한 경제적 분석, 유기농특구 조성 종합계획 수립, 유기농특구 종합적 발전전략 수립 등의 단계별로 진행함<그림 1-2>.

그림 1-2. 유기농특구 조성 연구의 흐름도



제 2 장

유기농특구 조성 사업의 개관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국내외적으로 건강과 환경을 중시하는 웰빙과 로하스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유기식품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유기농식품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최근에는 유기가공식품의 원료로 수입유기농산물의 인증물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 세계적으로도 농산물의 안전성과 건강을 추구하는 웰빙 트렌드의 확산으로 유기농산물의 생산과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특히 소득수준이 높은 북미, 유럽, 일본 등의 선진국을 중심으로 2000년 이후 매년 20% 이상의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유기식품산업의 고부가가치 달성과 미래 수출 전략부문으로의 육성을 위해 유기식품산업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한 전략 및 실행방안 필요

- 유기식품산업은 의약과 화장품 등 생명산업, 생태관광 등 타산업과 연계해 성장가능성이 큰 장점을 가지고 있어 국내 농식품분야의 성장동력은 물론이고 수출도 가능한 분야임.
- 유기식품산업 분야의 집적화와 산업고도화 시스템 정착을 유기식품산업 육성 전진기지 조성이 필요함.

○ 유기농식품산업의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을 통한 지역특화발전 도모

- 유기농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관련 분야 간 시너

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규제특례를 적용함.

- 유기농식품산업 중심의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지역특화발전 관련 민간투자 유도를 확대함.

○ 유기농특구 조성을 통한 유기식품산업 기반의 구조개선

- 유기농특구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유기식품 분야의 경쟁력 확보는 기업의 내재적 역량발휘 및 식품산업의 구조고도화라는 차원에서 접근
- 유기식품기업의 영세성을 극복하고 중견기업의 육성을 통한 중간층의 확대가 유기식품산업의 구조를 건실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짐. 즉, 혁신형 기업창출과 국내 내수시장 점유율 확대 및 수출주도형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근간이 됨.

○ 유기식품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신뢰성 확보가 관건

- 유기농식품은 안전성이 중시되는 신뢰재(credence goods)로서 소비자가 유기식품 구입 전·후에도 해당 품목이 가진 기능이나 효능을 확인할 수 없고, 유기농산물의 경우 생산자들만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음.[1)]
- 일반농산물 또는 일반가공식품과는 구분되어 특화된 단지에서 유기농식품을 생산함으로써 신뢰성을 확보하고, 브랜드화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제고함.
- 신뢰성은 유기식품 인증시스템을 통해서 확보될 수 있을 것임. 인증시스템이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구축되어 있다면 소비자들은 유기식품을 믿고 구입할 것이며, 일반식품과의 차별화된 가격을 기꺼이 지불하게 될 것임. 일반식품과의 차별화된 가격을 통해 유기식품 생산자들의 소득이 증가하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생산을 확대시킬 수 있을 것임. 한편 유기식품 생산자들의 생산 확대로 유기식품 시장이 규모화 될 수 있을 것이며, 규모화는 곧 생산단가를 낮추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고, 생산단가가 낮아지면 판매가격이 낮아지므로 소비자들에게 이익이 돌아가게 될 것임. 따라서 생산자, 소비자를 모두 만족시키면서 유기식품산업이 발전할 수 있을 것임.

---

1) 재화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가 판단할 수 있는 정도에 의해 탐색재(search goods), 경험재(experience goods), 신뢰재(credence goods)의 세 종류로 구분됨. 탐색재는 제품 구매-사용 이전에 탐색활동을 통해 제품에 대한 정보를 대부분 얻을 수 있는 재화이며, 경험재는 재화를 사용해본 이후에야 재화에 대한 정보를 판단할 수 있는 재화를 말함. 신뢰재는 재화를 사용해본 이후에도 재화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지 않은 재화를 의미함. 정보를 기초로 한 재화의 분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Swagler(1995)에 제시되어 있음.

2. 유기농특구와 유기농푸드밸리의 개념

2.1. 유기농특구의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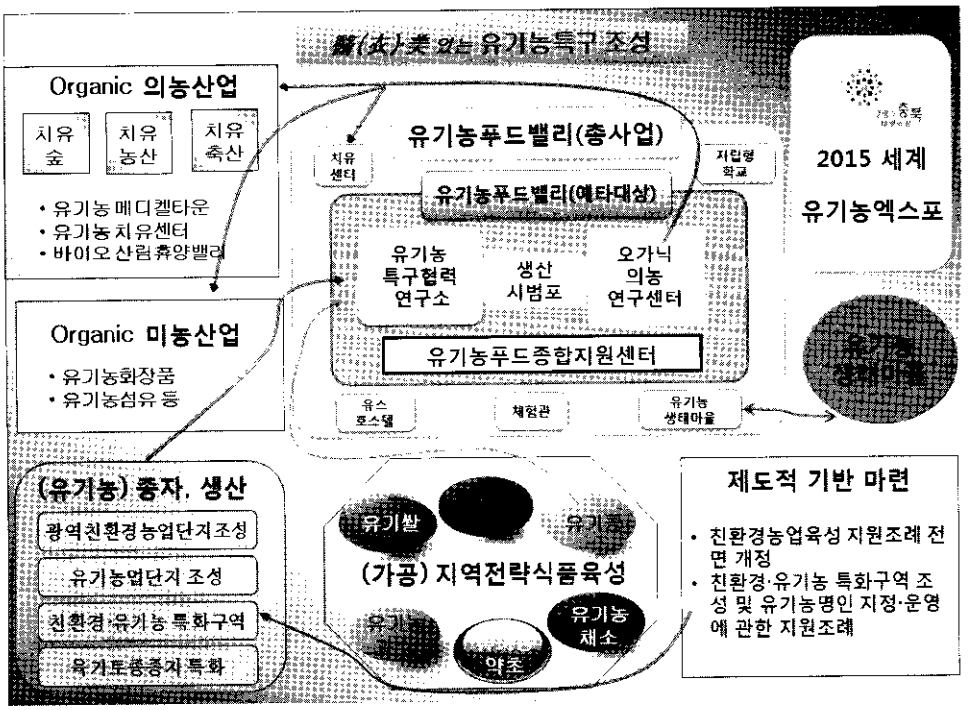
○ 유기농특구의 개념

- 유기농특구는 지역특화발전 특구제도를 근거로 유기농업 및 유기농식품의 생산-가공-유통 등과 관련 특화지역을 선정함으로써 유기농식품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제도를 의미함. 특구는 단일 지역 또는 여러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음.

○ 유기농특구 조성 사업의 의미

- 유기농특구 조성 사업은 충북이 유기농식품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반조성단계, 발전단계, 특구조성단계, 완성단계 등 단계별로 추진하는 사업임. 유기농식품 생산·유통·연구·체험 등 종합 시스템을 갖춘 유기농특구의 핵(核), 유기농푸드밸리를 조성하여 충북도의 유기농식품산업 발전을 주도하기 위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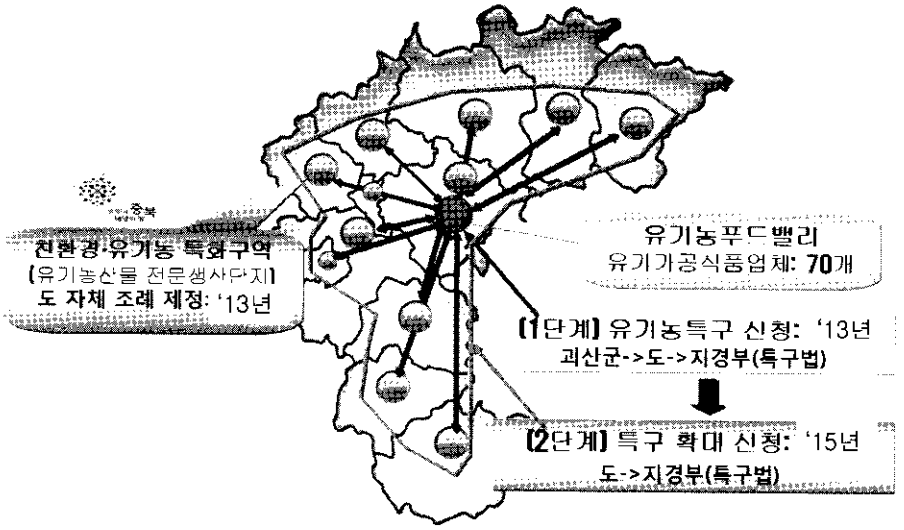
그림 2-1. 유기농특구 조성의 기본 골격



○ 유기농특구의 조성단계

- 유기농 생산·유통(가공)·체험 등 관련 산업 육성·집적화(충북도 관련 조례 제정)하고,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을 기초로 특구지정이 이루어지고 본격적인 특구조성이 이루어짐.
- 유기농특구는 1단계로 괴산군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2단계로 여러 지역을 연합하여 추진함.

그림 2-2. 유기농특구 조성 추진계획(안)



- 기반조성단계에는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 사업, 유기농업단지조성 사업, 친환경녹색농업단지조성 사업, 유기축산농가육성사업 등을 통해 유기농산물인증재배면적을 확대함.
- 발전단계에서는 유기농산물인증재배면적(생산기반), 유기농식품가공업체수(가공기반), 유통시설(유통기반) 등을 고려한 유기농벨트를 구획함.
- 특구지정단계는 유기농벨트와 벨트를 아우르는 유기농특구를 지정하고 세부실천사업을 통해 특구 조성을 내실화함. 특구지정은 중앙정부의 법적 지정 절차에 따라 이행함.
- 특구조성단계는 유기농특구에 생산·가공·유통·관광 등 관련 산업 집적화 및 광역브랜드화 등을 추진함. 특히 유기농특구 내 생산·유통·연구·체험 등 종합시스템을 갖춘 유기농특구의 핵(核), 유기농푸드밸리를 조성하여 충북도의 유기농식품산업 발전을 주도하고, 연관산업과의 메디치 효과(Medici effect)가 창출의 기회의 땅으로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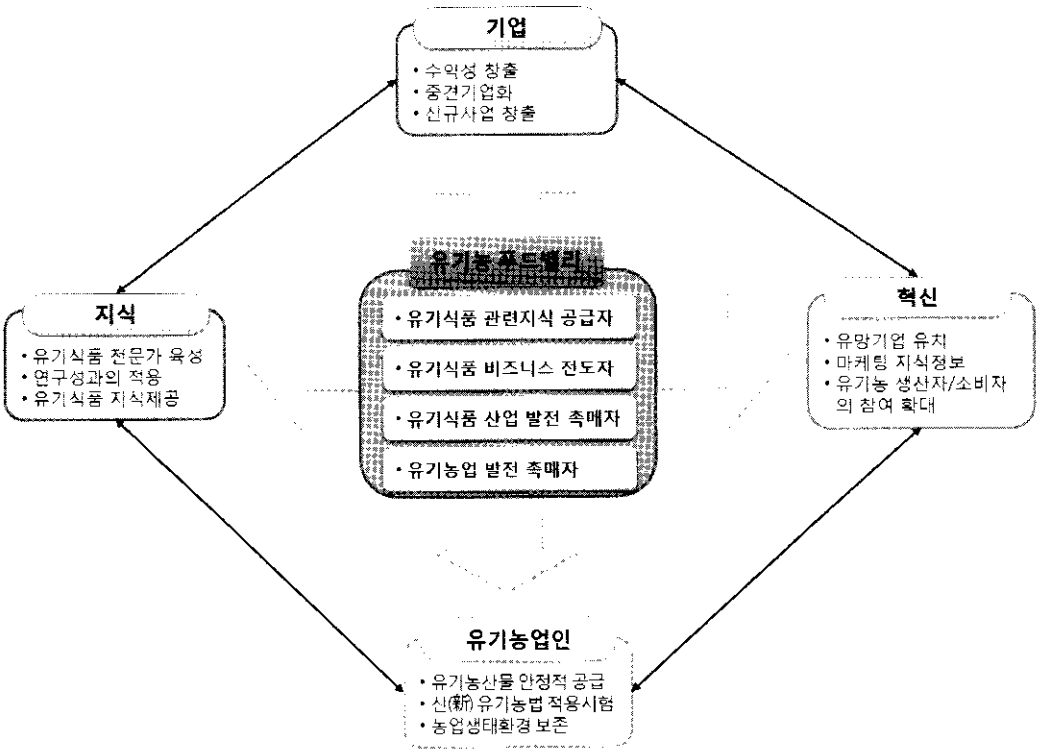
- 특구완성단계에서는 유기농특구를 중심체(hub)로 하고, 도내 전 지역에 분산된 유기농생산단지 및 유기농식품업체, Organic 의농(醫農)산업, Organic 미농(美農) 산업 등 관련 산업체를 가지(點)로 하는 유기농 트리를 조성함으로써 유기농특구의 역할이 극대화 되도록 함.

2.2. 유기농푸드밸리의 개념

○ 유기농푸드밸리의 개념

- 유기농푸드밸리는 유기식품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해 지식(knowledge), 기업(enterprises), 혁신(innovation), 유기농업인(organic farmer)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집적체를 의미함. 특히 유기농푸드밸리는 연구개발을 기초로 하는 지식형 클러스터임. 이를 활용하여 수익성을 높이는 혁신의 촉매자라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함.
- 실제로 유기농푸드밸리는 유기농을 기본으로 생산·가공·판매·체험관광·R&D 등 1·2·3차 산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유기농식품 집적단지를 의미함.

그림 2-3. 유기농푸드밸리의 개념적 기본 골격



- 유기농푸드밸리는 유기가공 식품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생산(시범)단지와 유기농특구협력연구소, 유기농물류센터, 국제유기농컨벤션센터, 유기농포장디자인센터, 유기농식품진흥원 등이 조성됨. 이후 추진되게 될 후속 사업은 유기농식품체험관, 유기농생태마을, 유기농치유센터, 자립형 학교 등을 조성함으로써 세계적 수준의 "유기 생산-가공-유통(마케팅)-체험-R&D"가 연계된 유기농식품 종합 집적단지를 구축함.

○ 유기농푸드밸리 조성 사업의 개념

- 유기농푸드밸리 조성 사업은 유기농특구 조성 사업의 핵심분야로 충북 괴산군 칠성면 율원리 · 율지리 일원에 약 200만㎡의 유기농 집적단지를 단계별로 구축하는 대규모 신규 프로젝트임.
- 경제성분석 대상 사업의 경우 총 사업규모 1,494천m²에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총사업비 7,934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임.
-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의 경우, 총 사업규모 57천m²에 총 사업기간은 2015부터 2020년까지며, 총사업비 1,991억 원(국비 1,262억 원, 지방비 550억 원, 민자 179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임.

그림 2-4. 유기농푸드밸리 조성단지 조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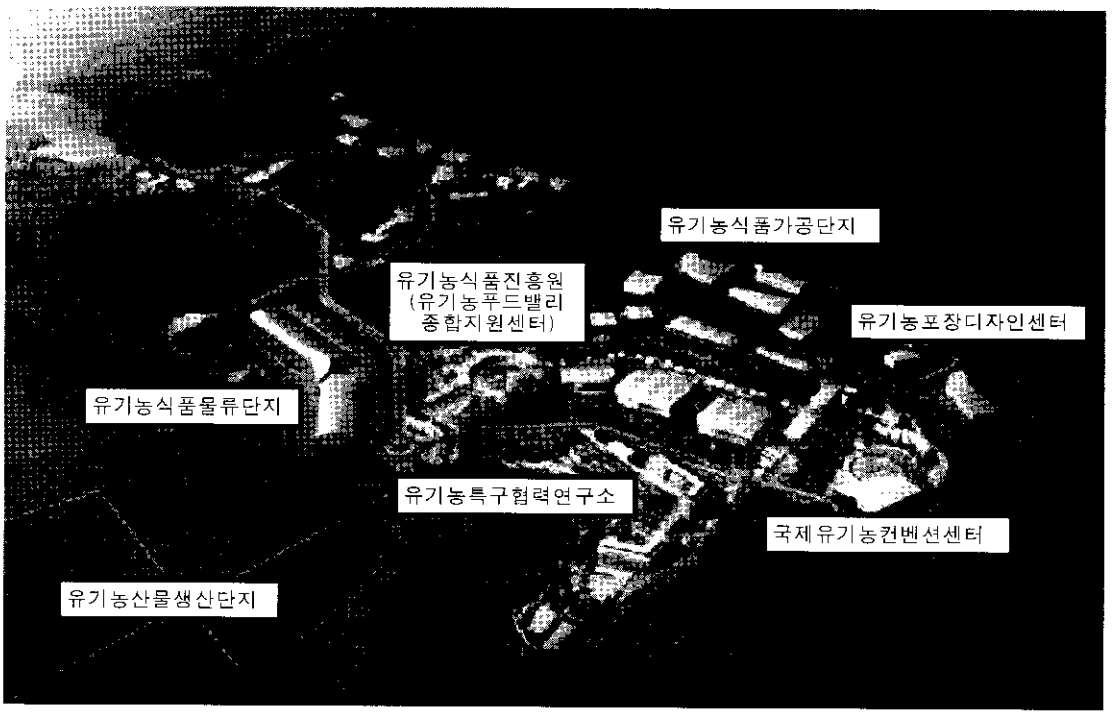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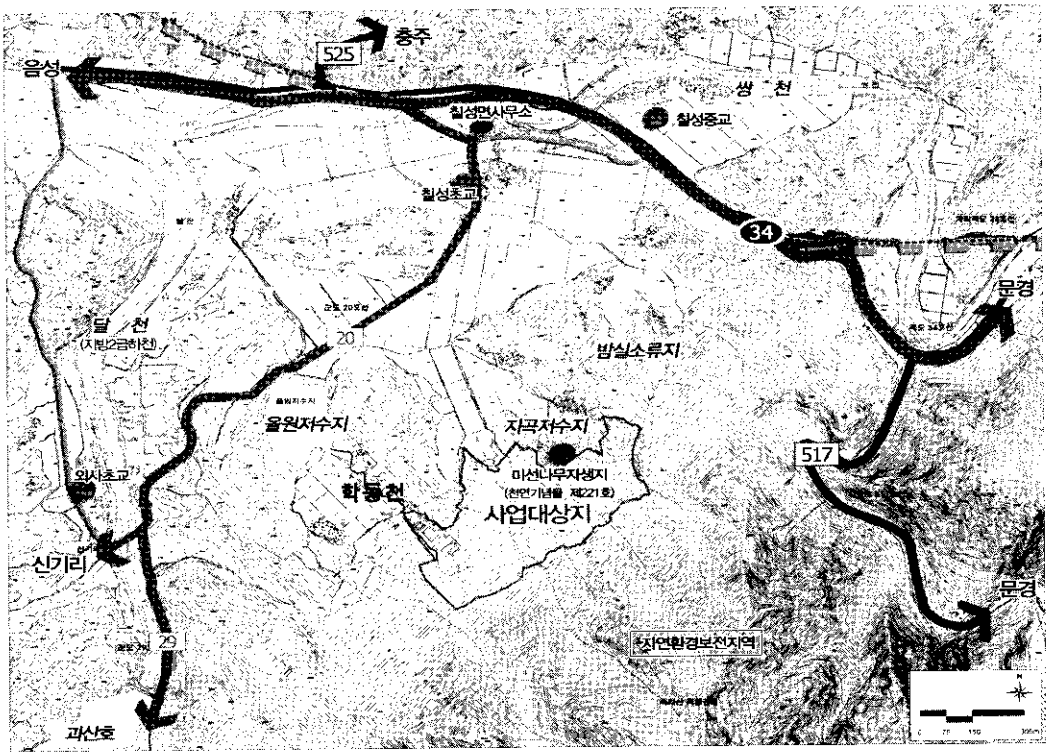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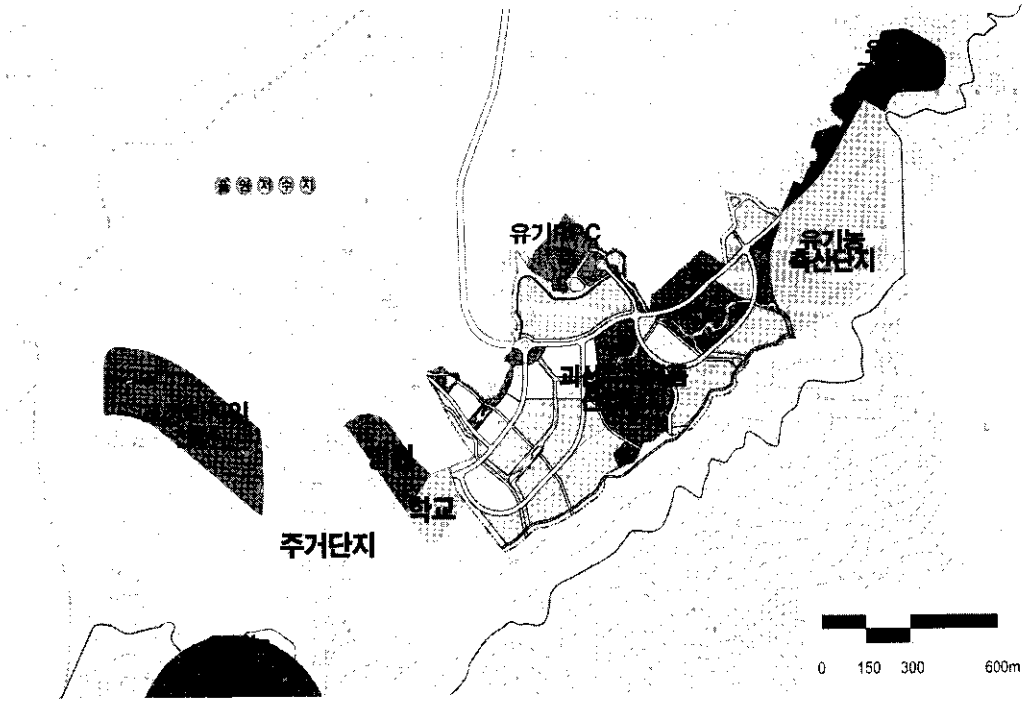


그림 2-5. 유기농푸드밸리 조성지역 위치



○ 유기농푸드밸리 발전 구상(안)

그림 2-6. 유기농푸드밸리 발전 구상(안)



3. 유기농특구 조성을 위한 클러스터 이론

3.1. 산업클러스터의 개념과 이론적 발전 과정

○ 포터(Michael Porter)는 클러스터를 '특정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부품 공급업체, 서비스 공급업체, 연관산업 기업, 관련 기관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동시에 협조하는 지리적 집적체'로 정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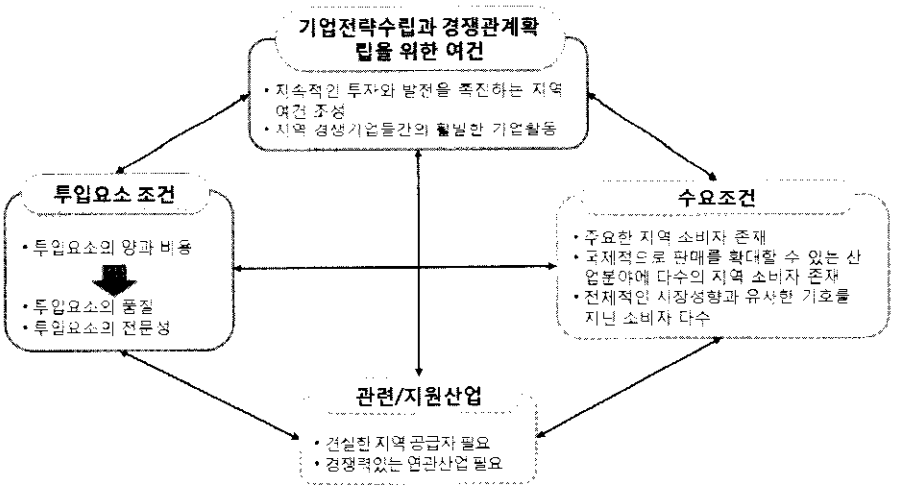
- 포터의 다이아몬드 모델(Diamond Model)에 의하면 요소(투입) 조건(factor(input) conditions), 수요조건(demand conditions), 관련 및 지원산업 조건(related and supporting industries), 전략 · 구조 · 경쟁기업 등의 네 가지 조건이 발전하면 기업의 경쟁력이 제고됨.
- OECD는 클러스터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생산사슬에 연계된 독립성이 강한 기업들과 지식생산기관(대학, 연구기관, 지식제공 기업), 연계조직(지식집약사업서비스, 브로커나 컨설턴트 등), 고객의 네트워크' 등으로 정의함(OECD, 1999).
- 넓은 뜻에서의 의미로서의 산업클러스터는 실제적으로나 잠재적으로 핵심(core) 산업과 구매-판매의 연관관계를 갖고 연결된 모든 산업들의 사업체의 군집을 의미함. 좁은 의미로는 네트워크를 통해 밀접하게 연결되어 지역적인 근접성을 갖고 있는 사업체들의 군집(Bernet, 1999)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산업클러스터 이론의 발전과정을 보면, 이론이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되어왔음. 산업의 집적과 관련된 이론들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마샬(Alfred Marshall)의 산업지구이론(industrial district)에서부터 최근 지역혁신과 관련한 신산업공간론(new industrial space theory), 포터의 다이아몬드 모델에서 출발한 클러스터이론, 혁신네트워크론 등이 대표적임.

- 마샬(Marshall)이 소개한 산업지구론은 사회, 문화, 역사적 배경을 공유하며 비슷한 규범과 가치체계를 가진 주민들의 공동체와 경쟁 혹은 협력관계에 있는 기업들이 상호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특수한 형태의 지리적 공간으로 정의됨. 산업지구론은 경제발전에 있어 소지역(지구)의 역할을 강조하는 국지화 논제(localization thesis)를 활성화시켰다는 측면에서 집적지역을 이해하는데 기여하였으며, 경제발전의 사회적 측면을 강조하는 다양한 개념들의 원류가 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신산업공간론은 1980년대 초 경제성장의 공간적 불균형을 설명하기 위해 경제지리학 분야에서 제기되었음. 스코트(Allen J. Scott)와 스토퍼(Michael Storper)는 각 산업은 해당 산업의 기술과 공간적 요구에 따라 그에 적합한 환경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러한 기술적이며 영역적인 필요(technological and territorial requirements)에 따라 공간환경을 형성해 나가는 특성을 가진 지역(공간)을 신산업공간으로 정의하였음. 신산업공간론에서는 기업의 규모 뿐만 아니라, 기업간의 분업구조, 네트워크, 뿌리내림 등의 요인을 명시적으로 도입하여, 이들 간의 상호작용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신산업지구가 형성되었음을 주장함.
- 혁신환경론은 GREMI 그룹(Groupe de Recherche European sur les Mileux Innovateurs) 연구자들이 주장한 이론으로, 일부 특정지역들의 성공적인 경쟁력 확보를 사회적·문화적 측면과 함께 혁신 메커니즘을 통하여 설명하였음.
- 지역혁신체제는 상호작용적 학습의 적정단위로서 지역 내 혁신주체들 간의 신뢰(trust)와 호혜성(reciprocity)을 토대로 지식의 창출되고 확산되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일련의 협력시스템으로 정의할 수 있음. 지역혁신체제에서는 대안적 관리구조로서 '혁신환경(milieu)'의 개념과 외부화된 학습조직의 개념이 중요한 요소임.
- 산업클러스터 이론은 포터의 다이아몬드 모델에서 발전된 이론으로, 특정한 지역이 여타 지역에 비해 경쟁력을 갖는 근본원인을 혁신으로 보고 혁신을 위한 경제적 환경이 지역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설명하고자 하였음.

그림 2-7. 지리적 경쟁우위의 원천



자료: 김정욱 · 김석영(2009) 재인용

3.2. 산업클러스터의 이익과 중요성

○ 산업클러스터는 비교우위 요소를 바탕으로 구축된 산업이 경제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에 클러스터를 형성하여 창출하는 집적의 이익이 경쟁력의 중요한 원천이기 때문에 중요함.

- 클러스터의 이익은 동일업종의 기업이 공간적으로 집중하여 기업지원 서비스와 시설의 발달, 기업 상호간 기능적 보완, 기술혁신, 시장접근성 강화, 전문기술인력 확보 등의 국지화 경제효과와 동일한 산업 내에서 지역 기업 간 지식의 축적과 지식전이를 통해 유발되는 동태적 외부효과를 발생시킴.

○ 국지화 경제효과는 산업 내 전문화에 따른 경제효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해 볼 수 있음.

- 우선, 산업의 규모화에 따라 기업 간의 전문성이 강화되고, 전문화된 중간재의 투입, 사업지원업무, 금융시장의 효율성 증가에 의한 경제효과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있음
- 둘째,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로 숙련노동자나 전문화된 노동자 풀(pool)이 확장되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숙련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이 용이해지는 효과가 있음.
- 셋째, 기업 간의 의사전달이 용이해지고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상호보완성에 의한 이득을 얻을 수 있으며, 기업 간의 새로운 시장개척, 경제활동의 통합, 새로운 혁신의 채택 등이 일어남. 네트워크 활동에 통해 지식이 어느 한 기업만의 지적재산권으로 귀속되지 않고, 산업클러스터 참가기업 모두가 활용할 수 있게 됨.
- 넷째, 특정 산업에서 필요한 공공재나 특정서비스의 공급이 용이해지는 규모의 경제 효과가 나타남.

○ 동태적 이익은 Mashall-Arrow-Romer(MAR)유형의 외부경제효과로 그 산업 내에서 지역고용의 집중과 동일한 지역 내 산업활동의 역사적 수준에서 찾을 수 있음. 동일한 산업 기업들간의 지식공유와 축적은 특정산업 내에서 나타나는 전문화에 의해서 개선됨.

- 산업클러스터는 규모에 대한 수확체증과 학습효과(learning by doing)를 통해 동일 산업내 기업간 지식 스필오버를 원활하게 하여 해당지역 및 산업의 성장을 촉진함.

3.3. 산업클러스터의 구성요소

○ 산업클러스터의 구성요소는 일반적으로 국지화, 네트워킹, 착근성 및 제도적 집약, 집단학습 및 혁신시너지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Capello, 1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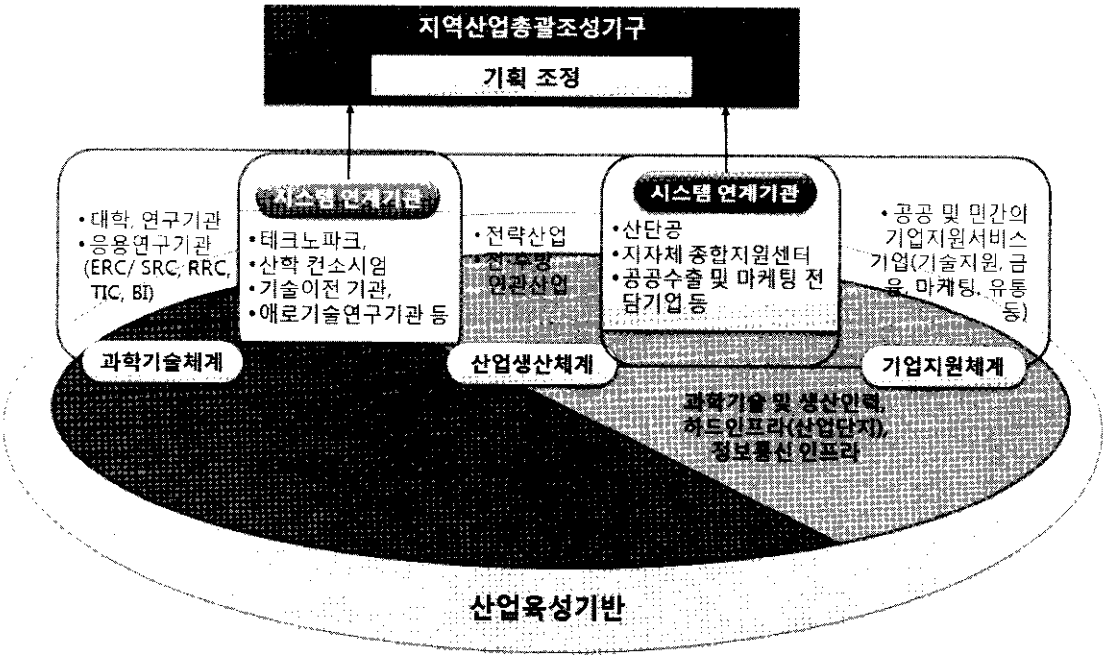
- 국지화(localization)는 '동종 또는 유사한 기업들이 동일한 장소에 집적함으로써 얻어지는 외부경제의 효과'로 정의됨. 지역화는 전문적인 기능, 숙련노동력, 전문화된 기계 등 생산요소의 공동 활용과 공급자 및 고객과의 근접성으로 인하여 거래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유발함. 또한, 기업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노동시장을 형성함으로써 그 지역이 특정부문에 있어 지속적인 기술력과 노하우를 축적하는데 기여함.
- 네트워크(network)는 기업 간의 분업에 의한 협력의 지속적 관계를 의미함. 거래관계에서 기업조직 내와 기업 간 구조가 혼합된 중간적 유형의 거래관계는 물론 기업 활동과 관련된 모든 혁신주체간의 관계유형을 포괄하는 개념임. 네트워크는 혁신활동을 설명하는 주요인으로 그 중요성이 커져가고 있음.
- 착근성(embeddedness)은 경제사회학에서 출발한 개념으로 '기업간 관계가 사회적 관계구조 속에 고착되는 것'을 의미함. 사회관계의 공공화로 인해 기업간의 신뢰가 형성되고 이것이 기업 간 정보 및 지식이전으로 연결되어 경제발전에 기여한다는 설명임.
- 제도적 집약(institutional thickness)은 착근성과 유사한 개념으로 다양한 관련 조직의 존재와 해당지역의 사회적인 관계들 속에서 형성시킨 관습과 지배구조, 공통된 인식 등을 의미함. 제도적인 집약을 달성하게 되면 다양한 기능과 성격의 기관들이 제각기 유기적인 역할을 수행해 긍정적인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음.
- 집단학습(collective learning)은 '개별기업의 범위를 벗어나 집적지 내부에 존재하는 공통된 지식을 창출하고 이전하는 기제'를 의미하는데, 집단학습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지역노동력의 외부유출이 낮아야 하며, 공급기업 및 수요자와의 긴밀한 네트워킹이 유지되어야 함.
- 마지막으로 혁신시너지(innovative synergy)는 '혁신의 잠재력이 높은 지구에서 창의적인 사업아이디어가 실질적인 경제적 성과로 전환되기 위해 필요한 제반활동과 여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내·외적 학습결과를 수익창출로 전환할 수 있는 개별 기업의 내적능력과 불확실성 및 위험을 감수하려는 문화적·제도적 기반, 사회화된 타 기관의 지식을 활용하려는 자세 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

3.4. 산업클러스터 정책의 기본방향

○ 산업클러스터 정책의 기본방향

- 산업클러스터 정책의 기본방향은 지역혁신체제 구축 및 발전으로 설정될 필요가 있으며, 핵심요소는 크게 산업클러스터, 산업육성기반, 지역산업 추진체계로 구성됨.
- 산업클러스터는 과학기술체계와 산업생산체계, 기업지원체계의 유기적인 결합 형태임.
- 산업육성기반은 전략산업 육성에 필요한 산업인력, 산업입지, 정보 인프라, 지역마케팅 등 산업클러스터 형성을 촉진하는 인적, 물리적 기반임.
- 지역산업추진체계는 추진 및 운영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국가적 차원의 추진체계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운영체계, 법과 제도를 포함함.
- 정책의 기본방향이 효과적으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테크노파크, 산학 컨소시엄, 기술이전기관, 지자체 종합지원센터 등 시스템 연계기관의 적절한 역할 분담과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관건임.

그림 2-8. 산업클러스터 정책방향



자료: 이항구 외(2008)를 기반으로 재구성

○ 국가식품클러스터

-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식품 연관업체와 함께 대학, 연구소 및 지원기관들이 일정지역에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집적화된 상태를 의미함.
- 식품산업클러스터가 조성되면 많은 정보와 선진 기술 확보가 용이하며 유통조직을 활용, 국내 판매와 수출 경로도 확보할 수 있으며 네트워킹을 통해 기업의 요구 사항을 국가 지원기관, 연구기관과 연계하여 쉽게 충족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식품산업은 R&D 기능을 갖춘 대학이나 연구소가 근접하여 기술 개발 및 지원을 하여야 하며, 지원 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국가 기관이 상주하여 기업활동을 지원하여야 함.

3.5. 산업 클러스터의 유형으로 유기농특구의 시사점

○ 산업클러스터의 유형으로 유기농특구의 시사점

- 급속하게 성장하는 세계 유기농 시장에 대응하고, 국내 유기농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유기농산물 생산에서 고부가가치 유기농 제품 생산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 충북은 유기농식품 시장의 급속한 성장과 정부의 적극적인 유기농식품산업 육성정책에 부응하여 유기농식품 부문을 충북도의 미래농업의 성장동력으로 설정하고 유기농특구 조성을 전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유기농 생산면적 및 실천농가, 유기농식품 가공업체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유기농식품산업 클러스터의 기반구축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이러한 고부가가치 유기농 제품 생산으로의 전환에는 다음과 같은 선결 조건이 필요함.
  ① 유기농 생산 및 유통의 효율성 증대
  ② 유기농 제품 연구 개발을 위한 산·학 협력 체계 구축
  ③ 유기농 관련 기업 유치 및 전문 인력 양성
  ④ 유기농 제품 수요 증대를 위한 홍보 및 해외 판로 개척
  ⑤ 지역 산업과의 유기적 결합
- 유기농특구 조성은 유기농 생산농가, 유기농 연관업체와 함께 대학, 연구소 및 지원기관들의 집적화를 통한 클러스터 이익 및 시너지 효과로 위의 선결 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효율적 방안임.

4. 유기농특구 조성의 제도적 근거

4.1. 지역특화발전 특구제도의 개요

○ 지역발전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지역특구제도의 도입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그간의 중앙정부 주도의 개발방식은 지역별 특성과 여건에 맞는 발전전략의 수립과 실행에 있어 미흡했고,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형평성이라는 굴레를 벗어나지 못해 나눠먹기식 지원과 중복투자에 따른 사회적 낭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됨. 또한 전국을 대상으로 한 일률적인 규제개혁 추진은 관계부처의 반대와 시장교란 등의 이유로 더디게 진행되었고, 더욱이 지방자치단체별 특성에 맞는 개별적인 규제완화 수요도 반영되는데 어려움이 있어 지자체가 특색 있는 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함.
- 지역의 자율과 창의력을 극대화시키고 기업가적 투자 마인드를 이용하여 각 지역의 특성화된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중앙정부는 규제완화 등을 비롯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증진시키는 상향식(Bottom-up) 발전전략이 요구됨. 이러한 배경 하에 정부는 2003년 6월 국가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지역 특성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를 도입하였고, 2004년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 입법화됨.

○ 지역특화발전 특구제도(regional special zone)의 의미와 목적

- 지역특화발전 특구제도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의 자립화를 위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규제개혁을 추진함으로써, 민간의 활력을 최대한 활용한 차별화된 특화사업을 발굴하여 발전을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함.
- 특구제도의 목적은 자치단체의 자발적인 입안으로 지역별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특정구역을 설치하여 지방 스스로가 특화된 개발전략을 추진함으로써, 각 지역 내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지역경제의 발전 및 자립화를 위한 새로운 모멘텀을 창출하기 위함임.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고유의 지리적·문화적·산업적 특성을 살려 다른 지역과 차별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가미된 지역특화사업과 재원조달 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정부에 특구지정을 신청토록 하고 있음.
- 중앙정부는 지역특구 지정을 통하여 이러한 지자체의 구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애물이 해소되도록 함. 이를 통해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규제에서

탈피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규제특례를 제공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이전에는 자율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웠던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임. 또한 민간사업자 및 지역주민 등의 참여를 적극 유인함으로써 특화사업의 범위를 확대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도 있음.

표 2-1. 지역특구제도와 기존 지역개발제도의 차이점

구 분	지역특구제도	기존 지역개발제도
목적	지역의 특색있는 발전을 통한 지방 경제 활성화(특색있는 지방 = 세계화)	국가경제 활성화 및 대외 경쟁력 강화
법적근거	지역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각 개별 지원법 * 경제자유구역법, 관광진흥법 등
추진주체	지방정부 중심 * 지방이 모든 사업내용을 구상하고, 국가는 규제특례 혜택만 부여	중앙정부 중심 * 국가가 대상지역·사업, 부동산 공급 등 주요사항을 결정
사업내용	제한 없음 * 교육·의료등 S/W적 지식산업도 가능	관계부처 소관분야 또는 토지이용 사업 * 건설·관광 등 H/W적 개발사업
재정지원	없음 * 다만, 재정지원을 배제하는 것은 아님	있음(국가의 예산 지원)
세제지원	없음	있음(예외 있음)
규제적용	지방이 규제혜택 선택(지역별 규제 차등) 규제 강화도 가능	동일한 내용의 규제혜택 부여 규제완화·폐지 유형
사업성패책임	지방정부	주로 중앙정부
규제 인허가	특구 신청시 특화사업관련 인허가를 함께 신청하여 원스톱으로 일괄처리 지원	인허가 관련 모든 기관으로부터 별도 인허가를 받아야 함

자료: 지식경제부(2011), p.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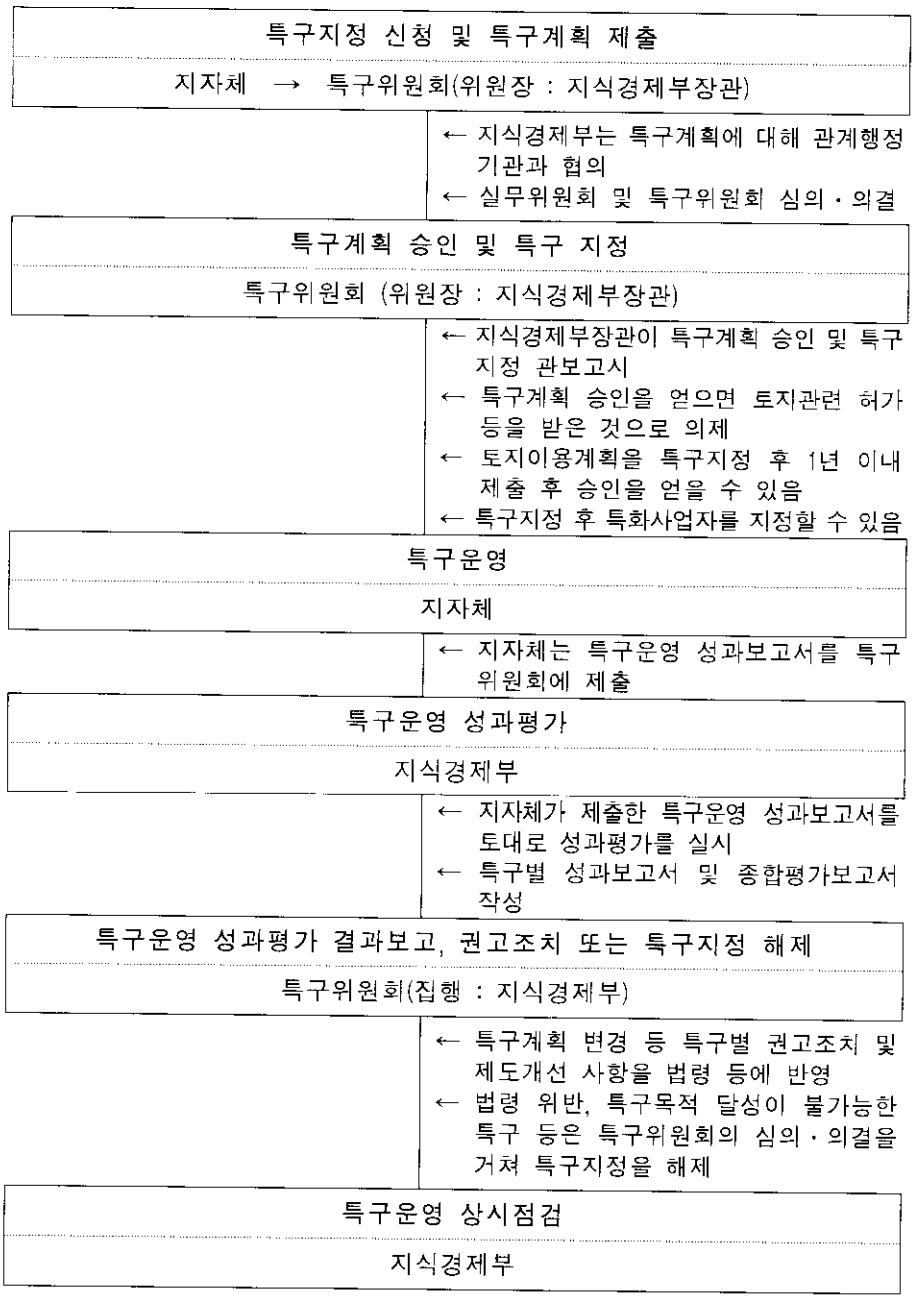
○ 지역특화발전 특구의 신청 및 지정 절차

- 지역특구의 추진주체는 시·군·구 등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원칙이며, 광역지방자치단체 또는 타 기초지방자치단체와의 공동추진도 가능함. 지역의 특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어떤 형태든지 지역특구로 추진이 가능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중장기 지역발전계획을 고려하여 지역발전의 파급효과가 크거나 선도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함.
- 지역특구 대상지역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내 어느 지역도 가능하며,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 관광지구 등에도 지정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1개 기초지방자치단체 내에서는 최대 3개까지 지역특구를 지정·운영할 수 있음.
- 지역특구로 지정되기 위한 첫 단계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의 중장기 발전전략에 따라 특화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특구계

획안을 수립하는 것임. 특구계획안에는 특화사업 세부내용 및 특화사업자, 대상지역, 규제특례 내용과 적용범위, 재원조달방안, 부동산가격 안정방안 및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내용 등이 포함됨.

- 지역특구 지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 및 실무위원회 검토, 지역특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고시함.

그림 2-9. 지역특화발전 특구의 지정 및 사후관리 흐름도



자료: 지식경제부(2011), p.23.

- 지역특구위원회(위원장: 지식경제부장관)는 지식경제부장관을 포함하여 관계부처 장관 12인[2], 민간위촉위원 8인으로[3]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한 특구계획안에 대해 90일 이내에 심의하여 특구지정 여부를 결정함.
- 지자체에서 신청한 특구계획은 실행가능성, 특화사업에 대한 국내외 수요전망, 해당 지역의 특화발전에의 부합 여부, 규제특례 적용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게 됨. 지역특구위원회 개최 직전에 지식경제부 소속의 위원장을 포함하여 13개 관계부처 국장급 공무원 등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에서 특구계획에 대해 사전 검토하여 지역특구위원회에 상정함.

○ 지역특화발전 특구의 사후관리

- 지역특구의 사후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지역특구 운영성과의 평가임. 특구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3월말까지 전년도 특구운영에 대한 성과보고서를 특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대상은 전년도 6월까지 지정된 특구임.
- 지식경제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성과보고서를 토대로 특구운영 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모범특구를 선정하여 성과포상금 지급 등 정부포상을 실시함.

○ 지역특화발전 특구의 운영 현황

- 지역특화발전 특구는 의료·복지, 관광·레포츠, 교육, 유통·물류, 산업·연구, 향토자원진흥 등 6가지 유형의 특구로 지정·운영되고 있음. 향토자원과 관광·레포츠 유형이 전체의 67%를 차지하고 있음.
- 2012년 10월 기준 119개 지자체에서 151개의 특구가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충북은 농업관련 특구로 괴산 청정고추산업특구, 보은 대추·한우특구, 영동 감고을감산업특구, 영동 포도·와인산업특구, 음성 다올찬친환경수박특구, 충주 사과특구, 증평 에듀팜특구 등 15개의 특구가 운영되고 있음.
- 지역특화발전 특구 가운데 유기농특구와 관련된 특구는 양평 친환경농업특구, 울진 로하스농업특구, 순천 친환경농업특구 등 3개소가 운영되고 있음.

---

2) 관계부처 장관은 지식경제부장관(위원장), 국토해양부장관(부위원장),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환경부장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등으로 구성됨.

3) 지역특구법 상에는 10인 이내로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는 8인으로 구성·운영 중이며, 박양호 국토연구원장(부위원장), 이동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허재완 중앙대교수, 이무하 서울대 농생명공학부 교수, 전수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윤형로 연세대 교수, 최운실 평생교육진흥원장, 남상만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회장이 활동 중임.

4.2. 유기농특구 조성의 관계 법령

○ 유기농특구와 유기농푸드밸리 조성의 관계 법령

- 유기농특구 조성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법률 제10331호, 2010. 12. 1 시행)을 기초로 지역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식경제부장관이 특구를 지정함.
- 유기농푸드밸리 조성은 식품클러스터의 유형으로 '식품산업진흥법'(법률 제10453호, 2011. 3. 9 시행) 제12조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원·육성을 근거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식품전문산업단지가 입지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지원함.
- 유기농푸드밸리 조성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법률 제10964호, 2012. 2. 5 시행) 성을 근거로 지식경제부장관은 산업의 집적(集積)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

○ 유기농특구와 유기농푸드밸리 조성 관련 정책사업

- 정부는 한미 FTA체결에 따른 국내보완대책(2007. 6)인 동시에 산업별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농업의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지원을 제시함. 특히 농업의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위해 연구기관·대학·식품기업이 집적된 세계적인 수준의 대단위 첨단 농식품 클러스터의 신규 조성을 추진하기로 하였음(2014년까지 2개소).
- 유기농특구와 유기농푸드밸리 조성 관련 정책적 지원으로 '친환경농업육성법'(법률 제10893호) 제19조 친환경농산물생산유통지원에 기초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친환경농산물 생산자, 생산자단체, 유통업자 및 인증기관에 대하여 시설 설치자금 등을 들 수 있음.
- 농식품부는 농업부문 대표적인 핵심 녹색산업 육성을 위해 '유기농식품산업 육성 방안'을 제시함(농림수산식품부, 2010). 유기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해 권역별 '유기식품 가공생산자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효율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제시함.
- 농림수산식품부의 '제3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011~2015)'에서 생산기반과 상품화-가공-마케팅을 결합하는 '유기농식품클러스터(가칭)' 조성을 제시함(농림수산식품부, 2011).

제 3 장

유기농특구 조성을 위한 대내외 여건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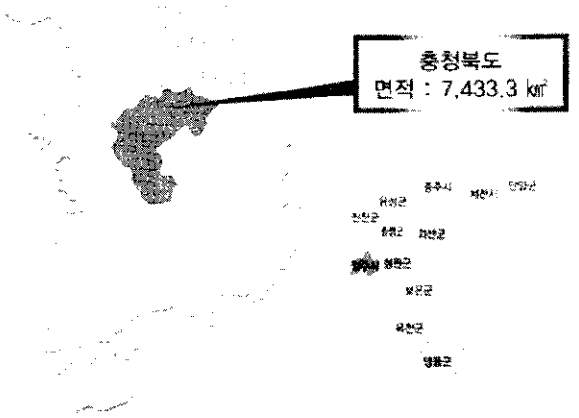
1. 특구권역 내 농업여건 진단

1.1. 충북농업의 특성

1.1.1. 지리적 환경 및 기후환경

○ 충북은 면적이 7,433.3㎢로 국토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음. 동쪽은 소백산맥의 주능선을 경계로 경상북도의 상주시, 문경시, 영주시와 접하고, 서쪽은 대전 광역시 대덕구, 충청남도 천안시, 연기군과 접하고 있으며 남쪽은 전라북도 무주군, 경상북도 김천시, 북쪽은 경기도 여주군, 이천시, 강원도 원주시, 영월군과 접하고 있음.

그림 3-1. 충청북도의 위치 및 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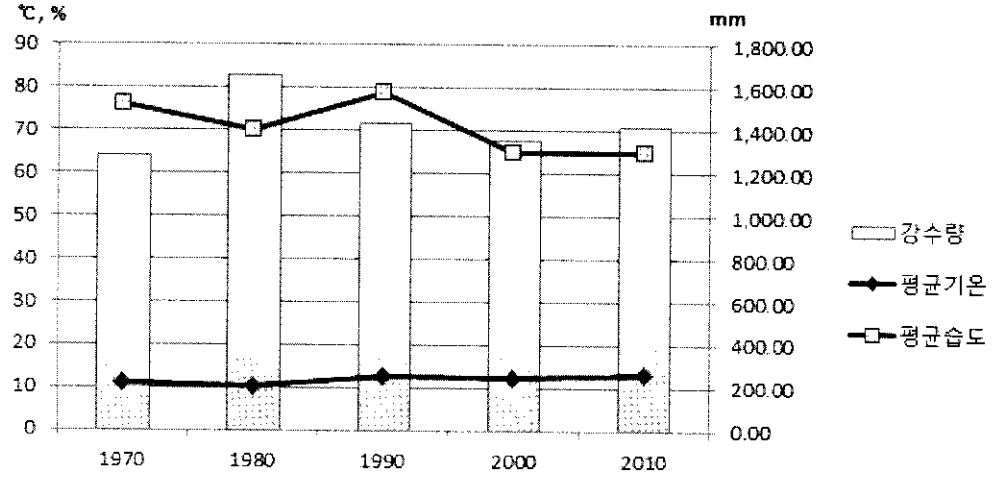
자료: 충청북도 통계정보시스템

○ 수도권과 남부지역의 교통 결절점에 위치하여, 농산물 및 농식품 물류의 중계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인구의 도시이동과 귀농의 중계역할과 완충역할을 수행함.

1.1.2. 기상 및 기후 환경

○ 충북은 2010년 기준 -15.1~35.7℃의 기온을 나타냈으며, 평균기온은 13℃, 평균습도는 65%, 강수량은 1,422.4mm로 나타났음.

그림 3-2. 충북의 기후조건



자료: 충청북도 통계정보시스템

표 3-1. 충북의 기후조건

구 분	기온(℃)			평균습도 (%)	강수량 (mm)
	최고	최저	평균		
1970	33.7	-20.0	11.2	76	1,283.7
1980	32.8	-18.9	10.5	70	1,659.7
1990	36.8	-19.3	12.9	79	1,437.7
2000	33.6	-13.5	12.3	65	1,357.6
2010	35.7	-15.1	13	65	1,42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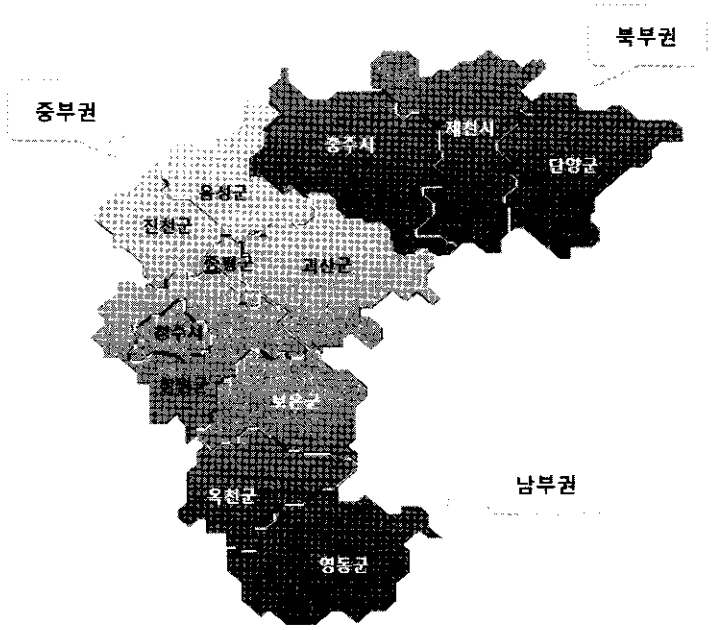
자료: 충청북도 통계정보시스템

○ 중부 내륙지방에 위치하고 있어 겨울에는 북서계절풍의 영향으로 한랭건조하고, 여름은 습윤한 북태평양에서 부는 남동계절풍으로 한서의 차이가 심한 대륙성 기후를 이룸. 그러나 전국적으로 볼 때 북한지방과 남한지방의 점이적인 기후로서 온화함.

1.1.3. 지역구분

○ 충북지역은 북부권, 중부권, 남부권 등 세 권역으로 구분됨.
- 북부권은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이 포함되며, 중부권은 청주시, 음성군, 진천군, 괴산군, 증평군, 청원군이 포함되고, 남부권은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이 포함됨.

그림 3-3. 충청북도의 지역구분



1.1.4. 인구 및 농가인구

○ 충북의 인구는 1990년대까지 감소추세를 보이다 2000년 이후 증가세로 돌아섰음. 1990년 약 1,390천명이었던 인구는 2011년 약 1,589천명으로 14.3% 증가하였음. 세대수는 같은 기간 약 354천호에서 약 627천호로 77%나 증가하였음. 이로 인하여 세대당인구가 3.9명에서 2.49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인구밀도는 1990년대까지 줄어들었고, 이후 인구증가에 따라 인구밀도도 높아졌음. 1990년 km^2당 187명에서 2011년 213.72명으로 14.3% 증가하였음.

표 3-2. 충북의 인구 및 인구밀도 변화 추이

단위: 호, 명, %

구분	세대수	인 구			성비 (남/여)	인구밀도 (명/Km²)	세대당 인구
		계	남	여			
1970	262,183	1,453,899	726,505	727,394	99.9	196	5.50
1980	291,050	1,424,083	724,703	699,380	103.6	192	4.90
1990	354,193	1,389,686	697,057	692,629	100.6	187	3.90
2000	491,781	1,504,722	756,843	747,879	101.2	202	3.10
2010	617,431	1,573,981	796,002	777,979	102.3	211.75	2.50
2011	627,006	1,588,633	803,385	785,248	102.3	213.72	2.49
전국 (2011)	20,033,142	51,716,745	25.961,416	25,755,329	100.8	516.02	2.53

자료: 충청북도 통계정보시스템

○ 농가수는 1970년 173,751호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0년에는 79,963호로 40년간 54.0% 감소하였음. 2011년에는 80,185호로 약간 증가하였음.

표 3-3. 충북의 농가 및 농가인구 변화 추이

단위: 호, 명, %

구 분	농가수	농가인구				농가당 인구
		계	남	여	인구대비(%)	
1970	173,751	1,027,231	515,540	511,691	70.7	5.9
1980	146,787	744,656	379,596	365,060	52.3	5.1
1990	115,640	433,051	215,923	217,128	31.2	3.7
2000	92,132	277,534	137,815	139,719	18.5	3.0
2010	79,963	211,522	105,235	106,287	13.4	2.6
2011	80,185	207,174	102,838	104,337	13.3	2.6
전국 (2011)	1,163,209	2,962,113	1,455,777	1,506,336	5.8	0.8

자료: 충청북도 통계정보시스템

○ 농가인구는 1970년 1,027,231명에서 2011년 207,174명으로 약 79.8% 감소하였음. 농가수와 농가인구를 비교해 볼 때, 농가인구의 감소폭이 훨씬 큰 것을 볼 수 있는데, 농가당 인구가 1970년 5.9명에서 2011년 2.6명으로 약 55.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농가인구의 남녀구성비는 1980년대까지 남성이 여성보다 많았으나 1990년대 이후에는 여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음.

1.1.5. 경지면적

○ 충청북도의 경지면적은 1970년 149백만ha에서 1980년에 171백만ha로 늘었다가 그 이후에는 1990년 152백만ha, 2000년 134백만ha, 2010년 116백만ha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1년 현재 115백만ha로 약 22.6% 감소하였음.

- 논은 1970년 74백만ha에서 1980년에 84백만ha로 늘었다가 그 이후에는 1990년 82백만ha, 2000년 64백만ha, 2010년 50백만ha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1년 49백만ha로 나타났음.

그림 3-4. 충북의 경지면적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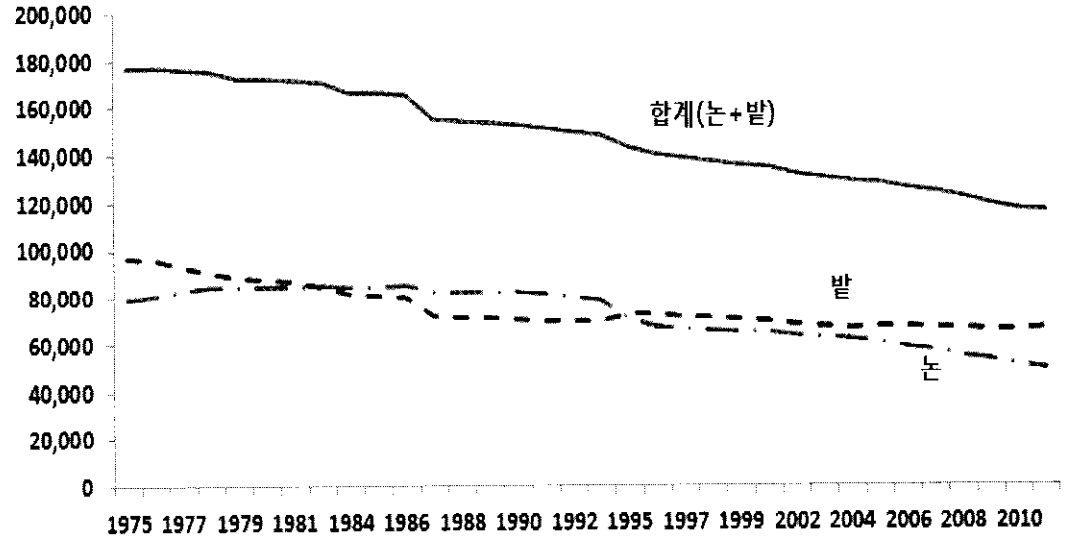


표 3-4. 충북의 경지면적 변화 추이

단위: 천ha, ha, %

구 분	경지면적 (천ha)			가구당 경지면적 (ha)				
	계	논 (구성비)	밭 (구성비)	계	논		밭	
1970	149,707	74,349 (36.3)	95,358 (63.7)	0.98	0.43	(43.9)	0.55	(56.1)
1980	171,987	84,455 (49.1)	87,532 (50.9)	1.17	0.57	(48.7)	0.60	(51.3)
1990	152,655	82,138 (53.8)	70,517 (46.2)	1.30	0.70	(53.8)	0.60	(46.2)
2000	134,587	64,905 (48.2)	69,682 (51.8)	1.45	0.70	(48.3)	0.75	(51.7)
2010	116,973	50,999 (43.6)	65,974 (56.4)	1.46	0.64	(43.8)	0.83	(56.8)
2011	115,821	49,222 (42.5)	66,599 (57.5)	1.44	0.61	(42.4)	0.83	(57.6)
전국 (2011)	1,698,040	959,914 (56.5)	738,126 (43.5)	1.46	0.83	(56.8)	0.63	(43.2)

자료: 충청북도 통계정보시스템

- 밭은 1970년 95백만ha에서 1980년에 87백만ha, 1990년 70백만ha, 2000년 69백만ha, 2010년 65백만ha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2011년 현재 66백만ha로 나타났음.

○ 경지구성별로는 논의 감소폭보다 밭의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나 논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다소 증가하였음.

- 전국적으로는 논의 비중이 56.5%로 밭 43.5%에 비해 높으나, 충북의 경우는 밭의 비중이 57.5%로 논 42.5%보다 높았음.
- 충북지역은 1983년 논 면적이 밭 면적을 추월하였다가 1993년 이후 밭 면적이 다시 논 면적을 앞섰음.

○ 가구당 경지면적을 보면 1970년 0.98ha에서 1990년 1.30ha, 2000년 1.45ha, 2010년 1.46ha, 2011년 1.44ha로 전국평균 1.46ha와 유사한 수준이며, 2000년 이후 거의 정체상태에 있음. 가구당 경지면적이 과거에 증세추세를 보인 것은 경지면적 감소율 22.6%가 농가 수 감소율 54.0% 보다 작은 것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음.

1.2. 괴산군의 농업의 특성

1.2.1. 지리적 환경

○ 괴산군은 국토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고, 또한 충북의 중부권에 위하며, 동쪽으로는 조령산을 경계로 충북 문경시와 서쪽으로는 증평군, 음성군 및 청원군과 접하고 있음.

○ 괴산군 동남부지역은 표고가 300~500m 정도로 높고, 북부지역은 표고가 100~200m 정도로 대체로 낮은 구릉지와 하천으로 이루어져 있음.

표 3-5. 괴산군의 표고분석

단위: ㎢, %

구 분	계	100m 이하	100~200m	200~300m	300~400m	400m 이상
면 적	842.229	16.002	228.224	240.878	172.657	184.448
구성비	100.0	1.9	27.1	28.6	20.5	21.9

자료: 2025 괴산군 기본계획

○ 경사 20% 미만 지역이 전체 면적의 29.4%에 불과한 전형적인 내륙산악 지형의 특성을 보이고 있어, 개발가능지 한정에 따른 토지의 집약적·효율적 이용이 요구됨.

표 3-6. 괴산군의 경사분석

단위: ㎢, %

구 분	계	10°이하	10~20°	20~30°	30~40°	40°이상
면 적	842.229	172.657	74.959	105.278	135.599	353.739
구성비	100.0	20.5	8.9	12.5	16.1	42.0

자료: 2025 괴산군 기본계획

○ 주요하천으로는 남한강수계의 달천(괴강)과 금강수계의 보강천을 중심으로 신월천, 화양천, 압항천 등의 준용하천이 있으며, 총 24개소에 총연장은 242.8km임.

○ 괴산군 중앙을 흐르는 달천은 신월천, 화양천, 압항천 등의 하천과 합류하여 남한강으로 유입되어 충북 및 수도권지역의 광역상수원으로 이용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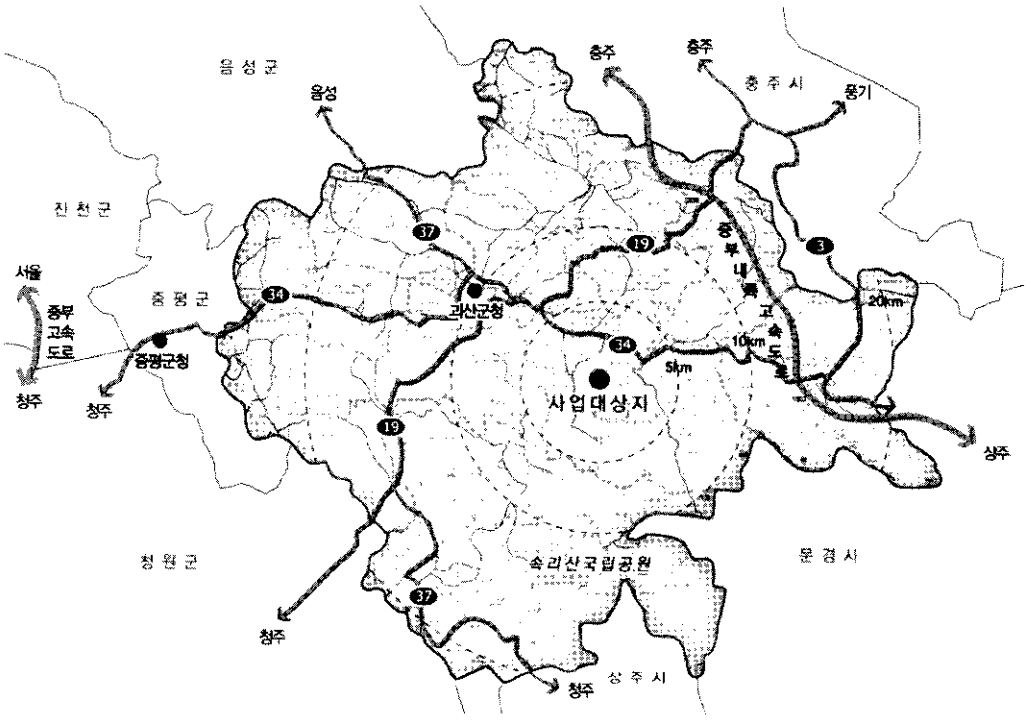
표 3-7. 괴산군의 하천현황

단위: 개소, km, %

하천수	총연장	요개수			
		합계	기개수	미개수	개수율
24	242.8	409.2	332.1	77.1	81.2

자료: 괴산군 통계연보, 2010

그림 3-5. 괴산군 유기농푸드밸리 조성지역 위치도



○ 유기농푸드밸리 조성지역은 충청북도 괴산군 칠성면 율지리 산 15번지 일원에 위치함. 유기농푸드밸리 사업대상지는 괴산군 행정구역상 남동부에 위치하며, 괴산군청에서 동측으로 국도 34호선을 따라 약 12km 지점에 입지하고 있음.

○ 사업대상지 북측으로 국도 34호선이 지나가고, 동측으로 지방도 517호선과 북서측으로 군도 20호선이 지나가고 있음.

1.2.2. 기상 및 기후 환경

○ 괴산군은 대륙성 기후대에 속하여 여름에는 고온다습하고, 겨울에는 한냉건조하여 한서의 차가 심함.

○ 중부내륙의 지역으로 인근지역과의 큰 차이는 없으나, 사계절이 뚜렷하며, 2009년 연평균 기온은 11.3℃이며, 연평균 강수량은 1,228.0㎜이며, 7월~9월에 집중적(300㎜ 이상)으로 내림.

표 3-8. 괴산군의 기상개황

단위: ℃, ㎜, %

연도	기온			강수량	상대습도 (평균)
	평균	최고	최저		
2002	10.4	16.4	5.1	1,395.1	68.0
2003	10.5	16.3	5.6	1,669.0	69.4
2004	11.8	18.4	6.2	1,428.4	65.7
2005	10.8	16.7	5.2	1,402.9	63.9
2006	11.8	17.9	6.6	1,271.3	66.0
2007	11.7	18.2	6.6	1,412.4	66.9
2008	11.4	16.1	6.4	818.0	63.6
2009	11.3	17.9	6.0	1,228.0	63.7

자료: 괴산군 통계연보, 2010

1.2.3. 교통 환경

○ 국토공간상 한반도의 중심부에 위치한 괴산군은 동쪽으로 소백산맥을 경계로 제천시, 문경시 및 상주시와 접하고, 서쪽으로 진천군, 증평군 및 청원군, 남쪽으로 보은군, 북쪽으로 음성군 및 충주시와 접하고 있음.

○ 중부내륙고속도로가 개통되어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양호하며, 국도 19, 34, 37호선이 지역을 연결하고 있음.

- 충청북도의 중북부에 자리 잡고 있는 내륙도시로 서울권 1시간, 대전권 1시간, 충주권 20분, 청주권 30분에 위치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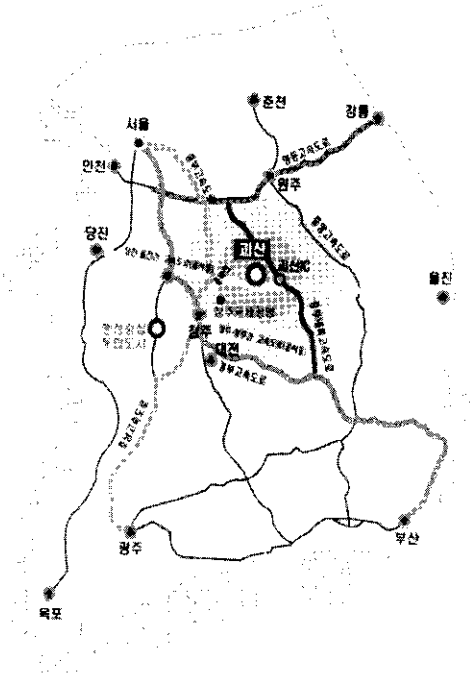
- 행정중심복합도시(50㎞), 충북혁신도시(30㎞), 충주기업도시(25㎞)의 배후 권역이며 광역 교통망이 계속 확충되고 있음.

표 3-9. 괴산군의 지리적 위치

방 위	지 명	극 점
동 단	연풍면 분지리 동단	동경 128°04′30″
서 단	청안면 청용리 서단	동경 127°37′20″
남 단	청천면 사담리 남단	북위 36°35′55″
북 단	불정면 삼방리 북단	북위 36°56′40″

자료: 괴산통계연보, 2010

그림 3-6. 괴산군의 교통입지 설명도



○ 괴산군의 신규 4차선 도로공사인 '괴산-연풍 1공구 도로건설공사'를 통해 중부권의 물동량 중심축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

- 위치 충북 괴산군 괴산읍 대덕리 ~ 괴산군 칠성면 태성리
- 사업규모 연장 L = 10.5km, 폭 B = 20.0m(4차로)
- 사업기간 2004. 10. 01 ~ 2013. 01. 07 (96개월)
- 선형개량 및 4차선 확포장으로 중부내륙지방의 균형적인 발전과 물류의 원활

한소통과 함께 이동성과 접근성을 제고한 지역간선도로로서의 기능을 확보하여 이용자들에게 최고의 교통편의를 제공

- 당진-천안-괴산-영주-영덕으로 이어지는 광역개발축을 형성하여 지역개발효과 확대파급

1.2.4. 인문환경

○ 인구 및 가구

- 괴산군의 2009년 인구는 37,273명이며 16,908세대가 거주 중임. 유기농푸드밸리 조성 사업 대상지가 속한 칠성면의 인구추이를 살펴보면 2009년 2,814명이며 1,282세대가 거주 중임. 2002년 3,196명과 비교하여 비교적 감소하는 추이를 나타내고 있음.

표 3-10. 인구 및 가구

구분	괴산군			칠성면		
	인구(명)	세대 (세대)	세대당 인구 (명/세대)	인구 (명)	세대 (세대)	세대당 인구 (명/세대)
2002	42,009	15,632	2.7	3,196	1,203	2.7
2003	40,722	15,720	2.6	3,069	1,194	2.6
2004	39,886	15,935	2.5	3,017	1,209	2.5
2005	38,916	15,976	2.4	2,987	1,225	2.4
2006	37,952	16,093	2.3	2,863	1,227	2.3
2007	37,308	16,206	2.3	2,871	1,253	2.3
2008	37,066	16,433	2.3	2,784	1,247	2.2
2009	37,273	16,908	2.2	2,814	1,282	2.2

자료: 괴산군 통계연보, 2010

○ 토지이용현황

- 괴산군 토지 총면적은 842.107㎢로 임야가 74.5%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지는 1.3%에 불과한 실정임. 전, 답 등 농경지가 전체 면적의 16.6%를 차지하고 있음. 또한 산지가 많고 평야가 적어 농산물 생산이 타 지역에 비해 풍부하지 못하나, 수려한 강과 산 등 청정하게 보존된 자연자원이 풍부함.

표 3-11. 지목별 토지이용현황

단위: ㎢, %

구 분	계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대지	도로	하천	구거	기타
면적	842.1	75.6	62.7	2.0	3.8	627.3	10.7	18.6	17.7	13.8	9.9
구성비	100.0	9.0	7.4	0.2	0.5	74.5	1.3	2.2	2.1	1.6	1.2

자료: 괴산군 통계연보, 2010

○ 지역경제현황

- 괴산군의 2009년 15세 이상 인구는 총 1,219천명임. 경제활동인구와 농가인구를 보면 경제활동인구는 739천명, 비경제활동인구는 480천명으로 나타남. 경제활동참가율은 60.6%, 실업률은 2.1%를 나타내고 있으며 연도별 경제활동인구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표 3-12. 괴산군 경제활동 인구 현황(2009년 기준)

단위: 천명, %

구분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취업자	실업자	계	가사 육아	통학	기타	계		
남자	597	416	10	426	4	72	95	171	71.3	2.4
여자	621	308	5	313	203	56	50	309	50.3	1.6
계	1,219	723	15	739	207	128	145	480	60.6	2.1

자료: 괴산군 통계연보, 2010

- 괴산군의 농가는 6,740가구이며 농가인구는 16,178명으로 감소 추세이며 전체 인구의 약 43.4%를 차지하고 있음.

표 3-13. 괴산군 농가수 및 농가인구 현황(2009년 기준)

단위: 가구, 명, %

구분	세대수	인구수	농가	농가인구	농가/세대수	농가인구/인구수
괴산	16,908	37,273	6,740	16,178	39.9	43.4
충북	599,204	1,550,126	84,257	223,580	14.5	14.4

자료: 충북 통계연보, 2010, 괴산군 통계연보, 2010.

표 3-14. 연도별 농가 및 농가인구

단위: 호, 명

구분	농가수	농가인구		
		계	남	여
2004	9,944	24,495	12,092	12,403
2006	6,843	16,883	8,191	8,692
2008	6,715	16,046	7,807	8,240
2009	6,740	16,178	8,066	8,112

자료: 괴산군 통계연보, 2010.

- 괴산군 사업체 현황을 보면 2009년 현재 괴산군 총 사업체 수는 2,406개이며 총 종사자수는 10,424명으로 조사됨.

표 3-15. 괴산군 사업체 및 종사자수 현황

사업체구분	사업체수	종사자수
농업,임업 및 어업	10	120
광업	5	87
제조업	254	2,964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3	27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12	91
건설업	91	628
도매 및 소매업	526	1,060
운수업	160	282
숙박 및 음식점업	622	1,359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17	103
금융 및 보험업	38	292
부동산업 및 임대업	44	7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7	104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	6	23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36	1,045
교육 서비스업	78	789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84	720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49	91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344	569
합계	2,406	10,424

자료: 괴산군 통계연보, 2010

2. 특구권역 내 친환경농식품산업 여건

2.1. 충북과 괴산군의 친환경농업 추진 실태

○ 전국의 친환경농산물 인증현황은 최근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기는 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크게 증가하였으며, 충북지역 역시 인증 초기보다 크게 증가하였음. 충북지역은 무농약농산물이나 저농약농산물에 비하여 유기농산물의 전국 대비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3-16. 충북 친환경인증농산물 전국 대비 현황(2010년)

		인증구분	농가수(호)	면적(ha)	출하량(톤)
전국 인증현황		유기농산물	10,790	15,517	122,243
		무농약농산물	83,136	94,533	1,039,576
		저농약농산물	89,992	83,956	1,053,702
		계	183,918	194,006	2,215,521
충북	인증현황	유기농산물	822	870	12,805
		무농약농산물	2,517	2,114	36,007
		저농약농산물	2,529	2,297	33,794
		계	5,868	5,281	82,606
	전국대비 비중 (%)	유기농산물	7.6	5.6	10.5
		무농약농산물	3.0	2.2	3.5
		저농약농산물	2.8	2.7	3.2
		계	3.2	2.7	3.7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충북지역의 친환경농산물과 유기농산물 생산 및 유통 실태 진단

- 제2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2006~2010)에 따라 충북의 친환경농업 재배면적(2009년)은 734ha로, 유기농산물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특히 2010년도에 친환경농업분야 16개 사업에 37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친환경인증면적 확대 및 친환경농산물 유통·소비기반 확충을 이뤄 친환경농업평가 대상에서 소비·유통부문 청원농업협동조합 등 5개 부문 중 3개 부문을 수상함.
- 괴산군은 2010년 현재 청원군에 이어 충청북도에서 두 번째로 유기농산물을 많이 생산(151농가, 157ha)하고 있음.

표 3-17. 충북 유기농산물 생산 현황

단위: 호, ha, 두

시군구	농산물								축산물					
	유기		무농약		저농약		계		유기		무항생제		계	
	농가수	재배면적	농가수	재배면적	농가수	재배면적	농가수	재배면적	농가수	사육두수	농가수	사육두수	농가수	사육두수
충북	822	870	2,517	2,114	2,529	2,297	5,868	5,280	5	15,614	519	644,4694	524	6,460,308
괴산군	**151**	**157**	**338**	**241**	**232**	**187**	**721**	**585**	**1**	**1,800**	**116**	**446,575**	**117**	**448,375**
단양군	36	54	199	126	131	83	366	263	3	13,800	15	202,596	18	216,396
보은군	15	17	193	189	173	171	381	377	0	0	69	659,042	69	659,042
영동군	17	52	40	27	416	321	473	400	0	0	4	148,400	4	148,400
옥천군	25	15	369	246	345	181	739	442	0	0	22	612,673	22	612,673
음성군	15	19	51	58	298	351	364	427	0	0	50	1,448,898	50	1,448,898
제천시	11	30	161	142	82	120	254	292	0	0	54	128,589	54	128,589
증평군	63	49	11	6	1	2	75	56	0	0	4	36,810	4	36,810
진천군	80	68	368	402	49	58	497	529	0	0	23	419,097	23	419,097
청원군	335	323	408	333	348	182	1,091	838	0	0	75	1,618,748	75	1,618,748
청주 상당구	4	2	5	4	16	8	25	14	0	0	4	941	4	941
청주 흥덕구	32	26	26	18	1	4	59	48	0	0	1	54	1	54
충주시	38	57	348	323	437	630	823	1,010	1	14	82	722,271	83	722,285

자료: 통계청. 2010. 친환경농산물 생산 추이, 통계청 내부자료 http://www.kosis.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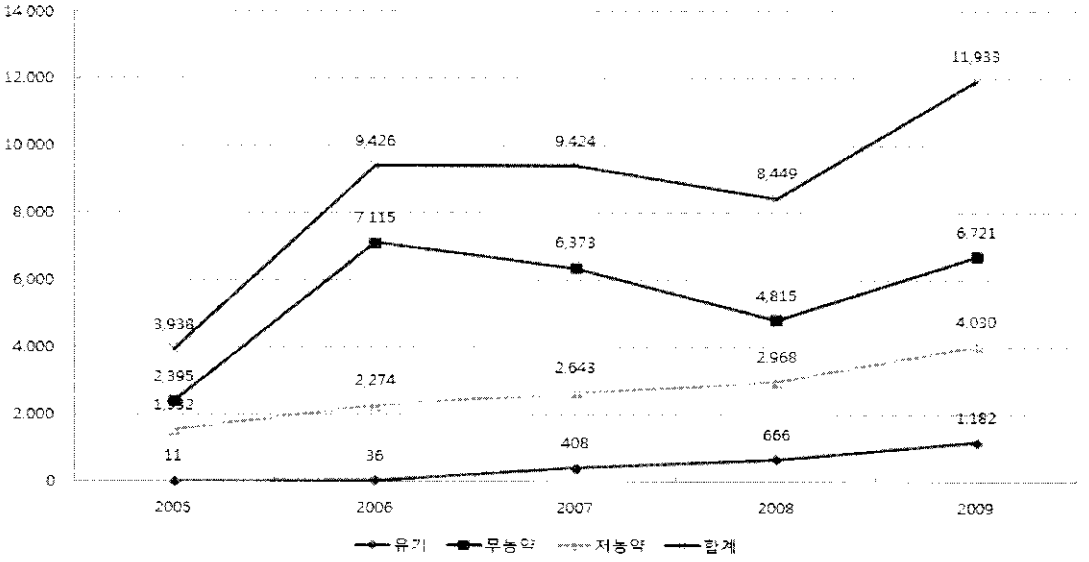
○ 괴산군의 친환경 농산물 인증실적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음

- 2010년 기준 인증유형별 재배면적은 유기농산물 157ha, 무농약 241ha, 저농약 187ha로 비율로 보면 유기 27%, 무농약 41%, 저농약 32%로 유기농산물 인증면적이 충청북도 비중 18%임
- 괴산군의 총 경지면적 12,631ha에 대한 상대면적으로는 무농약 이상 3.15%, 유기농이 1.24%를 차지하고 있음

○ 괴산군 친환경농산물 인증량은 2005년 3,938건에서 2009년 11,933건으로 크게 증가하였음. 이는 괴산지역 유기농가수의 증가에 따른 생산면적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이러한 성장세는 유기농푸드밸리와 연계하여 괴산지역 유기농업 활성화와 유기농푸드밸리 성장이라는 괴산군 지역내총생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그림 3-7. 괴산군 친환경농산물 인증량

단위: 건, ha, 톤



년도	구분	건수	농가수	면적	인증량
2005	유기	1	1	3	11
	무농약	26	75	51	2,395
	저농약	43	59	83	1,532
	합계	**70**	**135**	**136**	**3,938**
2006	유기	3	5	4	36
	무농약	32	115	90	7,115
	저농약	58	136	135	2,274
	합계	**93**	**256**	**229**	**9,426**
2007	유기	10	13	12	408
	무농약	33	139	118	6,373
	저농약	50	286	175	2,643
	합계	**93**	**438**	**305**	**9,424**
2008	유기	22	123	96	666
	무농약	49	261	195	4,815
	저농약	44	383	216	2,968
	합계	**115**	**767**	**507**	**8,449**
2009	유기	18	110	105	1,182
	무농약	67	341	233	6,721
	저농약	70	351	237	4,030
	합계	**155**	**802**	**575**	**11,933**

주: 전환기유기는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에 따라 '07.3.29.부터 유기로 통합
자료: 괴산군 통계연보, 2010.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표 3-18. 2010년 괴산군의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

단위: ha

작목명	계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	
	농가수	면적	농가수	면적	농가수	면적	농가수	면적
충북(A)	5,868	5,280	822	869	2,517	2,115	2,529	2,296
괴산(B)	721	585	151	157	338	241	232	187
B/A×100	12	11	18	18	13	11	9	8

자료: 괴산군 친환경농업 추진성과 및 육성계획, 2011.

○ 괴산군은 마을의 토양, 기후, 재배기술 등의 환경적, 입지적 특성을 고려한 특화작목을 선택하여 친환경 핵심작목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있어, 앞으로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측됨.

- 감물면, 칠성면, 불정면 등은 무농약 이상 비율이 괴산군 평균 3.15%보다 매우 높은 우수 마을임. 이들 지역은 무농약 이상 쌀, 감자, 잡곡 등 친환경 집단재배단지로 집중 육성하고 있음.

표 3-19. 괴산군 읍·면별 친환경 농업 실천 현황

행정구역명	대표 작물	친환경 농업 실천 내용
괴산읍	청결고추, 절임배추	검승리 친환경농업단지 활동
불정면	사과, 배, 청결고추	불정농협 친환경농업, 흙살림 토종연구소
감물면	감자, 청결고추	흙사랑 영농조합법인 활동
장연면	대학찰옥수수, 잡곡, 사과	친환경 과수 생산
연풍면	사과, 청결고추	친환경 한우사육 단지
칠성면	절임배추, 자연송이, 오이	친환경잡곡 생산단지화 및 유통 가공식품 클러스터 단지
청천면	방울토마토, 자연송이, 청결고추	솔뫼공동체 친환경생산 활동 한살림 마을
청안면	청결고추, 수박	자연농업 실천
사리면	청결고추, 느타리버섯	유기농 쌀 생산
소수면	절임배추, 고추	눈비산마을 유정란 및 두레식품 축산가공

2.2. 충북의 유기농식품산업 관련업체 진단

○ 전국 유기가공식품 인증 현황은 서울·인천·경기 54개, 광주·전남 39개, 대전·충남 27개, 충북 19개로 전국 4위를 차지하고 있음.

- 충북의 중부권에 14개, 북부권에 5개로 중부권에 대부분이 있음.

표 3-20. 충북지역 유기가공식품 인증 현황(2011년 9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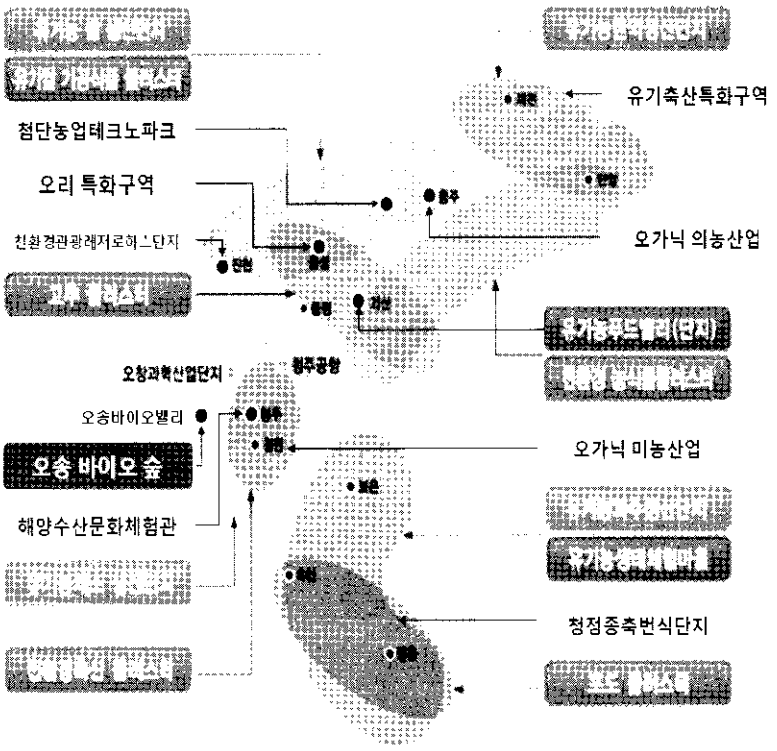
권역	시군	업체수	업체명
중부권	괴산군	2	괴산잡곡, 피케이크린푸두
	진천군	4	(주)바른길, (주)참선진종합식품, (주)삼영시스템, (주)건우에프피
	음성군	4	(주)웰팜, 풀무원, (주)오뚜기, 초록찬(주)
	청원군	3	(주)일신웰스, (주)렉스진바이오텍, (주)코쿠엔스
	증평군	2	(주)거송종합식품, 풀무원건강생활(주)
북부권	충주시	3	농업회사법인(주)천보내츄럴푸드, (주)금강B&F, 두레촌
	단양군	1	장익는마을
	제천시	1	(주)태경식품제천공장
계		19	

○ 충북지역의 유기농산물 생산·가공 등 유관기관간의 클러스터(Cluster) 및 네트워크 진단

- 과학기술 연구활동 조사보고서(2000)에 의하면, 충북의 총 연구개발비는 전국 대비 3.5%, 연구인력은 3.0%, 연구개발 조직 수는 4.0%이며, 이는 수도권과 대전권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수치로서 충북의 연구기반과 인적역량이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임.
- 충북의 벤처기업은 2002년 10월 기준으로 225개, 전체의 2.4%의 비중으로 벤처기업의 생성이 비교적 활발하고 성장 기회와 토양이 상당히 갖추어져 있으며, 벤처기업의 부가가치 생산액 등 경제활동 비중이 높음.

○ 충북지역에 추진되고 있는 유기농 쌀, 유기축산, 유기농 채소, 유기농 과수, 유기농 한약생산단지 등 유기생산단지와 고추, 포도, 축산 등 농축산 클러스터와 인접해 있어, 유기농업과 유기식품산업의 상생에 매우 유리한 지리적 입지에 위치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그림 3-8. 충북 생명농업 발전계획



○ 유기농산물 생산과 가공 등 유관기관 간의 클러스터 및 네트워크 진단

- 충북은 참여정부 출범 이후 지역발전의 목표를「바이오토피아(Bio-topia) 충북」구현에 중심을 두고 IT · BT산업에 관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임.
- 충북지역은 BT(오송생명과학단지), IT(오창과학산업단지), 내륙지방 최대의 물류센터 설치 등 첨단산업단지가 조성되는 지역임.
- 과학기술 및 첨단산업의 R&D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대덕연구단지와 인접하여 있으므로 고부가가치 신산업 기술지역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3. 친환경·유기농업단지 조성 현황

3.1.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은 농업환경을 개선하고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시·군 수계 단위로 경종과 축산을 연계하여 광역 단위로 자원순환형의 친환경농업단지를 조성

- 광역단지조성 사업은 600ha 이상의 경지에서 친환경농업의 실천이 가능하며 사업 효과를 최대화시킬 수 있는 대규모 단지 조성에 개소당 60~100억 원을 지원함.

○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은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9조(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지원)와 충청북도는 친환경농업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지원)조의 법적근거 하에 2007년 이후 옥천군, 진천군, 증평군, 괴산군, 충주, 제천 등 6개소를 추진함.

표 3-21. 충청북도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현황

단지명	사업권역	사업주체	사업기간 (년)	사업비 (억 원)	참여농가 (호)	대상면적 (ha)
옥천군	청성면 외 2개 읍면 (옥천, 동이)	옥천광역친환경 농업영농조합법인	2007~'08 (2년)	100	1,193	1,282
진천군	문백면 외 4개 읍면 (진천, 초평, 백곡, 이월)	진천광역친환경 농업(주)	2009~'11 (3년)	100	980	1,335
증평군	도안면 외 1개 읍면 (증평)	증평광역친환경영 농조합법인	2010~'12 (3년)	100	1,653	2,153
괴산군	불정면 외 3개읍면 (괴산, 감물, 칠성)	불정농업 협동조합	2010~'12 (3년)	100	1,172	4,204
충주시	충주시 3개권역 (1읍, 9개면, 1개동)	충주친환경유기영 농업조합법인	2012~'14 (3년)	100	1,000	1,300
제천시	제천시 일원 (1읍, 3개면, 5개동)	제천친환경 영농조합법인	2012~'14 (3년)	93	780	900

자료: 충청북도 내부자료

3.2. 유기농업단지 조성

○ 유기농업단지 조성사업은 충북도 자체사업으로 무농약 인증 이상의 친환경농업 재배여건을 갖춘 20ha 이상 집단화된 지역에서 유기농업을 추진하는 작목반과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개소당 2억 4천만 원을 지원함

- 작목반과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원액은 도비 24%, 시군비 56%, 자부담 20%로 구성됨.
- 유기농업 실천에 필요한 생산기자재 및 시설·장비 지원 및 유통에 필요한 시설장비 지원함.

○ 유기농업단지는 2011년에 시작되어 2012년까지 옥천군, 진천군, 괴산군 등 3개 지역에 단지가 조성되었음. 2012년 충주, 보은, 증평 등 3개 단지가 추가되어 6개 단지가 조성됨.

3.3. 녹색농업단지 조성

○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를 육성하여 저탄소·녹색성장의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친환경 특화품목을 육성하여 대외 경쟁력 강화하기 위해 녹색농업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함.

○ 녹색농업단지 조성사업의 지원대상은 친환경농업 재배여건을 갖춘 10호 · 10ha 이상 집단화된 지역의 농업인, 생산자단체 등이며, 댐 규제지역 친환경농업 실천 작목반을 우선적으로 지원함.

- 녹색농업단지의 지원 내용으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 유통 시설장비 지원이 있음.
- 녹색농업단지의 지원 단가를 보면 개소당 50백만 원에서 150백만 원까지 차등적으로 지원함.
- 녹색농업단지의 지원 조건을 보면 지원액이 도비 24%, 시 · 군비 56%, 자담 20% 등으로 구성됨.

○ 녹색농업단지는 2006년에서 2011년까지 91개소에 12,292백만 원을 지원하였음. 2012년에는 12개소에 1,200백만 원을 지원할 계획임.

4. 유기식품산업의 동향과 전망

4.1. 유기식품산업의 시장구조

○ 우리나라 2008년도 국내 유기식품 시장규모는 매출액 기준으로 4,043억 원에 달할 것으로 조사되었음<표 3-22>.

- 신선식품에서 국산은 1,564억 원으로 전체 유기식품의 38.7 %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입은 321억 원으로 전체의 7.9 %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가공식품에서는 국산원료를 사용한 것이 296억 원(7.3 %), 수입원료를 사용한 제품은 1,547억 원(38.3 %), 수입 완제품은 315억 원(7.8 %)인 것으로 나타났음.

표 3-22. 국내 유기식품 시장규모(2008년)

단위: 억 원, %

구 분	판매액	구성비	
유기식품 계	**4,043**	**100.0**	-
신선식품	**1,885**	**46.6**	**100.0**
국산	1,564	38.7	83.0
수입	321	7.9	17.0
가공식품	**2,158**	**53.4**	**100.0**
국산	1,843	45.6	85.4
(국산원료)	296	7.3	13.7
(수입원료)	1,547	38.3	71.7
수입	315	7.8	14.6

자료: 한국식품연구원(2008).

4.2. 유기식품의 생산현황

4.2.1. 유기농산물 생산현황

○ 우리나라 유기농산물 국내생산 인증실적을 살펴보면 2000~'10년에 농가수는 연평균 50.8%, 면적은 59.1%, 출하량은 38.1% 각각 증가하였음.

- 2000년대 전반(2000~'05년)에 인증면적 증가율은 97.3%의 급증세를 보였고, 후반(2006~'10년)에는 21.0%의 증가율을 나타냄.

○ 2010년 유기농산물의 전체농산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농가수 0.9%, 면적 0.9%, 출하량 0.8%로 여전히 미미한 수준을 나타냄.

표 3-23. 연도별 유기농산물 인증실적 변화추이[1)]

단위: 호, ha, 톤, %

구 분	2000	2006	2007	2008	2009	2010	연평균 증감률	전체 비중[2)]
농가수(호)	353	7,167	7,507	8,460	9,403	10,790	50.8	0.9
면 적(ha)	296	8,559	9,729	12,033	13,343	15,517	59.1	0.9
출하량(톤)	6,538	95,405	107,179	114,649	108,810	122,243	38.1	0.8

주 1) 전환기유기농산물 인증실적은 유기농산물에 포함시켜 제시함.
2) 전체 비중은 2010년 우리나라 전체 농가수, 경지면적, 생산량 대비 비중임. 생산량은 식량, 채소, 과일, 유지 생산량 합계임.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2011).

○ 유기농산물 품목류별 출하량을 보면(2010년 기준) 곡류 2.9만 톤, 과실류 0.8만 톤, 채소류 5.8만 톤이며, 채소류가 전체의 47.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4.2.2. 유기가공식품 생산현황

○ 국내 유기가공식품 품질인증 건수는 2004년 38건에서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10년에는 258건으로 집계됨. 또한 품목수도 해마다 크게 증가하여 2010년에는 378개 품목이 인증을 받았음.

○ 유기가공식품 출하량이 2004년 1,340톤에서 2005년에 풀무원이 유기가공품 인증을 취소하면서 인증물량이 급격하게 줄어 2005년에는 235톤에 그침. 그러나 이후 다시 증가하여 2008년 1,748톤까지 증가하였음<표 3-24>.

표 3-24. 국내 유기가공품 품질인증 실적

단위: 건, 개, 톤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인증건수	38	99	194	187	231	199	258
품목수	-	-	-	100	125	250	378
출하량	1,340	235	1,103	1,893	1,748	-	-

주: 유기가공식품의 출하량은 2009년부터는 집계가 되지 않고 있으나 인증건수 및 품목수의 증가 따라 증가하였을 것으로 판단됨.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2011).

○ 2010년 유기가공식품의 총 인증실적은 인증 품목수는 378개, 제품수는 1,290개이었음. 품목별로 살펴보면 기타식품류가 96품목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류 71품목, 음료류 56품목, 식용유지류 20품목 등의 순이었음. 제품수가 가장 많은 품목은 기타식품류 395개, 다류 346개, 음료류 141개, 장류 78개, 식용유지류 52개 등의 순으로 나타남.

4.3. 유기식품의 수입현황

○ 유기농산물 수입은 친환경농업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물량이 수입되었으며, 2006년 7백 톤에서 2007년 9백 톤, 2008년 11천 톤, 2009년 10천 톤, 2010년 13천 톤으로 증가함.

○ 유기가공식품의 품목별 수입현황을 살펴보면 과채가공품이 3,294톤, 갈색설탕이 1,595톤, 과채페이스트 1,236톤, 강력밀가루 1,194톤, 곡류가공품 1,182톤 등으로 나타났음.

- 유기가공식품의 국가별 수입현황을 살펴보면 미국 4,070톤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중국 1,945톤, 호주 1,933톤, 브라질 1,438톤, 이탈리아 1,299톤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전체 식품수입 중 유기식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금액기준 1% 이하이며, 2008년까지 수입량이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2009년에는 감소하였음.

표 3-25. 최근 3년간 수입현황

단위: 건, 톤, 천달러

구분	수입식품			수입유기식품		
	건수	물량	금액	건수	물량	금액
2007	270,163	11,798,943	8,449,260	3,009(1.1%)	23,868(0.2%)	40,358(0.5%)
2008	254,809	11,731,829	9,860,939	3,844(1.5%)	25,350(0.2%)	56,604(0.6%)
2009	255,341	11,301,537	8,434,081	3,686(1.4%)	21,293(0.2%)	39,735(0.5%)

주: ( )는 전체 수입식품 중 유기가공식품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냄.

표 3-26. 국가별 유기농산물 수입인증 현황

단위: 톤

수입국	품 목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중 국	고추	6	13	10	13	-	4
	녹두	180	140	140	160	100	
	대두	5,798	2,458	3,327	1,760	340	20
	흑두	97	-	-	-	-	-
	들깨	13	84	53	23	-	-
	옥수수	792	955	1,399	2,000	922	-
	참깨	-	53	138	36	72	36
	해바라기씨	-	36	-	31	-	-
	소맥	-	180	-	-	-	300
	밀	183	-	400	-	300	-
	옥수수수염	-	-	-	10	-	-
	도토리	-	-	-		160	758
	사료작물	-	-	-	40	2,512	3,824
	바나나	-	-	-	-	-	1,000
미 국	머스타드 외	-	4	-	-	-	-
	새싹채소종자	-	11	-	-	-	-
	무씨	2	-	-	-	-	-
	알팔파씨	1	-	-	-	-	-
	케일 등	7	-	-	-	-	-
	브로컬리	6	-	-	-	-	-
	블루베리	-	-	-		35	-
	사료작물	-	-	-	800	180	737
호 주	대 두	-	21	-			32
	쇠고기	-	-	195	152	101	26
	밀	-	-	-	299	784	-
키르키즈스탄	밀	628	1,235	700	1,010	-	-
	살구	-	-	9	-	-	-
필리핀	바나나	46	729	2,297	2,129	2,670	3,619
	야콘	-	-	59	56	-	-
뉴질랜드	키위	478	924	706	420	464	527
이탈리아	브로컬리	2	-	-	-	-	-
콜롬비아	바나나	262	-	103	17	377	164
아르헨티나	딸기	-	-	12	-	9	-
	블루베리	-	-	-	-	32	-
칠레	블루베리	-	-	-	-	30	-
캐나다	밀	-	-	306	690	198	996
	블루베리	-	-	15	94	28	-
페루	바나나	-	-	-	-	-	22
멕시코	바나나	-	-	-	265	-	-
베트남	사료작물	-	-	-	1,596	958	1,514
러시아	사료작물	-	-	50	-	-	180
합 계		8,501	6,843	9,919	11,601	10,272	13,759

주: 2009년 기준 인증업체 현황: 수입자 인증업체(23개소), 해외 생산자 인증업체(65개소), 취급자 인증업체(183개소)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2011), 식약청(2011).

표 3-27. 유기가공식품 품목별 수입현황('06~'08 평균)

번호	품목명	미국	중국	호주	브라질	이탈리아	기타 국가	합계(kg)
1	과·채가공품	1,613,324	733	67	268,341	144,033	1,267,953	3,294,451
2	갈색설탕	56,350		7,200	969,502		562,857	1,595,909
3	과·채페이스트	116,812				966,082	153,671	1,236,565
4	강력밀가루	372,910		803,887			17,771	1,194,568
5	곡류가공품	70,790	998,864	24,800		744	87,530	1,182,728
6	두류가공품	77,395	332,589	588,210		1,210	2,810	1,002,214
7	과실쥬스	443,890		84		5,419	75,523	524,916
8	기타가공품	200,238	64,415			202	212,471	477,326
9	백설탕						352,001	352,001
10	중력밀가루	756		305,033		2,240	4,175	312,204
11	당류가공품	10,728		1,900	40,000		251,550	304,178
12	침출차	621	212,874		13		19,759	233,267
13	압착올리브유	3,336		235		70,799	129,087	203,457
14	정제포도당	11,431					172,382	183,813
15	덱스트린		11,667				166,134	177,801
16	콩기름	149,015	2,580				14,238	165,833
17	물엿	93,122					72,235	165,357
18	당면(건면류)		147,563				-	147,563
19	흑설탕				125,543		17,000	142,543
20	과자류	109,933					17,334	127,267
21	기타식용유지		52,503				39,144	91,647
22	과실음료	84,422				1,019	5,799	91,240
23	소스류	69,796		221		884	14,092	84,993
24	박력밀가루			76,700		1,000	5,275	82,975
25	두류가공품(대두분)		6,673	53,447			22,667	82,787
26	토마토케첩	43,550		17,830			7,578	68,958
27	과·채쥬스	28,870		5,683	1,200	364	31,712	67,829
28	함수결정포도당						63,000	63,000
29	엿	61,767					-	61,767
30	청국장						61,059	61,059
합계		3,619,056	1,830,461	1,885,297	1,404,599	1,193,996	3,846,807	13,780,216
기타		451,805	115,534	47,939	33,652	105,910	607,681	1,362,521
총계		4,070,861	1,945,995	1,933,236	1,438,251	1,299,906	4,454,488	15,142,737

주: 품목 및 국가 정렬기준: 수입량 상위 30 품목, 수입량의 상위 5개 국가

4.4. 유기식품의 시장전망과 수출가능성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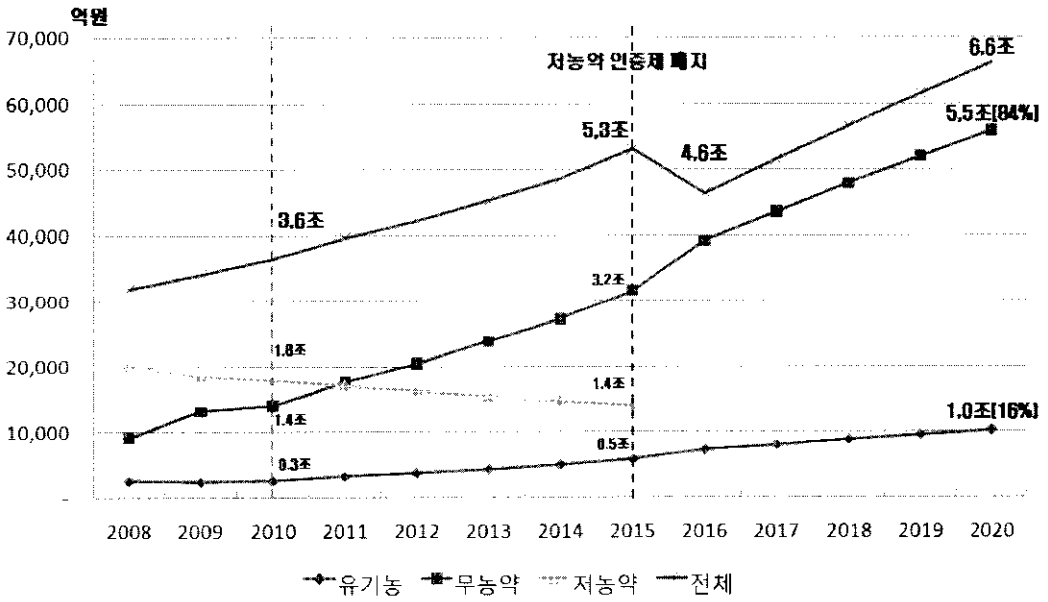
4.4.1. 국내 유기식품의 시장전망

○ 2020년 보급목표연도를 목표로 전체 경지에서 차지하는 유기와 무농약 재배면적 비중 20%로부터 유기재배면적 도출

○ 국산 유기농산물 시장의 경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보고서(2010)를 활용하였으며, 2021년에서 2025년까지는 과거 증가추세가 완만해지는 것으로 가정함.

- 2010년의 유기농산물 거래규모는 3,521억 원으로 추정되며, 2011년 4,118억 원, 2014년 5,782억 원, 2015년 6,563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2016년에는 저농약 인증제가 완전히 폐지됨에 따라 저농약 농가 가운데 일부가 유기재배로 전환될 것을 가정하면 2016년 7,226억 원, 2020년 1조 306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그림 3-9. 국내 친환경농산물의 시장전망



주: 저농약의 경우 2010년부터 신규인증 중단, 2016년 이후 저농약 폐지를 적용함.

표 3-28. 인증단계별 국내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 전망

단위: 억 원

	2008	2009	2010	2011	2014	2015	2016	2020
유기농	2,536	2,426	3,521	4,118	5,782	6,563	7,226	10,306
무농약	9,193	13,178	15,026	18,449	28,026	32,426	39,249	55,976
저농약	20,198	18,514	17,958	17,112	14,814	14,122	-	-
전체	31,927	34,117	36,506	39,678	48,622	53,111	46,475	66,283

○ 충북지역 유기농업 재배면적 전망은 2020년 기준으로 유기와 무농약 면적이 전체 재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에 이른다는 목표 하에서 도출되었음.

- 유기면적은 2010년 870ha에서 2015년 3,205ha, 2020년 7,392ha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유기와 무농약을 합한 면적은 2010년 2,984ha로 전체 경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이나 2015년 10,906ha로 9.8%, 2020년에는 21,601ha로 20.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됨.

표 3-29. 충북지역의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 전망

단위: ha, %

	2010	2012	2015	2020
유기	870 (0.7)	1,574 (1.3)	3,205 (2.9)	7,392 (6.9)
무농약	2,114 (1.8)	3,816 (3.3)	7,701 (6.9)	14,209 (13.2)
저농약	2,297 (2.0)	1,470 (1.3)	753 (0.7)	- (-)
전체	5,281 (4.5)	6,860 (5.9)	11,659 (10.5)	21,601 (20.0)
경지면적	116,973	116,973	111,267	107,871

주: ( )안은 비중(%)을 의미함.

○ 충북지역 재배면적의 경우 시나리오 1은 2020년 이후 증가세가 둔화됨을, 시나리오 2는 지속적으로 증가됨을 가정함. 국산 원료 국내생산 가공식품 시장의 경우 유기면적 재배면적 증가율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음. 수입산의 경우는 국산이 증가함에 따라 유기식품시장의 점유율을 확대함에 따라 증가하는 추세가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가정함.

- 충북지역 국산원료 국내생산 가공식품시장의 경우 전국의 유기가공업체 인증업체 수 가운데 186개 가운데 충북의 인증업체 수 18개의 비중을 이용하여 산출하였음.
- 2014년부터는 유기농푸드밸리가 조성되어 인증업체수가 19개가 충북지역으로 이동하게 되므로 186개 가운데 37개의 비중을 이용하여 산출하였음.
- 충북지역의 국산원료 국내생산 시나리오 1은 2020년 이후 증가세가 둔화함을, 시나리오2는 지속적으로 증가함을 가정함.

표 3-30. 유기식품의 시장규모 전망

단위: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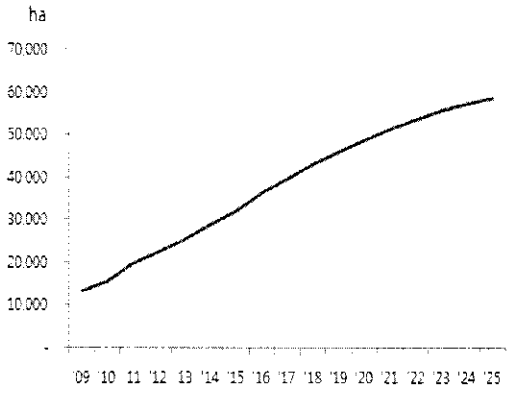
구 분		2008	2011	2012	2015	2020	2025
유기식품		4,043	8,463	9,632	13,204	18,090	25,764
유기 농산물 시장	합계	1,885	4,686	5,276	7,424	11,274	18,635
	국산	1,564	4,118	4,620	6,563	10,306	17,654
	수입	321	568	656	860	968	981
유기 가공식품 시장	합계	2,158	3,777	4,355	5,781	6,817	7,129
	국내생산	1,843	3,219	3,712	4,937	5,867	6,167
	(국산원료 전체)	296	480	549	790	1,203	1,439
	(국산원료 충북S1)	**29**	**48**	**62**	**181**	**421**	**440**
	(국산원료 충북S2)	**29**	**48**	**62**	**181**	**421**	**487**
	(수입원료 전체)	1,547	2,739	3,162	4,147	4,663	4,727
	수입완제품	315	558	644	844	950	963

주 1) 국산 유기농산물 시장의 경우 2011년부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추정치(2010) 적용
2) 유기가공식품 시장의 경우 국내생산의 국산원료는 유기재배면적의 증감율을 적용하였으며 유기재배면적의 전망치는 2020년 기준 전체 경지면적의 20%를 보급한다는 목표하에 추정됨.
3) 국산원료 충북의 경우 S1은 2020년 이후 증가세 둔화됨을, S2는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됨을 가정함.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추정치(2011).

그림 3-10. 전국과 충북의 유기농산물 재배면적 전망

<전 국>



<충 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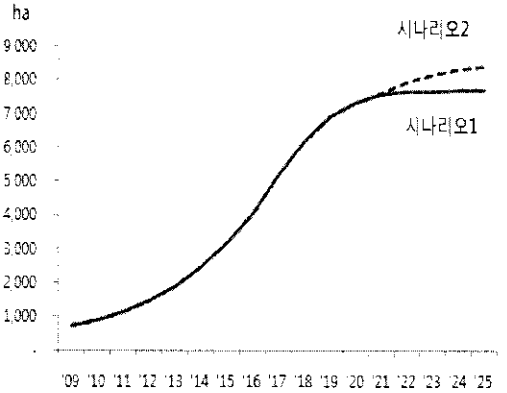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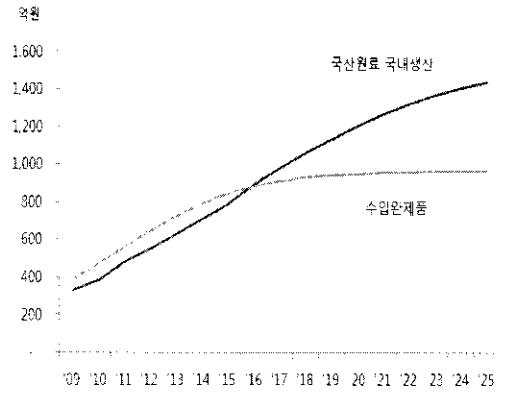


그림 3-11. 국내 유기가공식품의 시장전망

<국산원료 국내생산과 수입완제품>



<수입원료 국내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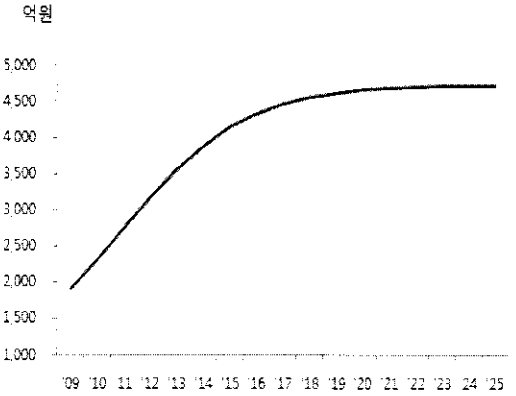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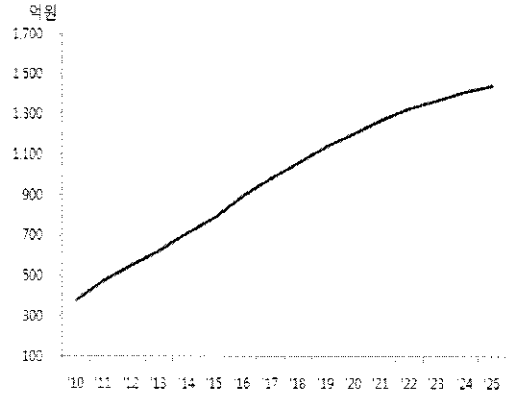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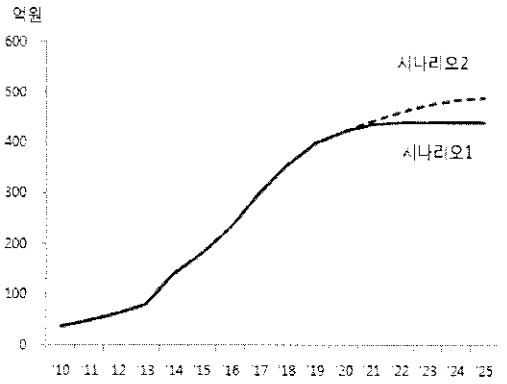


그림 3-12. 충북지역 국산원료 유기가공식품의 시장전망

<전 국>



<충 북>



4.4.2. 해외 유기식품의 시장전망

가. 세계지역

○ 2008년 세계 유기농업 실천현황에 따르면 세계 총 유기면적은 6,685만ha이며 유럽 1,776만ha, 라틴아메리카 1,628만ha, 오세아니아 1,214만ha, 아시아 734만ha 등임. 대륙별로 차이가 있으나 유기농업 실천면적은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전체 농지가운데 유기농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세계 평균이 0.8%이며 오세아니아 지역이 2.8%로 가장 높음. 다음으로 유럽이 1.7%, 라틴아메리카가 1.3% 등이며 아시아는 0.2%를 차지함.

○ 세계 유기식품 시장규모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2008년의 유기식품 시장규모는 약 509억 달러로 2003년의 약 250억 달러의 두 배에 해당하는 규모로 성장함. 유기식품 시장의 빠른 성장은 세계적인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수요가 꾸준히 성장하는 북아메리카지역이며, 다음으로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서유럽에 집중되어 있음.

○ 현재 성장세가 지속되는 경우 2020년 세계 유기식품 시장규모는 2008년 대비 3배정도 증가한 약 1.600억 달러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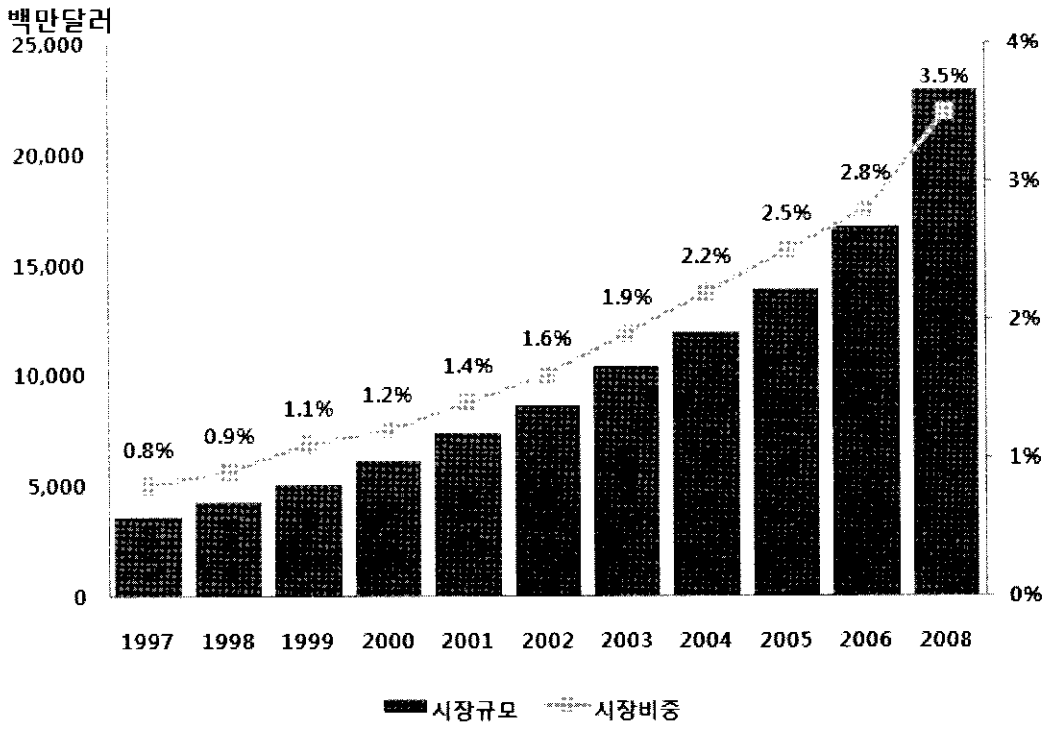
나. 북미지역

○ 북미지역은 미국과 캐나다를 중심으로 유기식품에 대한 소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북미지역의 유기식품 시장은 2007년 대비 16% 증가한 약 230억 달러로 추산됨.

○ 북미지역의 유기식품 시장의 약 90% 이상이 미국의 유기식품 시장이며 미국은 전체 식품시장 중 3.5%에 해당하는 수치임. 북미지역의 유기식품 시장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로 라틴아메리카, 유럽, 오스트레일리아, 아시아로부터 수입된 상품들이 거래됨.

○ 북미지역의 유기식품 생산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북미지역 농가들의 바이오 연료 생산에 대한 관심이 크기 때문이며, 따라서 미국과 캐나다 회사들이 북미지역의 유기식품 수요를 위해 라틴아메리카 지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임(IFOAM, 2010).

그림 3-13. 미국의 유기식품 시장 규모 및 시장 비중 변화



자료: IFOAM(2010).

다. 중국지역

○ 2008년도 중국의 녹색식품 시장규모는 매출액 기준 2,580억 위안[4]으로 1996년 155.3억 위안에 비해 시장규모가 약 17배 확대되었음.

- 대략 녹색식품 시장규모의 1/50 정도인 50억 위안 내외의 시장규모를 가진 것으로 알려진 유기식품을 합한 중국의 친환경농식품 시장규모는 약 2,630억(한화로 약 41.9조 원) 위안 내외인 것으로 판단됨.

○ 농식품산업 총생산액에서 녹색식품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0년 1.42%에서 2008년 3.41%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 다만, 중국의 GDP에서 녹색식품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1% 미만으로 극히 미미하지만 1996년 0.22%에서 2008년 0.86%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4) 한화로 환산하면 약 41.1조 원 규모이다(2008년도 연평균 환율 매매기준율 1위안=159.44원 적용)

표 3-31. 중국 녹색식품기업의 규모화 지표 변화 추이

연 도	기업수 (개)	상품수 (개)	생산량 (만 톤)	매출액 (억위안)	기업 평균		
					상품수	생산량	매출액
1996	463	712	364	155	1.54	0.79	0.34
2000	964	1,831	1,500	400	1.90	1.56	0.41
2001	1,217	2,400	2,000	500	1.97	1.64	0.41
2002	1,756	3,046	2,500	597	1.73	1.42	0.34
2003	2,047	4,030	3,260	723	1.97	1.54	0.35
2004	2,836	6,496	4,600	860	2.29	1.62	0.30
2005	3,695	9,728	6,300	1,030	2.63	1.71	0.28
2006	4,615	12,868	7,200	1,500	2.79	1.56	0.33
2007	5,740	15,238	8,300	2,000	2.65	1.45	0.35
2008	6,220	18,000	9,400	2,580	2.89	1.51	0.41

자료: 전형진 외(2010).

라. 일본지역

○ 일본의 유기농산물 인증물량은 국내 인증이 2008년 55,928톤인데 반해, 해외 인증은 2008년 2,001,584톤으로 해외 인증이 국내 인증물량의 약 35.8배, 전체 유기농 인증물량의 97.3%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표 3-32>, <표 3-33>.

표 3-32. 일본의 유기농산물 국내 인증물량

단위: 톤, (%)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채소	28,125	29,674	29,107	29,949	32,780	35,928	(64.2)
과일	2,163	2,029	2,222	1,766	2,199	2,050	(3.7)
쌀	10,838	10,400	11,369	10,811	10,828	11,278	(20.2)
밀	858	732	655	558	721	883	(1.6)
대두	786	639	877	974	986	1,318	(2.4)
녹차	1,487	1,664	1,610	1,538	1,702	1,754	(3.1)
기타[1)]	2,351	2,291	2,332	2,999	4,231	2,716	(4.9)
계	46,609	47,429	48,172	48,595	53,447	55,928	(100.0)

주1) 기타는 홍차, 커피원두, 기타 두류, 너트류, 잡곡류, 설탕, 곤약감자, 팜 프루츠 등을 포함함.
2) ( )는 농산물 종류별 비중을 나타냄.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2010).

○ 일본의 유기농산물 인증물량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국내 인증물량의 경우 2003년에 46,609톤이었으나 2005년 48,172톤, 2008년 55,928톤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일본의 해외 인증물량을 연도별로 살펴본 결과 2003년에 297,923톤이었으나 2005년 1,440,177톤, 2008년 2,001,584톤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3-33. 일본의 유기농산물 해외 인증물량

단위: 톤, (%)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채소	26,994	63,123	79,917	106,119	82,448	173,819	(8.7)
과일	18,736	11,233	67,512	131,538	156,764	93,863	(4.7)
쌀	2,604	4,581	3,171	21,777	2,851	13,896	(0.7)
밀	1,732	2,414	3,634	7,528	10,170	83,230	(4.2)
대두	54,109	70,975	35,362	63,647	94,574	93,878	(4.7)
녹차	964	1,848	226	449	83	255	(0.0)
기타[1)]	192,784	295,476	1,250,255	964,208	1,554,629	1,542,645	(77.1)
계	297,923	449,650	1,440,177	1,295,266	1,901,519	2,001,584	(100.0)

주1) 기타는 홍차, 커피원두, 기타 두류, 너트류, 잡곡류, 설탕, 곤약감자, 팜 프루츠 등을 포함함.
2) ( )는 농산물 종류별 비중을 나타냄.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2010).

○ 농산물 종류별로는 국내 인증의 경우 2008년 기준으로 채소류가 35,928톤(64.2%)으로 가장 큰 비중을 나타냈고, 쌀 11,278톤(20.2%), 과일 2,050톤(3.7%), 녹차 1,754톤(3.1%)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농산물 종류별 해외 인증의 경우를 살펴보면 2008년을 기준으로 채소류 173,819톤(8.7%), 과일 93,863톤(4.7%)을 비롯하여 설탕, 커피, 홍차 등 기타 품목 1,542,645톤(77.1%)으로 나타났음. 최근 들어 해외인증 물량이 크게 확대되고 품목도 다양화되고 있음.

표 3-34. 일본의 유기농산물 가공식품 국내 인증실적

단위: 톤

구 분		2001	2005	2006	2007	2008
국내	냉동야채	1,128	119	278	348	197
	야채통조림	13	12	6	21	12
	기타 야채가공품	802	1,499	884	1,082	1,497
	음료	4,739	7,256	7,857	8,942	7,039
	두유	-	24,932	21,971	18,832	22,623
	두부	44,034	70,025	73,570	55,181	66,233
	낫토	10,154	9,908	36,919	7,722	4,965
	된장	1,887	3,476	3,396	3,004	3,123
	간장	3,093	6,405	6,655	5,444	6,104
	면류	103	-	-	-	113
	녹차	1,270	1,423	1,132	1,231	1,657
	기타 농산가공품	9,532	24,757	34,787	32,102	21,968
	계	76,755	149,812	187,455	133,909	135,531
	연평균증가율(%)					8.5
해외	냉동야채	5,612	5,047	5,450	4,725	8,293
	야채통조림	4,642	5,575	6,409	4,510	3,433
	기타 야채가공품	2,058	2,306	2,029	5,361	3,725
	음료	2,013	160,987	8,387	12,251	8,395
	두유	-	-	-	30	18
	두부	-	-	-	-	-
	낫토	-	-	107	141	-
	된장	472	579	803	856	685
	간장	176	-	128	-	1,211
	면류	-	-	-	-	3,651
	녹차	390	37	156	230	269
	기타 농산가공품	72,651	41,527	46,308	136,700	97,161
	계	88,023	216,058	69,777	164,804	126,847
	연평균증가율(%)					20.5

주: 기타 농산가공품에는 기타 과수가공품, 기타 대두가공품, 야채수자, 원두커피, 너트류 가공품, 곤약, 식용식물유지, 설탕, 당밀 등을 포함함.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2010).

○ 유기농산물 가공식품의 인증실적은 국내 인증의 경우 2001년 76,755톤에서 2005년 149,812톤, 2007년 133,909톤, 2008년 135,531톤으로 나타났으며, 매년 8.5%의 증가세를 보였음.

○ 유기농산물 가공식품의 해외 인증은 2001년 88,023톤에서 2008년 126,847톤으로 매년 20.5%의 증가세를 보여 유기가공식품에 있어서도 수입 식품의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국내 인증 가공식품 중에서는 두부가 66,233톤(48.9%)으로 가장 많았고, 두유 22,623(16.7%), 음료 7,039톤(5.2%)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한편 해외 인증 가공식품의 경우 과실음료의 인증실적이 전년대비 31.5% 급감하였으나 8,395톤(6.6%)으로 여전히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4.4.3. 유기식품 수출 가능성 검토

○ 세계적인 웰빙트렌드에 의해 유기농식품에 대한 세계인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유기농식품 시장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향후 유기농푸드밸리에서 생산된 유기식품에 대한 수출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제고시킬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의 유기식품 시장규모는 유기농산물과 유기가공식품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충북지역은 충북도가 유기농산물 생산면적 확대 의지를 가질 경우 전국 평균 증가율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며, 결과적으로 충북지역 유기농산물 시장규모와 국산원료 국내생산 유기가공식품의 시장규모가 전국 평균 증가율보다 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2014년부터 유기농푸드밸리에 입주한 업체들이 생산 가동을 시작할 경우 증가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임. 따라서 충북지역의 유기식품이 수출잠재력을 가질 것으로 전망됨.

○ 현재 우리나라의 유기농산물과 유기가공품 수출은 수출 현황자료도 갖추어져 있지 않을 정도로 매우 미미한 수준임. 하지만 일본, 중국의 주변국과 북미, 유럽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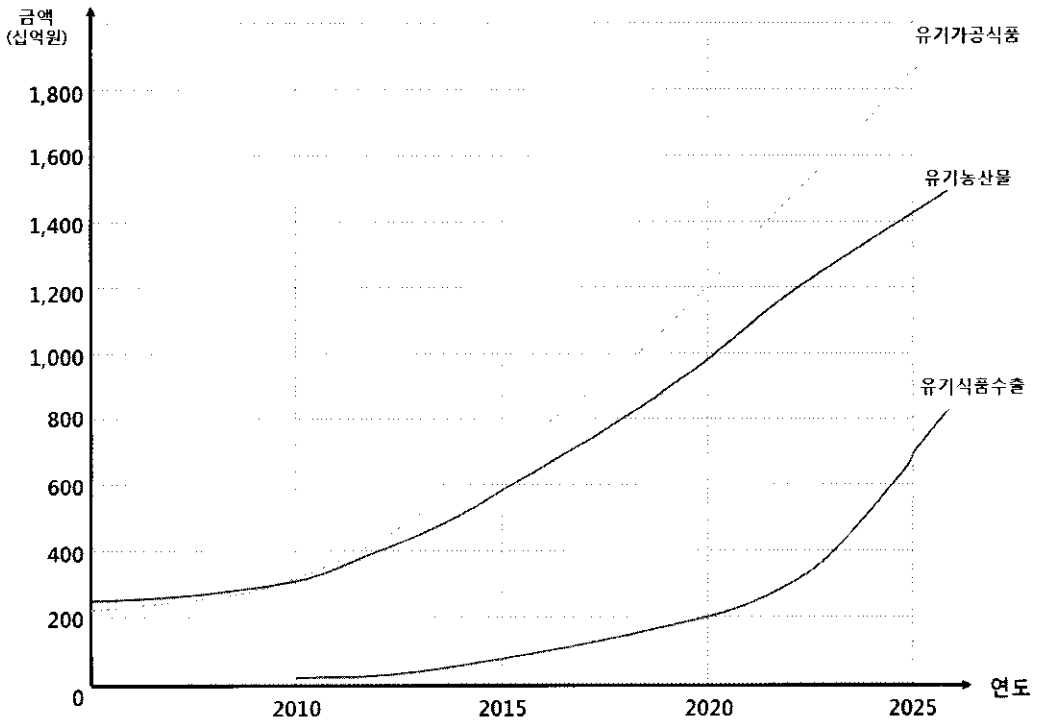
역을 대상으로 수출가능성을 검토하고 가능한 품목 지역에 대해 수출을 꾀할 필요가 있음.

○ 일본의 경우 해외수입 유기식품이 매년 상당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최근 한국산 안정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음.

○ 중국의 소득수준이 높은 소비자들의 경우 한국산 안전고품질 유기식품에 대한 소비잠재력이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최상의 유기농산물과 유기가공품의 수출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됨.

○ 우리나라 특유의 고품질 유기농산물 및 가공품을 개발·육성하고 일본과 중국에 수출할 수 있는 공세적인 전략을 개발하여 실행한다면 2015년경부터는 유기식품의 해외수출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됨.

그림 3-14. 유기식품의 시장규모 및 수출 전망



주: 저농약의 경우 2010년부터 신규인증 중단, 2016년 이후 저농약 폐지를 적용함.

5. 유기농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정책

○ 2010년 4월 농림수산식품부가 농업분야의 대표적인 녹색산업 육성정책으로 제시한 '유기농식품산업 육성 방안 - 녹색성장, 유기농식품으로 답을 찾다'에서 유기농식품산업 육성 방안을 제시함.

- 유기농식품산업은 세계적으로 매년 20% 내외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추세에 있고, 생산·유통·가공·소비 등 유기농식품 전과정에 연관된 전후방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크므로 글로벌 시장의 선점을 위한 매력적인 산업임.
- 유기농식품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한 비전으로 '유기농식품산업 육성을 통해 동아시아 시장 선도'로 설정함. 정책목표로 유기농산물 재배면적을 2009년 13천ha에서 2015년 50천ha로 확대화고, 유기농식품산업 시장규모를 2008년 4천억 원에서 2015년 2조원 규모로 확대하며, 유기농식품(유기농자재 포함) 수출을 2009년 700만 달러에서 2015년 1억 달러로 확대 등을 제시함.
- 유기농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생산기반 구축, 가공 및 농자재 산업 육성, 유통·소비 활성화, 관리체제 확립 등 4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함.
- 유기농식품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친환경지구·광역친환경농업단지 내 유기농 면적을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유기농특구'를 조성함.
- 유기농가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유기농산물 중심으로 친환경직불제를 개편하고, 가공기술 및 품질개선 등의 연구를 통해 고부가 유기가공식품 개발을 확대하는 계획을 제시함.
- 유기가공식품 육성을 위해 권역별 '유기식품 가공생산자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효율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산·학·연·관의 파트너십 체제 구축과 기술개발 등의 종합적 컨설팅 제공을 강화하는 계획을 제시함.
- 국내 유기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유기가공산업 지원 및 육성을 위해 원료 수매자금지원, 시설개보수 지원, HACCP 등 시설현대화 등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기 추진 중인 대규모 친환경농업 단지를 중심으로 유기가공식품업체 유치 등을 제시함.
- 유기가공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민·관 합작투자 형태의 농식품 모태펀드를 활용하여 규모화와 경쟁력 제고 방안을 제시함. 농식품 모태펀드는 농식품경영체에 투자하는 펀드를 사업공모를 통해 산정하고, 농식품모태펀드에서 투자자금을 출자하는 방식임.

⇨ 유기농푸드밸리 조성 사업은 농업부문의 대표적인 녹색산업인 유기농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전진기지로 녹색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임.

○ 유기농식품산업 육성은 2011년 1월에 발표된 「제3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2011~2015)」의 중요한 분야임.

- 2010년 저농약농산물 신규인증이 폐지됨에 따라 무농약과 유기농산물 위주의 생산확대를 위한 실천기반 조성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함.
- 농림수산식품부의 「농림수산식품·농산어촌 비전 2020」 및 「녹색성장 5개년 계획('09~'13)」과 연계하여 정책의 일관성 차원에서 유기농식품산업 육성을 추진함.
- 정부는 2015년까지 유기농산물의 재배면적을 2009년 13,343ha(총 경지면적의 0.8%에서 2012년 31,808ha, 2015년에는 47,966ha로 전체 경지면적의 3% 수준까지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함. 또한 유기농식품산업 시장규모는 2010년 5,505억 원에서 2015년에는 3.6배 증가한 2조 원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유기농 전문단지 확대를 위해 유기농산물 중심의 특화된 단지조성과 인프라 구축을 확대하고, 특히 유기농 명품화 단지조성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계획을 발표함.
- 유기농식품에 관한 국내외 수급 현황, 인증, 시장 정보 등을 통합 제공하는 유기농식품 종합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유기농 관련 '산업 맵(map)' 작성을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함.
- 'Korean Organic'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통합브랜드 개발 및 해외 집중홍보, 수출대상국의 식품규격에 맞는 해외유기농 인증 획득을 통해 안정적인 수출기반 확충 등 세계화 시장진출을 위한 기반을 구축함.
- 국내 유기농식품 인증제도 통합운영과 유기농식품의 동등성 인정 추진 등 유기농식품 인증기준의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추진함.
- 유기농산물 생산기반과 '상품화-가공-마케팅'을 결합하는 '유기농식품 클러스터(가칭)'을 조성함. 유기농식품 클러스터의 추진방식은 입주업체 출자와 펀드 등을 활용하는 민자 투자방식을 검토하고, 지자체와 협의 또는 기 추진 중인 대규모 친환경농업단지 등을 중심으로 조성하고, 향후 추진예정인 '유기농특구' 및 '유기농 생태마을' 등과도 연계하는 계획을 담고 있음.
- 유기농식품 클러스터 조성은 2013년까지 1개소, 2015년까지 3개소를 조성하는 분야별 주요 육성지표를 제시함.

6. 대내외 여건분석 종합(SWOT 분석)

○ 유기농특구 조성 관련 대내외 여건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기 위해 내부자원과 외부 여건을 기초로 한 SWOT 분석을 실시

- 핵심 전략은 강점과 기회 요인을 최대한 살리는 강점-기회전략(SO전략), 강점을 통해 약점을 해소하는 강점-약점전략(SW전략), 이밖에도 강점을 가지고 위협을 회피하거나 최소화하는 강점-위협전략(ST전략), 약점을 보완하여 기회로 살리는 약점-기회전략(WO전략) 등 다양한 전략수립이 필요함.

표 3-35. 유기농특구 조성 관련 SWOT 분석

		강점(S)	약점(W)
		▸민관학 유기농특구 조성을 위한 강력한 의지 ▸기존 충북지역 클러스터들과의 시너지 효과 ▸우수한 교통 인프라 및 시장 접근성 ▸유리한 녹색농업생산 기반	▸융복합산업 미확보 ▸로컬푸드 시스템 공감대 미형성 ▸농가규모의 영세성, 고령화로 조직화의 한계 ▸유기농산물 유통기반 취약 ▸하향식 친환경농업 추진
기회(O)	▸중앙정부의 강력한 녹색성장 정책 드라이브 ▸국내외 유기농 시장규모 확대 ▸FTA체결 후속대책으로 유기농식품산업의 전략적 육성 ▸세종시 건설에 따른 추가적 시장 확보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 및 비중 증가 ▸로컬푸드 수요 증대	**<S-O전략>** ◆유기농특구 조성을 통한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가공 ◆도내 유기농 클러스터와의 연계로 시너지 극대화 ◆친환경농산물「지역생산-지역소비」체계 추진 ◆유기농식품 수출 전략 수립(동아시아 시장 선도)	**<W-O전략>** ◆안정적 생산과 생산비 절감 위한 기술 개발 및 보급 ◆안정적 소비처 확보를 위한 융복합 산업 유치 ◆친환경·유기가공식품의 명품화 기반 구축 방안 수립 ◆친환경(녹색) 기술 및 업체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
위협(T)	▸농업관련 조직의 사기저하 ▸농촌인력 고령화 ▸친환경농업농촌에 대한 공감대 및 예산부족 ▸타 시도의 공격적 친환경농업 육성 전략 ▸수입 유기농식품과의 경쟁 심화 ▸중국의 값싼 녹색식품 수입 증가 우려	**<S-T전략>**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 농업자원 관리 ◆유기농업 및 식품산업의 가치에 대한 홍보 ◆유기농특구 조성을 통한 지역 공동화 해소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W-T전략>**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홍보·교류 강화 ◆유기농 현장체험 활동 및 관광 등 연계 ◆민간 주도의 친환경(녹색 식생활) 운동 네트워크 구축 ◆의농, 미농 등 유기농산업을 활용한 신규시장 창출 및 선점

제 4 장

유기농특구 조성 관련계획

1. 제3차 충청북도 종합계획 수정계획(2008~2020)

○ 계획의 이념
- 지역에서 세계로 비상하는 국제교류의 활성화
- 자치역량이 강화되는 개성 있는 지역문화 창조
- 균형발전과 복지생활이 보장되는 지역공동체 조성
- 전국으로 지구촌으로 도약하는 첨단지식산업 발전체계 구축
- 고품격 문화·관광·복지 등 삶의 질이 보장되는 웰빙지역 조성
- 새로운 블루오션 창조를 통한 상생의 충북 발전전략 추진

○ 계획의 목표
- 국토융합 발전축의 중심지역 『코아 충북』
- 신지식 BINT산업의 핵심지역 『첨단 충북』
- 민족문화·청정생태공원의 허브지역 『관광 충북』
- 행복한 삶의 질 보장지역 『웰빙 충북』
- 미래의 지속발전 가능지역 『쾌적 충북』

○ 괴산군 기본목표
- 자연·인간·문화가 살아있는 관광괴산 실현
- 지식기반 산업중심의 첨단괴산 실현
- 삶의 여유를 창조하는 괴산 실현

○ 괴산군 발전방향

- 군정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 발전축 설정 및 공간구조 개편
- 괴산의 경쟁력 환경자산 가치 제고
- 산악·계곡·문화가 어우러진 관광개발
- 전통산업에서 미래형 벤처산업으로서의 농업육성
- 고도산업발전의 원동력 구축
- 삶의 질 제고와 생산적 복지시스템 구축
- 생활과 산업을 뒷받침하는 네트워크 확충

2. 충북 제3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2011~'15) 계획

○ 계획수립 배경

-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011～'15)은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6조에 시·도지사는 농림수산식품부 친환경농업 육성 계획에 따라 해당 시·도의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해야 함.
- 충청북도는 중앙정부의 제3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에서 제시된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확충과 자원환경농업 및 유기농특구조성,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 방안 등의 내용을 기초로 충북도의 실정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 비전 및 핵심가치

- 비전으로 생명농업의 중심 충북 실현을 위한 '유기농 특화도 충북 실현'으로 설정함.
- 핵심가치로는 중앙정부의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에서 제시된 내용을 기초로 '생산자를 잘 살게하는 친환경농업, 소비자를 행복하게 하는 친환경농업, 자연을 건강하게 하는 친환경농업'으로 제시함.

○ 친환경농업 육성 목표와 핵심과제

- 2015년까지 친환경농산물(무농약 이상) 재배면적 비율을 10%까지 확대하고, 연차별 화학비료 · 농약 사용량 매년 3% 이상 감축하며, 경종과 축산과 연계한 자원순환형 친환경 농업체계를 구축하고, 유기농산물(유기축산물)를 집중 육

성하여 급성장하고 있는 유기농식품 시장에 적극 대응(재배비중 4%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목표를 설정함.

- 친환경농업 육성의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생산 기반조성, 친환경농산물 유통·소비 활성화,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유기농 고부가가치 융·복합화, 친환경농업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농업환경자원관리 시스템 구축, 친환경 축산·임업·수산업 육성 등 7대 핵심과제를 제시함.

○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확충 대책

-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친환경농업지구,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유기농업단지, 친환경 녹색농업 육성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을 제시함.
- 특히 농식품부의 유기농특구 조성계획 발표(2010. 04)를 기초로 유기농산물 생산·유통·가공 등 종합적인 기반 확충을 통해 충북도가 지향하는 전국 최고의 유기농특구 조성계획을 제시함.
- 유기농특구 조성을 위하여 유기농특구 추진단(생산·유통·가공 분야 등 22명의 전문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광역친환경농업단지(7개소)와 유기농업단지조성(29개소)의 확대, 지역전략식품육성사업의(2개소) 추진, 오가닉 의농산업 육성, 유기농생태마을 조성, Korea 유기농푸드밸리 조성 계획 등을 제시함. Korea 유기농푸드밸리는 10년간 2,000천㎡(60만평)규모에 7,000억 원(국비 1,500억 원, 지방비 500억 원, 민자 5,000억 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제시됨.

○ 투융자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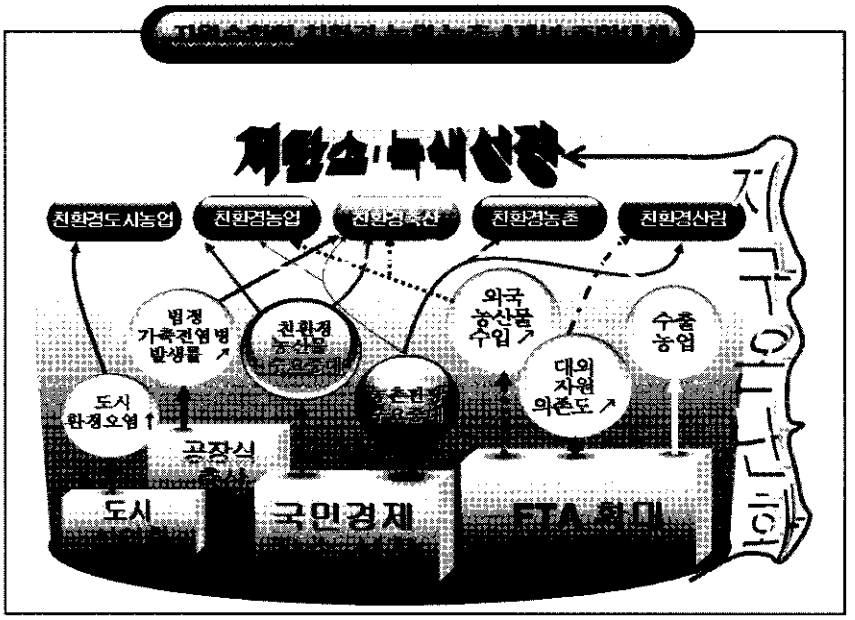
- 충북의 제3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에 따라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투입되는 투융자 규모는 2011년 750억 원, 2013년 1,384억 원, 2015년 1,408억 원으로 총 5,989억으로 추산됨.
- 분야별 투융자 계획을 보면 친환경농축산업 생산기반 조성에 3,006억 원으로 전체 투융자 규모의 50.2%를 차지하고, 친환경농산물 유통・소비 활성화에 555억 원((9.3%),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에 23.7억 원(0.4%), 유기농 고부가치 융·복합화 153.8억 원(25.1%),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55.3억 원(0.9%), 농업환경자원 관리 시스템 구축 8.8억 원(0.1%), 친환경 축산・임업・수산업 육성 836.6억 원(14%)으로 제시함.

3. 충북 자원순환형 친환경농업·농촌 4개년(2011~'14) 종합대책

○ 계획수립 배경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친환경농업육성법', '충청북도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친환경농업, 친환경축산, 친환경산림, 친환경농촌 및 친환경도시농업의 양적·질적 지속적 성장을 위한 충북의 자원순환형 친환경농업·농촌 4개년(2011~'14)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함.
- 종합대책은 경종-축산-산림 등 부문간 자원순환을 통해 환경부하 및 투입비용을 최소화하는 저투입 자원순환형 친환경농업, 친환경농촌(체험)관광 및 친환경도시농업 실현으로 농업분야 저탄소 녹색성장의 견인을 유도하기 위함임.

그림 4-1. 충북 자원순환형 친환경농업·농촌 4개년 종합대책의 기본골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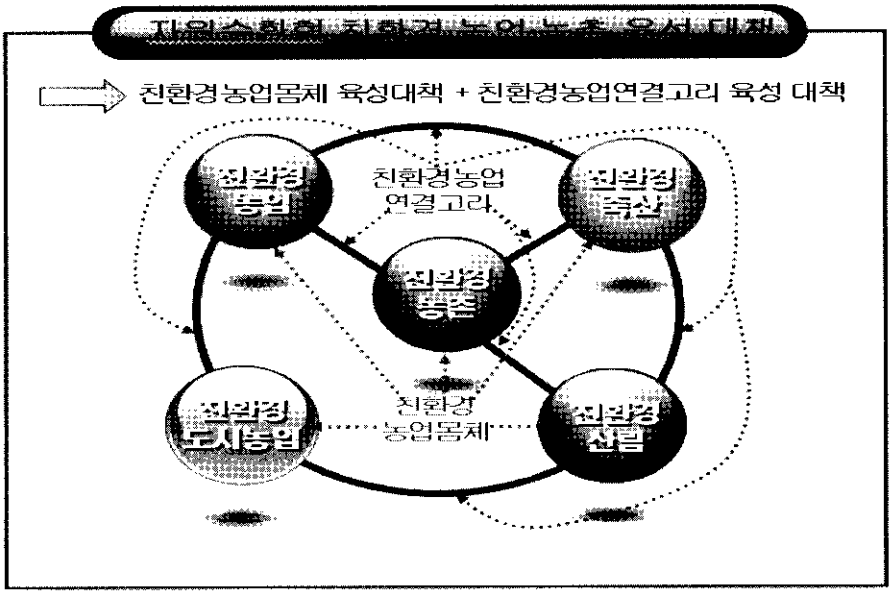


○ 비전과 정책목표

- 비전으로 '생명농업의 중심 충북 실현'을 위한 '선순환 친환경 농업·농촌'으로 설정하고, 친환경농산물 유통시스템 구축 특별대책 추진, 친환경농업 연결고리 육성대책 추진, 친환경농업몸체 육성대책 추진 등을 제시함.
- 정책목표로 친환경농산물 인증 재배면적은 2009년 5,453ha에서 2014년에는 약 93% 증가한 10,500ha로 설정하고, 무농약 이상 재배면적은 2009년 2,664ha

에서 2014년에는 3.8배 증가한 4,000ha로 목표치를 설정함. 또한 유기농특구는 지경부 1개소, 농식품부 2개소의 조성 목표치를 제시함.

그림 4-2. 자원순환형 친환경농업·농촌 육성 대책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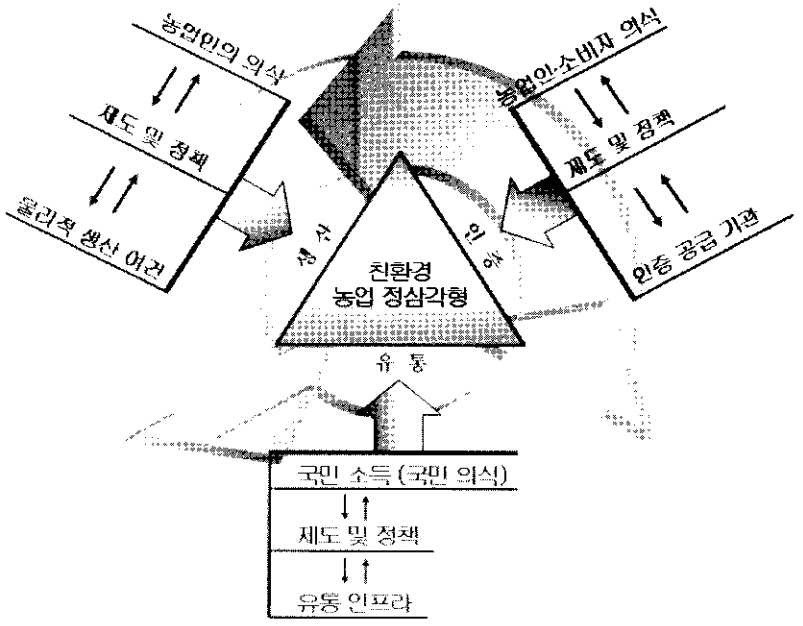


자료: IFOAM(2010).

○ 자원순환형 친환경농업·농촌 추진 전략

- 추진전략으로 '자원순환형' + '균형과 지속가능한 성장(B&S 성장)' + '선택과 집중' + '협력과 역할분담'으로 설정함.
- B&S 성장: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인증·유통이 균형있고(Balanced), 지속적인(Sustainable) 성장을 하도록 추진함. 생산·인증·유통의 친환경농업 정삼각형의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함.
- 선택과 집중: 친환경농업의 정점인 유기농업(유기축산)을 선택적으로 집중 육성하여 급성장하고 있는 유기농식품시장에 적극 대응함. 특히 유기농 확대 우수 시군을 선정하여 중점 육성하고 지역별 유기농특화 작목을 육성함.
- 자원순환형 친환경농업·농촌: 자원순환형 친환경농업·농촌의 핵심과제로 친환경농업 특구 조성을 추진함. 산·학·연·관의 유기농식품 관련 지역-인재-풀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유기농특구 추진단을 운영하고 산하에 권역별 유기농사업단을 조직하여 지역특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세부실천사업을 추진함.
- 협력과 역할분담: 유기농확대 우수 시군(지역) 중점 육성 및 "지역별 유기농특화 품목"을 집중 육성함.

그림 4-3. 친환경농업의 균형성과 지속성 유지를 위한 전략적 삼각형 영향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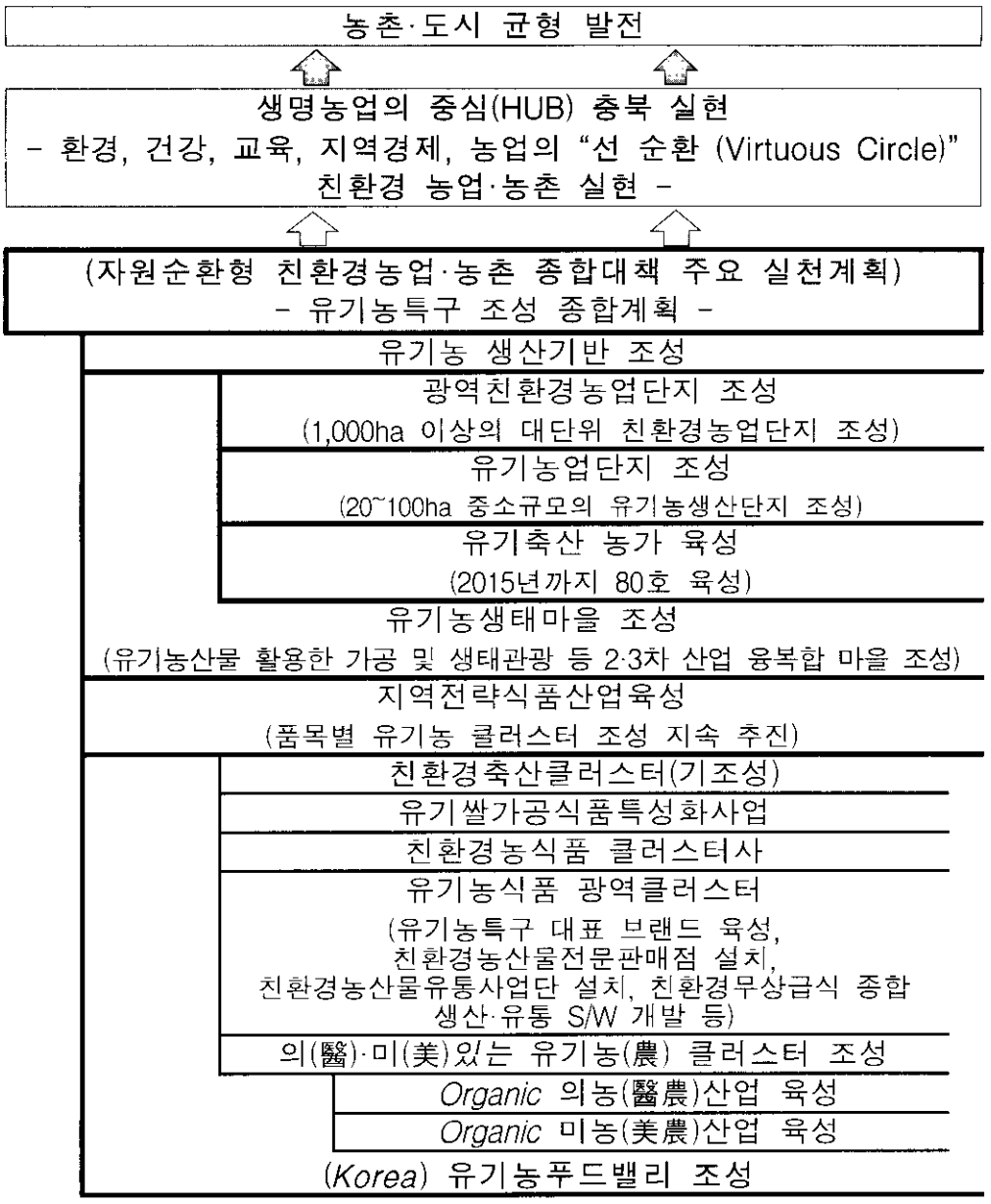
자료: 충청북도(2011).

○ 자원순환형 친환경농업 육성 계획에서 주요 실천사업으로 유기농특구 조성 방안을 제시함.

- 충북 유기농특구는 온실가스 감축과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하는 녹색성장의 견인과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글로벌 유기농식품 시장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생산·유통·가공·소비 등 유기농식품 전과정에 관련된 전후방 연관산업 효과, 특히 바이오산업과 한방산업 등 생명산업, 뷰티산업(화장품산업) 등과의 융복합화로 고부가가치 달성을 목표로 설정함.
- 유기농특구는 유기농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 유기농업단지조성, 유기축산농가조성, 유기생태마을조성 등을 담고 있으며,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친환경축산클러스터 조성, 유기쌀가공식품특성화사업, 친환경농식품클러스터 조성, 유기농식품 광역클러스터, 치유(醫)와 아름다움(美)을 추구하는 유기농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의농산업과 미농산업의 육성 등을 제시하고 있음.

⇨ Korea 유기농푸드밸리 조성을 궁극적인 목표로 설정함.

그림 4-4. 자원순환형 친환경농업·농촌 4개년 종합대책의
비전과 정책목표 관계



자료: 충청북도(2011), p.94.

○ 충북 자원순환형 친환경농업·농촌 4개년 종합대책의 추진을 위한 실무대책반 운영
- 농정국장을 추진단장으로 하고, 1개 총괄지원대책반, 경축산림 자원순환 친환경농업대책반, 자연자원 활용 친환경농업대책반, 친환경자원 활용 친환경농산어촌 대책반, 친환경농산물 유통대책반, 친환경자원 활용 도시농업대책반 등 5개 실무대책반을 구성하여 추진함.

제 5 장

유기농특구 관련 국내외 사례

1. 국내사례

1.1. 친환경농업특구

1.1.1. 양평 친환경농업특구

○ 양평친환경농업을 확대 발전시키기 위하여 특구 지정

- 양평 친환경농업특구는 한강수계와 연계된 각종 규제로 인하여 개발이 제한된 지역으로 친환경농업을 바탕으로 생산·유통·가공을 발전시키기 위해 친환경 웰빙농업과 체험관광 등으로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05년 12월 특구로 지정됨.
- 친환경농업특구는 농지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위탁경영할 수 있는 농지법 특례, 농업기반시설 폐지가 가능한 농어촌정비법에 관한 특례, 이봉주 하프마라톤 대회시 도로의 통행을 제한하는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적용이 허용됨.

○ 친환경농업특구 운영성과

- 고품질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왕우렁이 농법 등 친환경농업 실천면적과 우수농산물관리(GAP) 인증농가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 친환경농산물 인증 및 통합브랜드 홍보강화 사업으로 「물 맑은 양평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TV-CF를 제작 홍보하고, 친환경농산물 인증 1,867농가(전체 농가 중 23%차지) 1,638ha(전체 면적 중 20%),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안정

적 농산물 판매망 구축으로 각종 전시 판매점 210개소(한화콘도, 세미원, 홈플러스, 그랜드마트, 하나로마트)에 입점하였으며, G마크 농산물을 82개 학교에 납품하여 공급을 점차 확대하고 있음.

- 2011년도에는 산지유통센터 고용 30여명, 매출액 400여억 원, 유통물량 390만 톤, 축제방문객 45만명, 축제 소득액 90억 원, 농촌체험관광객 120만명 등 친환경 농특산물에 대하여 다양한 판매 노력을 기울여 수익률이 증가함.
- 양평군은 특화사업으로 농약, 화학비료, 제초제의 사용을 줄였으며, 유기질비료 사용량 급증 및 인증농가와 면적 등 친환경농업 실천이 크게 증가됨으로써 친환경농업 특구의 목표를 순조롭게 달성하여 "물맑은 양평"의 브랜드 가치가 상승함.
- 수도권 친환경농산물 전문매장과 학교단체급식이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등 양평군의 이미지 제고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10대 명품브랜드 육성을 위하여 생산기반확충에 심혈을 기울이는 한편, "전국 최고 한우의 고장"으로 한우 사육기반 확대에도 전력을 다하고 있음.

○ 대한민국 제일의 친환경농업도시 육성을 통한 향후 특구 운영 활성화

- 경기도 양평군은 대한민국 최고의 친환경농업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친환경농업 제3차 5개년 계획' 수립시 관행적인 용역발주 수립 방식에서 탈피하여 친환경농업과와 농업기술센터 직원을 주축으로 3차 5개년 계획수립 실무추진단을 구성 하여 수립하였음. 또 제17차 세계유기농대회에 맞추어 선포식을 개최하였음.
- 친환경농업 제3차 5개년계획의 실천을 위하여 친환경농업 허브도시의 위상제고, 농촌어메니티자원 활용성제고, 지속가능한 농촌발전체계구축, 최고의 농업부가가치 실현을 전략과제를 선정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임.
- 현재 302농가인 1억 원 이상의 소득 농가를 2020년에는 500농가를 달성할 계획이며, 작지만 강한 강소농을 적극 육성하고, 이를 통하여 전국 최고의 농촌체험지역 강화 등 1억 원 이상의 소득농가 만들기에 전념할 계획임.
- 친환경농업 3차 5개년계획이 마무리되는 2015년에는 친환경농산물 최고의 신뢰도를 확보하고, 차별화된 농촌어메니티 자원을 제공하며, 농촌생활의 만족도를 크게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또한 농업중심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돈 버는 친환경농업을 이룩하여 대한민국 최고의 친환경농업도시인 양평으로 발전할 전망임.

1.1.2. 울진 로하스농업특구

○ 친환경농업을 지역발전의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

- 울진은 친환경농업을 통한 녹색·생태관광 기반을 조성하고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모델 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2005년「울진 세계 친환경 농업엑스포」를 개최한 바 있음. 이를 토대로 친환경농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재도약의 전기를 마련하고자 2006년 6월 지역특구로 지정됨.
- 울진은 친환경농업의 중요성을 오래전부터 인식하고 녹색 생태관광기반을 조성하여 도·농 상생의 모범적 모델을 구축 운영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산물의 판로 개척에 기여하고 WTO, FTA등 농업의 국제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농업을 식량산업에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생명산업으로 전환하는데 주력함.
- 특히 정부공공비축미물량 감소로 판로에 애로를 격고 있는 지자체와는 달리 친환경 벼 생산으로 농가가 희망하는 전량을 판매함으로써 친환경농업을 지역발전 동력산업으로 육성함.
- 로하스농업특구 계획에 따라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총 460억 원을 투입하여 1,401.7만㎡의 특구지역 내에 친환경 농업기반 인프라 구축사업 등 4개의 특화사업을 추진하였음.
- 2011년부터 2015년까지 646억 원을 추가로 투입하여 고품질안전농산물을 생산하여 국민건강에 기여는 동시에 지역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함. 이러한 특화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농지법 특례 등 모두 4건의 규제특례를 적용토록 하고 있음.

○ 친환경 관련 특화사업의 추진

- 울진군은 친환경농업을 미래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음. 로하스농업특구 지정 후 친환경농법으로 재배한 "울진생토미"가 대한민국 최초로 곡류부문 LOHAS인증을 받았으며, 일반미보다 20%이상 가격을 더 받는 등 친환경농업으로 농가소득증대는 물론 환경적 측면에서도 크게 기여하고 있음.

○ 대한민국 로하스인증 마크 획득

- 신청품목 :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24개 친환경농산물에 대해 로하스인증 마크를 부착함[5].

5) 생토미, 쌈채, 감자, 고구마, 고추, 토마토, 매실, 자광찰벼, 딸기, 미나리, 건고추, 시금치,

- 친환경벼 "생토미"는 행정의 기술지도로 인한 상품의 신뢰성 제고와 친환경 실천 농업인들의 양심농업으로 재배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믿고 구매하며 대형 유통업체를 통해 전국 소비자들에게 공급됨. 2009년에는 청와대에 입성하여 밥 맛좋은 쌀로 명성을 얻었음. 또한 경상북도가 선정한 6개 브랜드 쌀에 선정되어 명품 쌀로 인정받음.
- 친환경농산물 유통업체 "샘초롱"과 건고추를 계약재배하여 전량 판매하였음. 딸기, 쌈채류, 미나리 등 친환경농산물은 수요가 많아 공급이 미치지 못할 정도로 소비자들이 선호함.
- 로하스농업특구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키토산 한우생산 사업은 2008년 2월 28일 특허청으로부터 "우리진 키토산한우" 상표 등록을 받았음. 울진군의 특산물인 대게, 홍게 껍질에서 추출한 영양학적 사료공급으로 차별화된 브랜드를 구축하고 특색있는 한우고기를 생산함.
- 친환경농업! 자연과 인간을 지키는 생명산업이라는 주제로 2005, 2009년 2회에 걸친 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를 통해 명실상부한 친환경농업군으로 발돋움하였으며, 친환경농업을 선도함. 자연과 인간의 공생과 안전한 먹을거리 생산으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함. 울진의 친환경농산물 브랜드 가치가 더욱 상승하고 농업인 소득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1.1.3. 순천 친환경농업특구

○ 순천만 및 주암호 수변구역(2,190ha) 친환경농업 특구 지정
- 세계적으로 유명한 5대 연안습지이자 철새도래지인 순천만과 350만 광주·전남 도민의 상수원인 주암호 수변구역에 환경보전 및 수질을 개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8년 12월 친환경농업특구로 순천만과 주암호 수변구역(2,190ha)이 지정됨에 따라 친환경 농업기반 및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를 지원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됨.
- 특화사업의 주요 내용은 친환경농업기반시설구축, 친환경농산물 유통 및 판로강화, 친환경 홍보 및 브랜드강화, 친환경농산물 품질관리 강화 등 4가지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총 317억 원(국비 132, 도비 49, 시비 115, 민자21)의 사업 투자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음.

더덕, 양파, 야콘, 자두, 고사리, 엄나무, 블루베리, 밤, 발아쌀, 산복숭아액상차, 고로쇠수액, 생토현미 등 24개 친환경농산물임.

○ 농가소득 및 일자리 창출 등 가시적인 성과 달성

- 2011. 10월말 현재 특화사업비 재원조달 실적을 보면 총사업비 267.4억 원을 투입, 목표대비 1,493%이상 친환경농업 관련 사업으로 투자하여 친환경농업에 대한 크고 작은 성과를 거두었음.
- 일자리 창출은 2008년 305개소 5,733명에서 2011년 533개소 8,632명으로 174.7% 증가, 농가소득 증가율을 보면 2008년 2,825만원에서 2011년 3,450만원으로 122% 신장한 것으로 조사됨.
- 특구지정 전·후 무농약 이상 인증면적 증가율을 보면 2008년 1,739농가 1,588ha 대비 2011년 1,814농가 1,637ha이며, 이 중 유기농 인증의 경우 2009년 83ha에서 2011년 131ha로 157% 신장하였음.
- 특구지정 전·후의 화학비료 감축률은 2008년 304ha에서 2011년 252ha로 17% 감소하였음. ha당 합성농약사용량은 2008년 9.2kg에서 2011년 8.3kg로 10% 감소함.
- 특구지정 이후 주요 특화사업을 보면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거점산지유통센터(APC) 설치,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우리밀 가공공장 건립, 친환경농산물 브랜드「순천미인」육성 등이 있었음.
- 또 더 나아가 순천 친환경농업 특구는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공급확대 350개교 62천명, 순천대학교 IT기반 첨단농업센터 조성, 유기축산 시범단지 조성,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75개소 2,020ha, 1읍면동 1특품단지 지원(13품목), 순천만 갈대(향토)산업 육성, 친환경농업대학운영 등으로 친환경농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였음.
- 2011년도의 친환경농산물 수출 물량은 미국 등 12개국에 560톤(12품목)을 수출하여 16.4억 원의 소득을 올렸고, 특구지정 이후 2011년도 경제적 유발효과를 보면 7,018억 원으로 129%의 성장효과를 나타냄.

○ 저비용 고효율의 친환경농업 실현을 투자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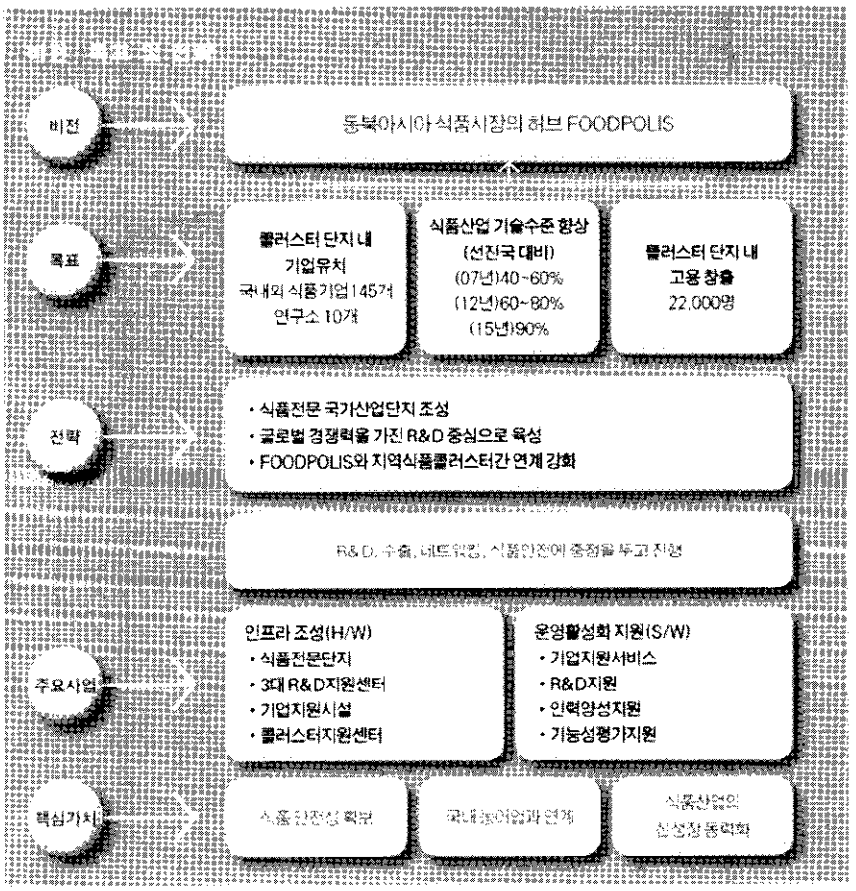
- 친환경농업 특구사업과 관련하여 친환경농업 5개년계획(2010~'15) 단위사업별 66건 1,730억 원을 투자하였음.
- 저비용 고효율의 농업 실현으로 농가 실질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지역특화사업, 인증비용 지원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2014년까지 농약사용 감축 30%, 화학비료 감축 22%, 인증면적 확대에 박차를 가할 계획임.

1.2.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개요

○ 국가클러스터는 동북아 식품시장의 허브를 목표로 전북 익산시 일원에 조성 중임. 전북 익산은 서해안 고속도로, 호남 고속도로, 익산·포항간 고속도로, 익산·광양간 고속도로 등 4개 고속도로가 만나는 교통의 요지임. 2010년 KTX 복선화로 서울과의 이동시간이 68분으로 줄어들었고, 주변에 군산공항과 광주공항 등이 있음.

- 1단계 사업으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총사업비 5,533억 원을 투입하여 2,390천m^2의 규모로 조성하며, 주거시설, 상업시설, 연구기관, 문화, 주거공간이 어우러진 명품 클러스터로 조성되어 최적의 기업환경을 제공하게 됨.
- 1단계 사업의 1차 연도인 2010년에는 단지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2011년에는 단지를 착공하였음. 2012년부터 단지를 분양하고 있고, 2013년 단지와 H/W, 기업공장 등의 준공이 완료되면 2014년부터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이 시작됨.

그림 5-1.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의 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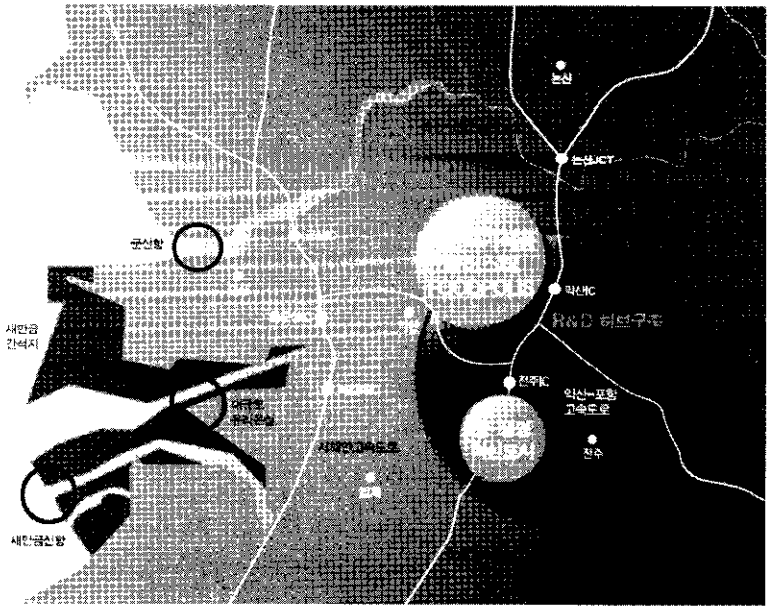


자료: 푸드폴리스

○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의 특징

- 자연 친화적인 일체형 산업단지
  - 전라북도 익산시 일원에 조성되는 FOODPOLIS는 필수 기능시설 중심으로 설계된 식품전문 국가산업단지임. 이 단지는 자연 친화적인 설계로 식품산업단지의 가치를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농업의 생태적 안전성과 식품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음.
  - 또한 자족도시 형태의 맞춤형, 일체형 산업단지로서 단지 내에 주거, 상업, 공업, 농업 등의 다양한 시설이 입주할 예정임.
  - 생산시설, 연구시설, 기업 지원시설(식품품질안전지원센터, 식품기능성평가센터, 식품패키징지원센터, 임대형 공장, 시범공장, 클러스터지원센터), 식품관련기업, 상업시설, 주거시설 등이 입주하여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함.
- 새만금 간척지와 연계하여 생산, 가공, 물류, R&D 인프라가 완성되어 최상의 입지를 제공함.
  - FOODPOLIS가 조성되는 전라북도는 전통적인 곡창지대로 식재료가 풍부하고, 이미 식품관련기업과 연구소가 상당수 건립되어 있음.
  - 향후 '새만금 간척지'와 연계되어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의 국내 및 해외 원료공급과 제품 수출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게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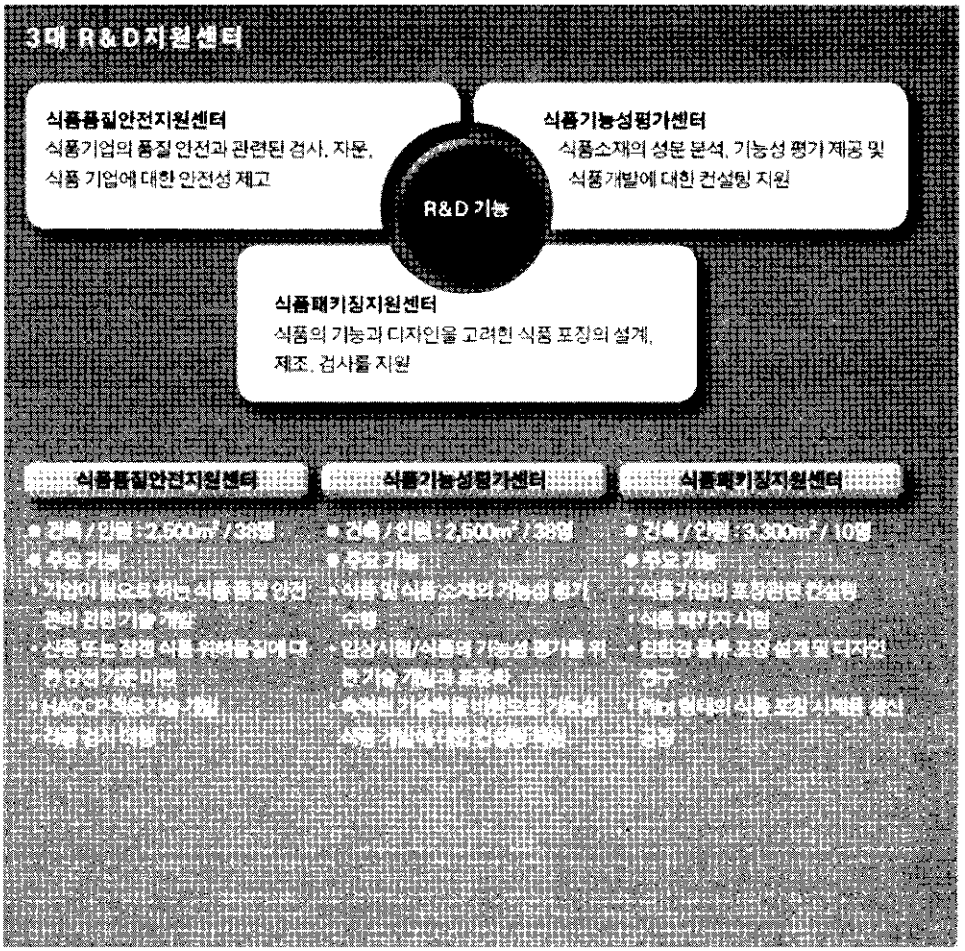
그림 5-2.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입지



자료: 푸드폴리스

- 3대 R&D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식품개발을 통합적으로 지원.
  • FOODPOLIS는 새로운 식품 발굴 연구에 중점을 둔 R&D 중심의 클러스터임. 식품품질안전지원센터, 식품기능성평가센터, 식품패키징지원센터의 3대 R&D 지원센터는 소비자 신뢰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식품품질안전지원과 식품기능성평가지원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포장 등 다양한 마케팅지원을 통해 수출경쟁력 향상에 기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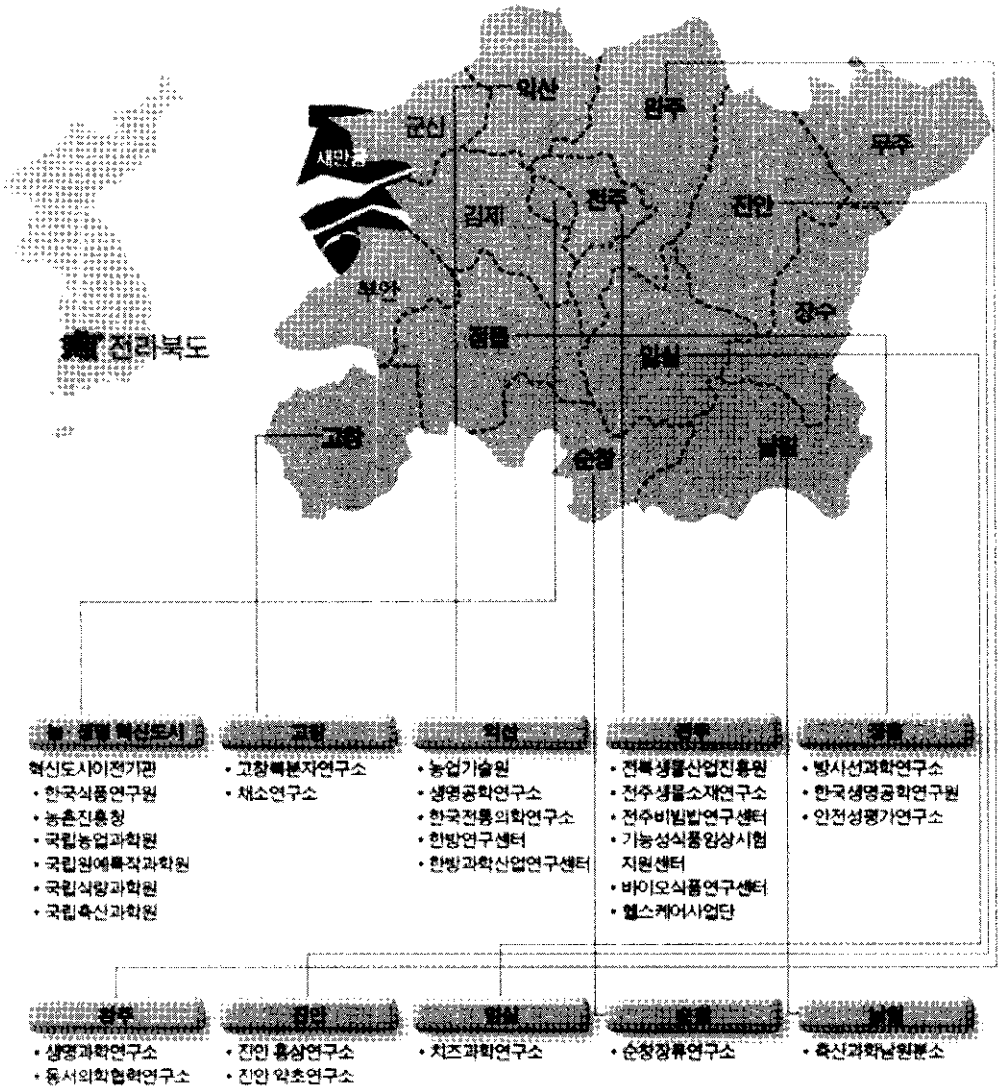
그림 5-3.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의 3대 R&D 지원센터의 역할 및 기능



자료: 푸드폴리스

- 인근지역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기업지원
  • 클러스터 인근지역으로 국책 연구기관들이 이전하고, 해외 R&D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핵심 R&D지원센터를 새롭게 건립해 R&D 기지를 구축함.
  • 이를 통해 강력한 연구개발 기반을 마련하고 식품기업과 함께 경쟁력 있는 식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기업 지원을 제공함.

그림 5-4.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인근 연구기관 입지도



자료: 푸드폴리스

- 체계적인 입주기업 지원 시스템
  - 식품기업 이외에 물류, 전처리, 마케팅, 포장 등 식품관련 기업 및 민간 연구소를 적극 유치하여 익산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 기반을 마련함.
  - 전통발효식품, 건강기능성식품, 유기가공식품, 글로벌기호식품 등을 집중육성 품목으로 설정하여 지원함.
  - 총괄기관인 클러스터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클러스터 내·외의 혁신 주체인 산·학·연 연계와 공동연구개발 장비활용 교육훈련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함. 또한 정보 교류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세미나와 포럼 등을 운영함.

2. 해외 사례

2.1. 프랑스의 론-알프스(Rhone-Alpes) 유기농 클러스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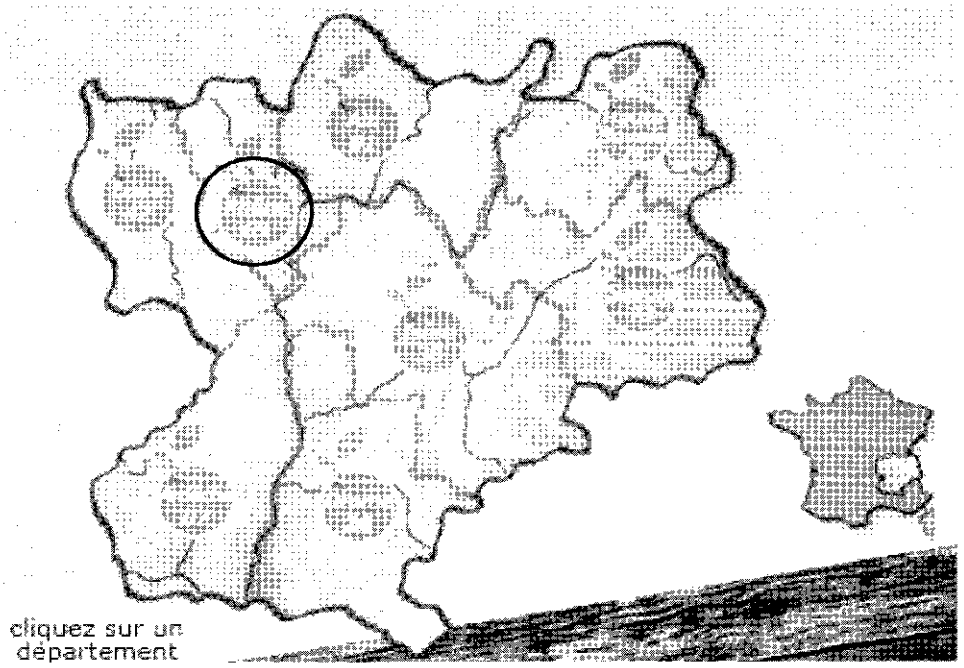
○ 론-알프스 지역의 특성

- 2011년 기준으로 론-알프스 지역의 유기농 재배면적은 75,813ha로 론 알프지 총면적의 5%에 해당함. 2009년 이 지역의 유기농가수는 2,300호에 달하며, 프랑스 유기농과일 생산량의 23%, 향료식물, 약초의 43%, 젖산양 생산의 20%, 꿀 생산의 20%를 차지하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농산물 주산지역임.

○ 론-알프스 유기농 클러스터의 목표

- 론-알프스 유기농 클러스터는 비영리기관으로 유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05년 조성되었음. 유기농 관련부문으로는 식품, 화장품, 섬유제품 등이 있음.
- 론-알프스 지역은 프랑스 유기농업의 선도지역으로 생산, 가공, 무역에 있어서 중요한 지역임. 유기농 클러스터를 통하여 혁신과 마케팅, 수출 관련 정보제공, 교육훈련 및 관련 기업을 집중시키는 역할을 함.

그림 5-5. 론-알프스 유기농 클러스터의 위치



자료: 론-알프스 유기농클러스터 홈페이지(www.organics-cluster.fr)

○ 론-알프스 유기농 클러스터의 현황

- 2011년 현재 유기농업인 2,300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재배면적은 75,813ha임.
- 2009년 기준 982개 유기 식품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이는 프랑스 유기가공업체의 17%에 해당함. 2007년 대비 약 30%가 늘어난 것임. 프랑스 유기소매상의 29%인 308개가 입주해 있으며, 2007~2009년 동안 5% 증가하였음.
- 유기화장품 분야의 45개 기업 및 연구소가 근무하고 있음. 유기화장품 부문 역시 2010년 10% 성장하여 매우 빠른 성장세를 보였음.
- 2009년 기준으로 유기 유통업체수는 308개로, 프랑스 유기 유통업체의 15.4%에 해당하며, 2007년 대비 5% 증가하였음. 클러스터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들은 주로 유기농식품, 유기화장품, 유기섬유, 생태적가정도구 등을 생산하고 있음.
- 프랑스 유기 과채류 생산의 23%, 향신용 · 의약용 식물 생산의 43%, 유기 유산양(milk goat) 생산과 유기 꿀 생산의 20%가 각각 론-알프스 유기농클러스트에서 생산되고 있음.

○ 론-알프스 유기농 클러스터는 교육과 연구, 산업의 중심기관으로 역할을 함.

- 9개 대학과 40개의 그랑제코르(grandes ecoles, 특수전문학교)에서 23만명 이상의 학생들이 수학 중에 있음.
- 프랑스와 유럽의 연구기관 15개와 650개의 실험실, 3만명의 과학자들이 있음.

○ 론-알프스 유기농 클러스터는 건전하고 풍요로운 제3의 부문임.

- 론-알프스 지역은 프랑스 제2의 지역으로 GRDP가 유럽에서 7번째로 높음.
- 청정기술, 생명과학, 나노기술, 창의적 산업, 하도급 산업이 주요부문임.

○ 지역 경제발전과 연구, 혁신을 자극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함. 자극과 조정을 통해 혁신을 유발하고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음.

- 네트워킹과 파트너십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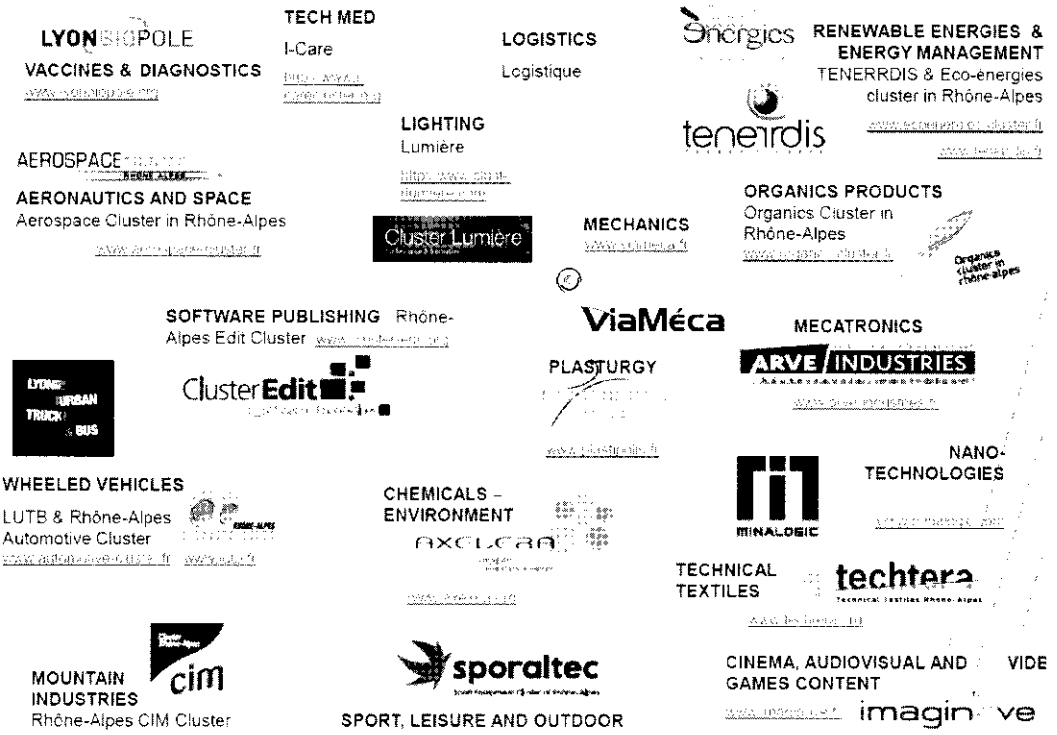
○ 지역 클러스터 정책은 혁신과 기업가정신을 유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음.

- R&D, 교육, 훈련, 경제발전 등과 관련된 모든 참여자 그룹은 상호 연계하여 협력관계와 네트워킹을 구축함.
- 서로 다른 부문 간의 교차수정(cross fertilization)을 조직화 함.
- 전략적 비전, 인적자원 및 기술 관리, 혁신, 국제개발 등 사업성과에 대한 모든

부문을 포함함.

- 중소기업의 성장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경제성장·고용 등 지역경제활동을 향상시킴.

그림 5-6. 론-알프스 유기농 클러스터 입주기업



자료: 론-알프스 클러스터 정책 발표자료

○ 지식지역(Regions of Knowledge, ROK) 프로젝트의 개발을 장려함.

- 클러스터의 국제적인 발전이 클러스터의 우선적인 추진사항임. 이에 따라 "inter-clustering" 행동을 지지하며, 론-알프스 인터내셔널(Enterprise Rhone-Alpes international, ERAI)을 설립하고, 혁신개발 지역기관(Regional Agency for Innovation and Development)을 통해 유럽 파트너십을 추진 및 관리함.
- 기존의 유럽협력 및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활용함.
- 유럽 프로젝트에 참여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함.
- 이러한 정책으로 인하여 2개의 ROK 프로젝트가 시행되었음. 재생에너지 부문에 5개 협력사가 참가한 PITER 프로젝트와 플라스틱 제조 산업의 15개 기업이 참가한 CLUSTERPLAST 프로젝트가 실시되었으며, 각각 2010년 13월과 6월에 종료되었음.

그림 5-7. 론-알프스 유기농 클러스터 제품 예시

자료: 론-알프스 유기농클러스터 홈페이지(www.organics-cluster.fr)

2.2. 네덜란드 푸드밸리(Wageningen UR)

○ 푸드밸리 배경

- 네덜란드는 농식품 부문에서 세계 제2위의 수출국으로 각종 농산품 및 식품연구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 네덜란드는 농식품 생산액이 전체 GNP의 10% 수준으로 매우 높은 편임.
- 네덜란드에서도 동 네덜란드 지역은 농식품 부문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 와게닝겐은 네덜란드의 수도 암스테르담에서 남동쪽으로 85km 떨어진 소도시로 전통적으로 축산업을 중심으로 한 농업이 발달한 지역임. 이에 따라 농업관련 인력양성 및 연구 인프라가 일찍부터 구축되었음.

○ 푸드밸리 개황

- 2003년 Wageningen, Ede, Weenendaal, Rhenen의 4개시, 1개 광역지자체(Province of Gelderland), 와게닝겐 대학·연구센터, 지역 개발청, 지역은행(Robo 은행) 등 약 1,440개 식품관련 업체와 70 여개의 식품과학 업체, 20개의 농식품 연구기관이 활동하고 있음. 총 종사자는 약 20만 명 정도임.
- 푸드밸리에는 H.J. Heinz, Nestle, Campina, Mead Johnson, Sobel, Heineken, Givaudan, Grolsch, Monsanto, Abbott Laboratories, Numico Research 및 Royal Friesland Foods 등의 세계적인 식품 기업들이 진출해 있음.
- 입주기업들은 와게닝겐 대학·연구센터, NIZO 식품연구소, TNO 식품영양연구소, Rikilt 식품 안전 연구소, 국제 식물 연구소, 농업 기술식품혁신연구소, 바이오시스템 유전학 센터 및 영양유전학 혁신센터 등으로 구성된 세계적으로 유명한 식품연구기관들과 협력하고 있음.

표 5-1. 네덜란드 푸드밸리 클러스터의 개요 및 시사점

구 분	내 용
운영주체	푸드밸리 재단
주요역할	• 산·관·학 네트워킹 • 창업 컨설팅 • 경영지원 • 투자자 모집
기업유치	중앙정부에서 담당하며 별도의 인센티브 제도는 없음
시사점	• 클러스터 지원센터의 장기적 운영계획 필요 • 네트워킹 강화 • 기업유치 업무 분담 명확화

자료: 이정희 외 9명(2010)

○ 푸드밸리 클러스터의 주요목적

- 주요목적은 신사업의 창출, 연구능력의 개발, 기존 기업에 대한 자극이며, 추가적으로 일자리 창출, 지역 마케팅, 벤처케피탈의 유입 등을 들 수 있음.
- 푸드밸리를 위하여 두 가지 방향에서 접근하고 있음. 첫째는 지속적인 현장지원을 위한 계획이며, 둘째는 다양한 특별 목표에 대한 작업을 수행하는 것임. 특별목표로는 혁신프로젝트의 촉진, 신경제활동의 촉진, 푸드밸리 지역의 이미지 강화, 지원부서의 강화가 있음.
- 푸드밸리 클러스터는 지방정부와 국가정부로부터 모두 지원을 받고 있는 네덜란드의 뜨거운 감자임. 따라서 클러스트의 목적과 지역의 목적을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고, 클러스터 참여자들은 특별히 지역과 푸드밸리를 구분하지는 않음.

○ 푸드밸리의 특징

- 클러스터 근무자의 절반정도가 연구소의 R&D 부문에서 근무함. 따라서 R&D 중심의 지식기반 클러스터라고 할 수 있음. 특히 바이오 나노기술, 기능성식품, 지역사회 전체의 보건과 국민 개개인의 보건을 위한 식품 및 영양 유전학, 식품 및 영양과학, 식물재배 및 묘목 기술, 식물성 기름과 지방(정제), 식품안전, 폐수처리, 독특한 낙농업 및 낙농과학, 온실기술, 화초 재배 및 유통 등에 강점이 있음.
- 대기업과 소기업의 산업적 중심은 연합을 통한 식품 및 원료의 생산에 있음.
- 푸드밸리 내에서 자금지원의 이용가능성은 충분함. 클러스터에서 정부자금은 가장 이용하기 쉬우며 동시에 중요함. 이는 식품산업이 네덜란드에서 중요한 산업이라는 점을 말해주고 있음.
- 또한 네덜란드 푸르밸리에 투자하고 있는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의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중개 및 기술이전 프로그램도 일반화되어 있음.
- 관련산업의 기관들이 집약되어 있어 네트워크 효과를 통한 상호간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있음.
- 푸드밸리의 관리 및 운영은 푸드밸리 재단(Food Valley Foundation)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재단은 겔더란트 주정부, 와게닝겐 시정부, 동네덜란드 지역개발청(Ooost nv)의 3개 기관이 공동으로 설립하였음. 푸드밸리재단은 대학과 업체간의 네트워크 형성과 다양한 요구를 조정 해주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며 대학에서 개발된 기술을 기초로 창업을 지원하고 중소식품업체의 기술·경영면에서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역할을 함. 푸드밸리재단의 주요 업무는 산학협력지원, 외국인투자기업지원, 창업지원, R&D 사업지원, 마케팅 및

홍보, 네트워크 사업지원 등임(이철우 외, 2009).

- 한편, 푸드밸리의 네트워크 협력체인 푸드밸리소사이어티 활동을 통해 기업들은 필요한 각종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고, 요구사항은 대학이나 정부에 전달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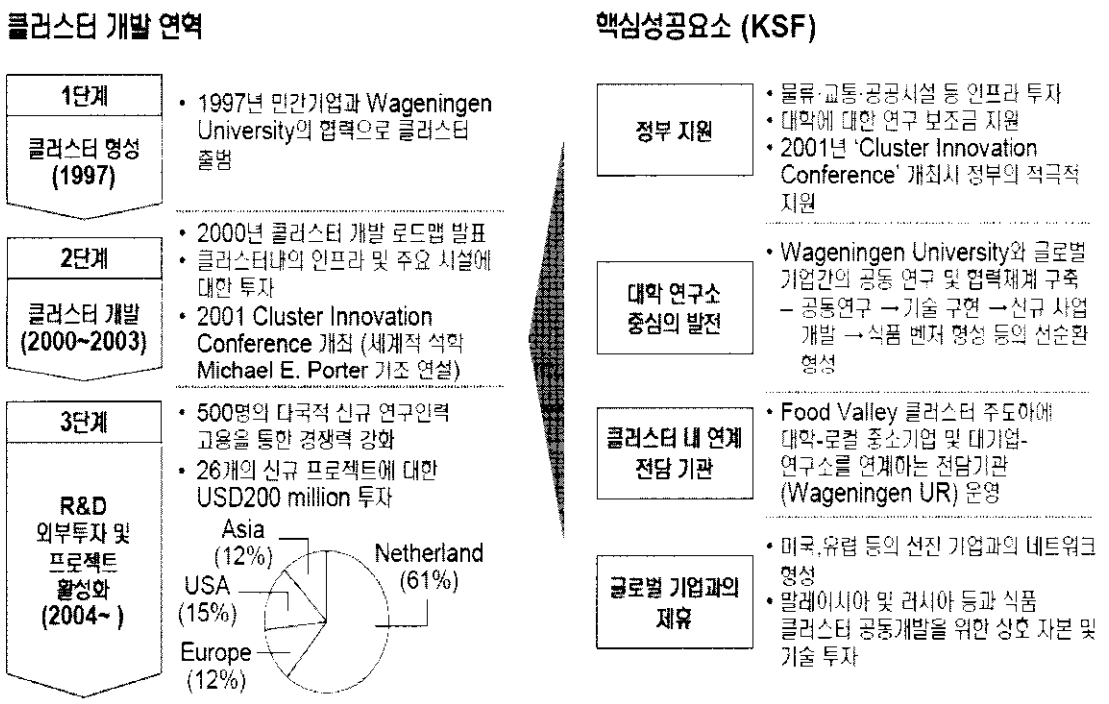
○ 푸드밸리의 개발 연혁 및 성공 요인

- 네덜란드 푸드밸리는 WURC(연구)·정부(정책)·산업체간 지식네크워크 형성과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바탕으로 한 연계·협력이 주요 성공요인이라 할 수 있음.

○ 푸드밸리사무소는 이 지역의 독특한 장점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구축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음.

- 혁신과 신사업을 육성, 기업가 정신과 회사의 분리신설을 촉진, 창업 지원 센터와 과학 공원과 같은 시설을 개발, 과학계와 산업계로 구성되는 네트워크를 구축, 기업과 연구소 설립을 촉진

그림 5-8. 네덜란드 푸드밸리의 개발 연혁 및 성공요인



자료: 김정욱, 김석영(2009)

2.3. 덴마크·스웨덴 경계지역의 외레순 클러스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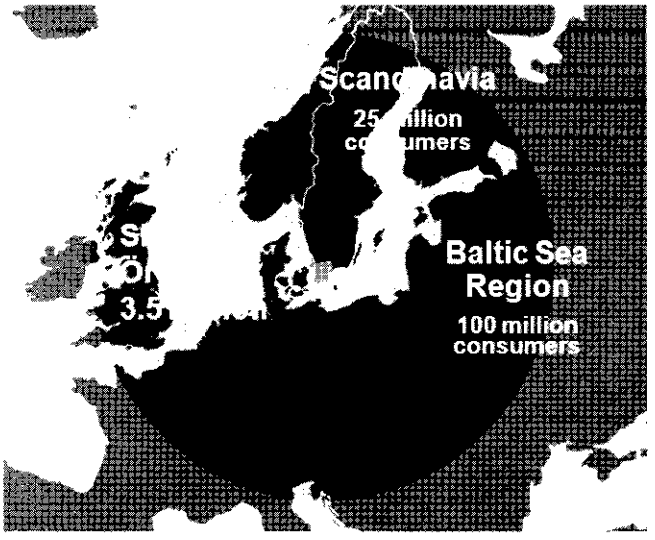
○ 외레순 클러스터 배경

- 덴마크는 1980년대 후반 EU로의 통합을 앞두고 시장이 완전 개방되는 상황에서 실업률은 16%에 이를 정도로 극심한 경제위기를 겪었음. 덴마크 정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영세기업과 연구기관을 연계하는 네트워킹 정책을 시도함.
- 1989년 덴마크 무역산업국은 '전략 1992 네트워크 계획'으로 2,500만 달러를 투입하였는데, 이 가운데 낙농업으로 유명한 외레순(Oresund) 지역에 농민들과 식품업체들이 집결하여 거대한 식품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였음.
- 스웨덴 역시 EU 가입에 따른 시장개방과 이에 대한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었음. 동시에 고품질 식품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식품산업의 확대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이러한 상황에서 스웨덴 정부는 위기를 극복하고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한 대응책으로 스웨덴 스케네 지역 대학의 우수한 인력을 활용해 고품질 제품을 생산하는 방향으로 식품산업을 전환하려 함.

○ 외레순 클러스터 개황

- 외레순 클러스터는 약 1억명이 살고 있는 발틱해의 중앙에 위치하고, 덴마크 동부 코펜하겐 지역과 스웨덴 서부 갈뫼지역의 경계를 이루는 외레순 해협의 양안지역 약 20,900㎢에 형성되어 있음. 외레순은 스웨덴과 덴마크 사이에 있는 해협 이름으로 행정구역상으로는 스웨덴 스캐네(Skane) 지역과 덴마크 코펜하겐, 셀란 지역을 포함함.

그림 5-9. 스웨덴 외레순 지역의 위치



- 원재료를 공급하는 농업종사자, R&D기업, 제품화를 지원하는 공정 및 포장개발기업, 14개 대학과 6개 전문연구기관(룬트대학, 덴마크기술대학, 코펜하겐대학, 스웨덴농업대학, 기능성식품과학센터, 유기농식품연구센터 및 각 기업 연구개발센터) 및 유니레버, 유제품 업체 크리스찬 한센, 칼스버그, 첨가물 분야 데니스코, 효소개발업체 노보자임 등 80여 대기업을 포함한 약 1천개 식품제조기업이 활동하고 있음.

○ 외레순 푸드네트워크

- 외레순 푸드네트워크는 외레순 과학기술협의회의 산하기관으로 설립되었음. EU정부의 관심에 의해 출발하였으며, EU의 정책적 자금으로 대학과 민간기업이 주도하여 구성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민간운영임.
- 2005년까지 주로 EU의 지역정책 자금으로 예산을 충당하였으며 덴마크와 스웨덴의 중앙 및 3개 지방정부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아왔음. 2005년 이후 클러스터 회원들의 회비와 기타 연구용역 사업이익으로 예산을 마련하고 있음.
- 외레순 푸드 네트워크는 의사결정 기구로 이사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연구관련 기관을 핵심으로 이사회를 구성하였으며 네트워킹 형성에 중점을 두고 있음. 이사는 총 13명으로 2008년 현재 대학 및 연구소 관련 6명, 정부기관 4명, 민간업체 3명으로 구성되며 이사의 2/3는 외레순 식품클러스터 회원 중에 임명하고 1/3은 외레순 과학기술협의회에서 임명하고 있음.
- 외레순 푸드네트워크의 직원은 덴마크 6명, 스웨덴 3명으로 총 9명임. 직책에 따라 관리이사 1명, 프로젝트 책임자 3명, 코디네이터 3명, 프로젝트 보조원1명, 커뮤니케이션 컨설턴트 1명으로 구성됨.
- 외레순 푸드네트워크의 핵심 역할은 연구소, 기업, 학계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으로 식품개발에서부터 기술의 실용화, 기술개발의 활성화를 주도하는 것임.
- 농업, 연구소, 대학, 기업 간 네트워킹, 전 지역을 상대로 식품기술개발을 독려하거나 개발된 식품기술을 실용화함.
- 원재료를 공급하는 농업 종사자와 현지 연구소 또는 대학의 연구 개발자들을 연계시켜 개술 개발을 활성화시킴.
- 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연구소, 기업, 학계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산·관·학의 의견을 수렴하여 협력적인 연구가 되도록 분위기를 조성함.
- 입주업체를 방문하고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해결하거나 회원사 간의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함.
- 연구소들의 연구지원을 위한 자금 보조 및 벤처기업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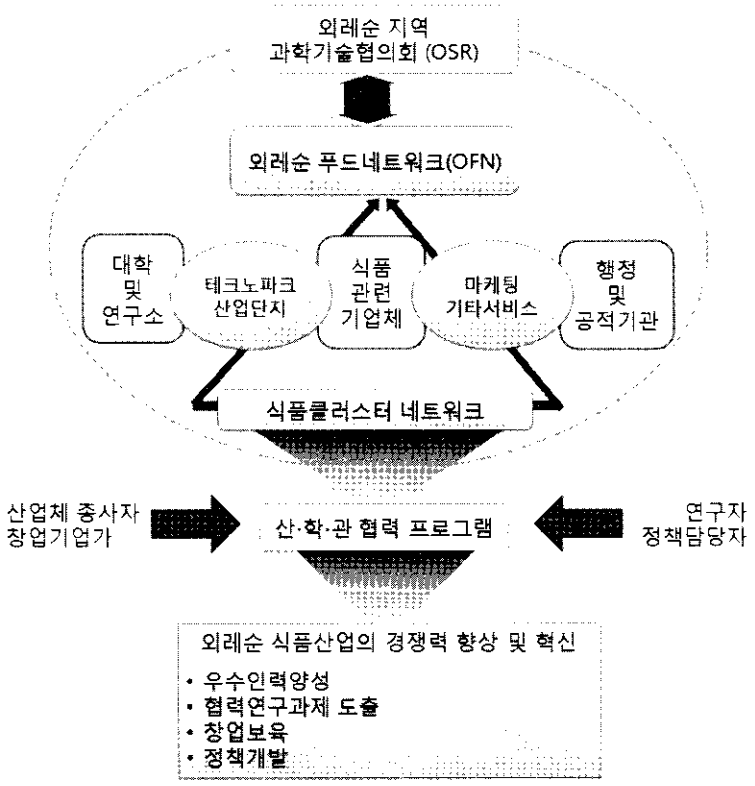
으며, 입주 기업에 대한 판매 및 마케팅 활동 지원은 미미한 수준임.

- 외레순 지역에는 현재 약 400여 기업체가 운영 중에 있으며, IDEON 과학 단지에 270여 업체가 입주 중임.

○ 경제적 파급효과

- 식품분야 매출 480억 달러(덴마크와 스웨덴 양국 GDP의 11%)이며, 식품산업 부문 일자리 창출효과 6만 1000개, 물류 · IT · 교육 등 간접고용인원을 합하면 약 23만개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음.

그림 5-10. 외레순 식품클러스터의 산 · 학 · 관 협력 프로그램



자료: 김태연, 이철우, 이종호(2009)

○ 외레순 클러스터의 특징 및 성공요인

- 외레순 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산업은 식품과 의료분야이며,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세계적 수준의 식품-바이오 기술연구가 수행되고 있음.
- 스케네 지방의 산 · 학 · 관 협력체계를 중심으로 하는 클러스터를 형성하였으

나 주로 지방정부와 대학의 협력 프로젝트로 진행되었고,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은 별도로 시행되지 않았음.

- 외레순 클러스터는 사회적 메가트렌드를 다루는 생산과 지속가능성, 식품과 보건, 요리법과 확산의 세 가지 전략적 중점분야 내에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음.
- 이 지역의 식품연구 체계는 기초분야 연구부터 개발된 기술을 적용하여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단계까지 협력프로그램을 형성하고, 주로 산·학연구 프로그램을 통하여 이루어짐.
- 외레순 클러스터의 네트워크는 지식교환과 연구협력, 개발지원, 혁신과 아이디어 개발을 위한 포럼을 운영하고 있음.
- 외레순 지역의 통합과 성장을 위한 협의체적 기구로서 외레순 지역 과학기술협의회(Oresund Science Region, OSR)을 설립하여, 인근지역의 행정기관, 민간업체, 클러스터 지원기관 및 기타 연구기관들과의 협력을 주도함. 연구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산학협력을 유도함.
- 양호한 입지조건과 우수한 물류 인프라를 바탕으로 연구능력과 이를 연결하는 네트워킹 및 경영마인드를 가진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회사의 설립부터 기술 및 제품 개발, 고용 등에 대한 효율적 지원 시스템 확립하였음.

표 5-2. 외레순 클러스터의 주요 역할 및 시사점

구 분	내 용
운영주체	외레순 푸드 네트워크
주요역할	• 산·관·학 네트워킹 • 개발기술의 실용화 • 기술개발 지원 • 기술개발을 위한 자금조달 • 업체의 애로사항 해결 지원
기업유치	기업유치 업무 부재
시사점	• 클러스터의 성공을 위한 장기적 플랜 필요 • 클러스터 지원센터의 역할 중요 • 기업유치 업무를 지원센터가 할 것인지 검토 필요

자료: 이정희 외 9명(2010)

2.4. 영국의 요크셔-험버 클러스터

○ 배경

- 영국 중부지방의 요크셔-험버 지역은 북요크셔 · 서요크셔 · 남요크셔와 험버로 구성된 지역으로 영국의 남북 고속도로(M1)와 동서 고속도로(M62)가 교차하며, 북해연안에 접해 있으면서 험버강이 흐르는 교통의 요지임. 또한 리즈 국제공항, 험버사이드 공항, 셰필드 공항 등이 근거리에 있어 항공운송도 용이함. 이와 같은 편리한 운송여건으로 물류비용을 상당히 절약할 수 있음.
- 편리한 운송망을 바탕으로 농업, 식품, 제조업, 운송업, 수산업 등 다양한 산업이 활동하고 있음. 특히 식품제조업, 식품도소매업이 많음.
- 기본적으로 지역 식품산업이 소비자 및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여 고품질 기능성 식품을 생산함으로써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목적으로 클러스터를 정책화하였음. 이를 위한 방안으로 전문인력 확보와 시설확충에 중점을 둠.

○ 요크셔-험버 클러스터의 개황

- 요크셔-험버지역은 농업, 식품, 제조업, 운송업, 수산업 등 다양한 산업이 운영되는 복합산업 지역임. 이 지역 식음료산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인원은 약 20만명에 이르며 농업, 식품제조업, 도소매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음. 총 사업체는 15,000여 개이고, 이 중 1,100여 개가 제조업 분야임. 제조업체 가운데 880여 개 업체가 근로자수 50명 미만의 소규모 업체임. 지역의 대학 중에는 총 8개의 대학이 식품관련 연구에 참여하고 있으며 중등교육기관 또는 직업훈련기관에서도 호텔경영, 식품기술, 농업 및 토지관리 기술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음.
- 2005년도 요크셔-험버 지역의 음식료품 총생산액은 약 27억 파운드에 달하며 이는 지역총생산액(GRDP)의 4%임. 요크셔-험버 지역의 식품 수출액은 영국 전체 식품수출액의 4.5%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출 품목 중 상위 10품목이 전체 수출액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경제적 파급효과

- 지역개발청의 주도 하에 각종 지원을 통하여 2005년 총 41개의 신규기업이 창업하였음. 765개의 기업을 지원하여 신규 일자리 497개를 창출하고, 기존 일자리 427개를 유지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 요크셔-험버 클러스터의 특징 및 성공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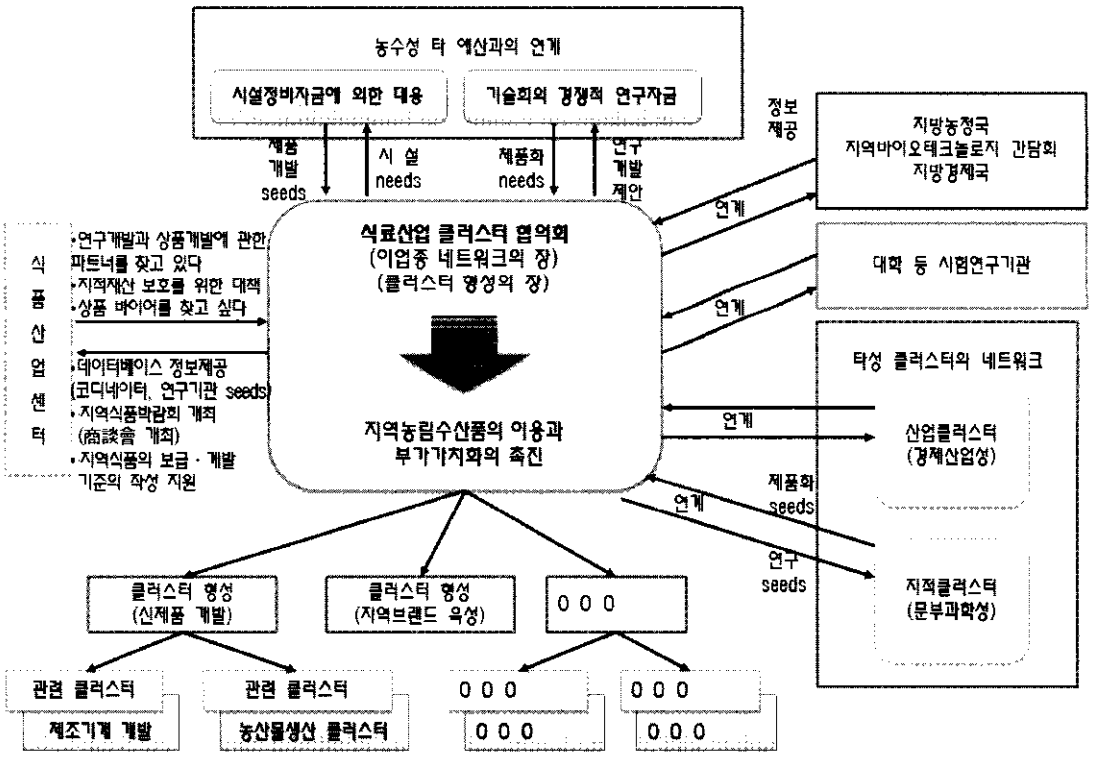
- 영국은 네덜란드나 스웨덴과는 달리 식품클러스터 정책을 지역식품산업 진흥 정책 하에서 추진하고 있음.
- 우선, 식품산업 진흥정책을 지역개발정책의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개발의 기준이 되는 지역적 범위에서 지역푸드그룹(Regional Food Group)을 설립하고 이 기관을 통하여 각종 지역식품산업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따라서 지역식품산업의 현황을 감안한 차별적인 지역적 정책이 실시되고 있음.
- 둘째로는 식품산업의 범위 내에 농업활동을 포함하여 식품산업 발전이 지역농업의 안정 및 발전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음. 식품가공 및 제조업이 발달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농장 내 사업다각화를 지원하여 농산물 부가가치 제고 활동을 장려하고 있으며, 지역적 차원에서 홍보, 마케팅, 품질관리 및 인증을 하는 형태도 병행하고 있음. 영국 북동부 지역의 노섬브리아 라더(Northumbria Larder)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음.
- 셋째, 각 지역의 지역개발청(RDA)이 지역식품산업 진흥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임. 특히, 지역경제발전 전략 내에 식품산업 발전전략이 있어 다른 산업부문을 함께 고려하여 일관된 정책 시행체계를 갖추 있음. 또한 지역개발청이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인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어 필요한 사항을 시기 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음.
- 넷째, 전통적인 농업의 경쟁력, 식품산업의 활동, 운송의 편리성 등이 식품산업 클러스터 형성의 배경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임. 다시 말해서, 식품산업의 발전을 통하여서 전통적인 지역의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다섯째, 식품산업의 혁신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술연구기관과 산업체 간의 협력이라고 할 수 있음. 특히, 지역기관과 대학간의 연계를 통해서 연구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업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도움을 주고 있는 것임.
- 여섯째, 소규모 식품기업의 활동을 지원하거나 창업을 장려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시책이 시행되고 있다는 것임. 지역의 연구기관은 대기업에도 도움을 제공하지만 실제 정책사업에 의한 제도적 지원은 대부분 소규모 기업과 창업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임. 즉, 많은 소기업의 존재가 실제 식품산업 클러스터의 지속적 발전에 기반이 되고 있다는 것임.

2.5. 일본의 식료산업 클러스터

○ 식료산업 클러스터의 배경

- 일본 농림수산성은 식품산업과 농업을 하나로 이해하는 '식료산업(食料産業)'이라는 표현을 사용함. 본 농림수산성은 2005년부터 지역의 식품산업과 농업을 네트워크화하는 식료산업 클러스터를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 이에 따라 '식료산업 클러스터 전개사업'을 도입했으며, 그 후 각 현 단위에서 식료산업 클러스터협의회가 형성됨
- 가격경쟁이 심화되고 수입농산물이 점증하는 속에서 유통시스템의 합리화와 국산 푸드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산·학·관 협력으로 지역 식품산업과 농업의 네트워크를 도모하고 있음.
- 지역에서 식품산업이 고용과 부가가치 측면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식품산업과 농업을 하나의 식료산업으로서 네트워크화하는 식료산업 클러스터 전략을 구축하는 현(縣)이 빠르게 늘어났음.

그림 5-11. 일본 식료산업 클러스터 연계 구축 체계



자료: 이항구 외(2008).

<지바현 식품산업 클러스터>

○ 지바현의 현황

- 지바현의 면적은 약 5,157㎢(전국 28위), 인구는 약 600만명(전국 6위), 경제규모는 2006년 GDP기준 19조 2,465억 엔으로 일본 내 7번째 규모임.
- 지바현청은 클러스터와 별도로 산업용지 15개 지역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농업분야의 GDP 규모는 전국의 4위(2005년 기준 농업 출하액 4,161억 엔 규모)수준임. 나리타 국제공항은 일본 항공물류의 60%이상을 수송하고 있으며, 식료품 제조 출하액은 1조830억 엔으로 전국에서 6위 규모임.

○ 클러스터의 목적

- 지바 식품산업 클러스터는 식품산업 클러스터가 장기간 자연적으로 형성된 클러스터이기 때문에 지바현 전체에 폭넓게 분포하고 있으며, 다양한 기업이 있음.
- 여기에 기업과 대학연구소를 연계하여 생산성 향상 및 기술의 실용화를 도모하고자 클러스터 개념을 도입하였음.

○ 클러스터의 조성

- 지바현 산업진흥과가 2006년 6월 중장기 전략으로 "지바 신산업진흥전략"을 수립함에 따라 핵심산업 7개 분야를 지정하고 분야별 클러스터 계획을 수립하였음.
- 제조업, IT 전기 산업, 바이오 생명과학, 그린화학, 물류산업, 식품산업, 관광산업 클러스터가 있음. 각각 분야별 클러스터 협의회를 설치하였고, 현청 내의 관련부서에서 각각 관리하고 있음.

표 5-3. 지바현 클러스터의 개요 및 시사점

구 분	내 용
운영주체	재단법인 지바현 산업진흥센터
주요역할	• 신상품 개발에서 판매까지 업체에 사업지원 • 창업보육 지원 • 취직지원 서비스 • 업체에 경영지도 서비스 제공 • 벤처기업 창업 및 육성
기업유치	지바현청 내 상공노동부 기업입지과가 담당
시사점	• 기업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유관기관과의 상호협력으로 효과적인 기업유치 활동 •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자 협의회 구성

자료: 이정희 외 9명(2010)

2.6. 미국의 나파밸리(Napa Valley)

○ 나파밸리의 배경

- 나파밸리는 미국 서부 샌프란시스코에서 남쪽으로 약 2시간 정도의 거리에 있는 나파 카운티에 위치한 대규모 와인생산지임. 1990년대 중반 포도수확 사업이 과실 관련 질병으로 큰 손실을 겪은 후 부가가치가 높은 와인제조의 포트폴리오 비중을 높였음.

○ 나파밸리의 개황

- 나파밸리는 글로벌 와인 브랜드인 Mondavi, Beringer를 보유하고 있으며, 약 1,500개 이상의 포도원을 포함하고 있음.
- 매출은 520억불로 지역총생산(GRDP)의 3.2% 수준이며, 수출량은 약 10% 수준임. 약 309,000명이 와인 및 관련 산업에 종사하고 있음.

○ 특징 및 성공요인

- 샌프란시스코와 인접한 지리적인 특성을 이용하여 미국을 대표하는 와인 생산지로 발전하였으며, 포도 가공업체와 농촌테마 관광산업을 밀접하게 연계한 클러스터임.
- 주 정부기관의 행정지원, 연구 및 교육 등 적극적인 지원정책으로 와인 제조분야에서 미국식 전통과 숙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 UC Davis가 기계재배, 관개시설 현대화, 신종포도종자 등 기술개발 및 혁신의 중심역할을 수행하며, 효율적인 연구체계를 구축함.
- 젊은 기업가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와인의 품질개선을 위한 신기술 적용을 유도함.
- 주 정부기관의 지원 아래 클러스터 구성 주체 간의 역할 분담이 확실하며, 특히 생산자단체가 주도하여 묘목, 재배 방법, 수확 기계 및 관개 기술 등 포도재배농가에 필요한 현장애로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음.
- 미국의 나파밸리는 바이오 농법, 유기재배 등의 친환경농법의 적용을 시행하고 있음. 와인가공 등의 전방산업을 비롯하여 관광산업 및 식품클러스터와의 연계가 활발함. 연간 1,900만명이상의 관광객들이 방문하며, 20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였음.

3. 국내외 관련 사례의 시사점

○ 국내 친환경농업 특구로 양평, 울진, 순천 등은 특구 지정을 통해 친환경농업 발전의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함. 그러나 이들 세 지역은 유기농산업으로는 특화되어있지 않고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확대 등 생산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익산에 조성되고 있는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경우, 식품안전성 확보, 국내 농어업과의 연계, 식품산업의 신성장동력화라는 3대 핵심가치를 추구하여 클러스터 단지내 기업유치, 고용창출과 동시에 식품산업 기술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동북아시아 식품시장의 허브로 발전하는 것을 비전으로 하고 있음.

- 충청북도 유기농푸드밸리 역시 식품산업을 다루기 때문에 무엇보다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지역 유기농업과의 연계가 필수적으로 요구됨. 유기식품은 또한 유기라는 프리미엄에 대한 신뢰성이 중요하므로 신뢰성을 유지해나가려는 노력이 중요함. 신뢰성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원료인 유기농산물을 재배하는 유기농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생산단계부터 관리할 수 있어야 함.
- 유기농식품에 대한 시장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공급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안정적인 유기농원료를 공급받기 위하여 유기농가와의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해야 함.

○ 프랑스 론-알프스 유기농 클러스터는 유기농식품 이외에 유기화장품과 유기섬유 제조업체 등을 포함하여 단지를 규모화 하였음. 충북 유기농푸드밸리도 클러스터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유기제품 연구기관 및 제조업체를 포괄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유기농푸드밸리는 유기농의 특성을 잘 보존하여 친환경 푸드밸리를 추구해야 함. 친환경 농촌체험 관광 등을 추진하고 있음.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자리잡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나파밸리의 경우처럼 농촌 테마관광 산업을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음.

○ 이 밖에 네덜란드 푸드밸리와 덴마크·스웨덴의 외레순 클러스터, 영국의 요크셔·험버 클러스터, 일본 지바현의 식품산업 클러스터 등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클러스터의 핵심은 연구개발(R&D)임.

- 클러스터 지역·주변의 대학 및 연구소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수립하여 연구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함으로써 기술을 개발하고, 개발된 기술을 실용화 할 수 있어야 함.
- 또한 지역대학 등에서 배출된 인재들을 클러스터에서 흡수하여 채용함으로써 우수한 인력을 지속적으로 공급받고 지역사회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해나가야 함.

○ 클러스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클러스터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의 운영이 매우 중요함. 네덜란드 푸드밸리의 푸드밸리 재단, 외레순 클러스터의 외레순 푸드네트워크, 요크셔·험버 클러스터의 지역푸드그룹, 지바현 클러스터의 지바현 산업진흥센터 등과 같이 운영주체기관이 클러스터 및 관련 대학과 업체 간의 네트워크 형성과 다양한 요구를 조정해주는 역할을 체계적으로 수행해야 하며,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개발된 기술을 바탕으로 실용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함. 나아가 클러스터 내외의 각종 정보와 지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연결해 줄 수 있어야 함.

제 6 장

핵심사업으로 유기농푸드밸리 조성의 타당성 분석

1. 유기농푸드밸리 조성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1.1. 비용추정

1.1.1 비용추정의 접근방법

○ 유기농푸드밸리의 비용추정은 4단계별 절차에 따라 이루어짐.
- 1단계: '예비타당성조사 일반지침(5판)'을 기초로 비용추정의 범위 설정과 사업주체가 제시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의 개요를 정리함.
- 2단계: 사업주체가 제시한 수용인원별 시설면적 기준을 정리함.
- 3단계: 부지매입비, 단위면적당 공사비 단가 등 세부적인 비용추정 기준을 제시함.
- 4단계: 2단계에서 검토된 시설규모에 3단계에서 검토된 단위면적당 단가를 곱하는 방식으로 공사비를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기타 부대비용을 산정함.

○ 예비타당성 단계의 비용추정은 사업이 추진되기 이전에 경제성 공학 방법론을 적용하여 추정된 개략치이므로 실제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면 비용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음을 밝혀둠.

1.1.2. 대상사업 범위의 설정

표 6-1. 유기농푸드밸리 전체 사업 범위(2015~2020)

구 분	부지면적(㎡)	연면적(㎡)	비 고
합 계	1,784,803	410,709	
산업시설용지	457,689	311,539	
유기가공단지	174,665	132,232	· 식료품 및 음료제조업
유기농종합물류센터	47,318	47,075	·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발효식품농공단지	235,706	132,232	
지원시설용지	912,428	99,170	
유기농포장디자인센터	22,648	9,074	
유기농특구협력연구소	6,000	7,190	· 오가닉 의농연구센터 포함
유기농식품진흥원 (유기농푸드밸리종합지원센터)	4,000	3,306	· 유기농식품진흥원은 총괄기구이고, 산하기구로 유기농푸드밸리종합지원센터
국제유기농컨벤션센터	24,000	8,000	
생산(시범) 단지	561,000	11,000	
생태마을용지	210,000	50,000	
학교(자립형 자율고)	33,000	6,600	
치유센터	48,000	4,000	
유기농식품체험관			· 계획 미확정
유스호스텔			· 계획 미확정
발효식품농공단지지원	3,780		
공원	179,575		· 법적기준: 5% 이상 ~ 7.5% 미만
녹지	103,802		-
유수지	(14,953)		· 공원 · 녹지내 유수지 설치
하 천	17,304		· 소하천 1개소
배수지	5,575		· 2개소
수질오염방지시설	5,337		· 1개소
주차장	7,020		· 법정기준: 0.6% 이상
보행자전용도로	2,183		
도로	93,890		· 법정기준: 8% 이상

표 6-2. 예비타당성 대상사업 범위(2015~2020)

구 분	부지면적(㎡)	연면적(㎡)	비 고
유기농포장디자인 센터	22,648	9,074	
유기농특구협력연구소	6,000	7,190	· 오가닉 의농연구센터 포함
유기농식품진흥원 (유기농푸드밸리종합지원센터)	4,000	3,306	
국제유기농컨벤션센터	24,000	8,000	

표 6-3. 경제성분석 대상사업 범위(2015~2020)

구 분	부지면적(㎡)	연면적(㎡)	비 고
합 계	1,493,803	350,109	
산업시설용지	457,689	311,539	
유기가공단지	174,665	132,232	· 식료품 및 음료제조업
유기농종합물류센터	47,318	47,075	·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발효식품농공단지	235,706	132,232	
지원시설용지	621,428	38,570	
유기농포장디자인 센터	22,648	9,074	
유기농특구협력연구소	6,000	7,190	· 오가닉 의농연구센터 포함
유기농식품진흥원 (유기농푸드밸리종합지원센터)	4,000	3,306	
국제유기농컨벤션센터	24,000	8,000	
생산(시범) 단지	561,000	11,000	
발효식품농공단지지원	3,780		
공원	179,575		· 법적기준: 5% 이상~7.5% 미만
녹지	103,802		-
유수지	(14,953)		· 공원·녹지내 유수지 설치
하 천	17,304		· 소하천 1개소
배수지	5,575		· 2개소
수질오염방지시설	5,337		· 1개소
주차장	7,020		· 법정기준: 0.6% 이상 (노외주차장 1개소)
보행자전용도로	2,183		
도로	93,890		· 법정기준: 8% 이상

1.1.3. 시설면적 검토 및 적정면적 산정

가. 산업단지

○ 산업시설 용지의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제 6조 6항 및 시행령 제 7조 3항에 의거하여 유상공급면적의 50% 이상으로 계획되어야 함.

○ 150만㎡~200만㎡ 규모의 산업단지의 경우 「산업단지개발사업 업무편람(200

7)」에서 지원시설용지 비율을 4.1~4.5% 내외로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서는 생산 공간과 연계하여 시설규모를 결정하도록 제시함.

○ 공장부지가 평균 1만㎡ 이하로 소규모 분할시 2%범위 내에서 상향조정 가능

○ 도시계획도로 등 지역간 연결도로가 단지내를 통과하지 아니할 경우 또는 규모가 평균 10만㎡ 이상의 대규모 공장이 입지하여 세부도로망 계획이 필요치 아니할 경우에는 하향조정 가능

○ 단지내 간선도로의 폭원은 원칙적으로 화물자동차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15m 이상 확보

표 6-4. 공업지역의 도로 설치기준

구 분	단지내 도로전체	단지내 주간선도로	비 고
공업지역	10 ~ 20%	5 ~ 10%	-

자료: 도시계획시설기준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표 6-5. 단지규모별 도로율 지침

단지규모	1㎢ 이상	1㎢ 미만	비 고
도 로 율	10% 이상	8% 이상	-

자료: 산업입지 개발 통합지침(지침 제14조)

○ 주차장법에 의거 산업단지 근로자 및 이용자들의 주차편의를 위해 사업지구 면적의 0.6%이상 공용주차장 확보

○ 산업단지개발사업 업무편람(한국토지공사, 2006)의 완충녹지 설치기준
- 간선도로변 등 소음피해지역(주진입도로, 내부순환도로변): 폭 20m 정도

○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의 규정에 의한 1㎢ 이상 3㎢ 미만의 공공녹지 확보기준은 7.5 ~ 10% 미만으로 확보

표 6-6. 단지규모별 공원녹지율 지침

단지규모	3㎢ 이상	1~3 ㎢	1㎢ 미만	비 고
공원녹지율	10 ~ 13%	7.5 ~ 10%	5 ~ 7.5%	공공녹지 최소규모 500㎡이상

자료: 산업입지 개발 통합지침(지침 제14조)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법48조)
-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공동으로 처리하여 공공수역에 배출하게 하기 위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운영
- 수질오염의 원인을 직접 야기한 자는 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법(제3조)
- 산업단지 조성 등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 분양가능 · 운영
- 공업단지를 개발하는 자 (개발된 공업단지를 직접관리하는 자 제외)는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타인에게 유상으로 인도하여, 그 타인으로 하여금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 · 운영하도록 하여야 함

○ 사례분석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장 0.9%와 폐수처리장 0.9% 이상 확보하며 추후 개발 계획시 정확한 수요를 고려하여 규모 설정 필요

표 6-7. 산업단지별 폐수처리 현황

구 분	오송생명과학단지	전주과학산업연구단지	익산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 면적	4,633,000㎡	3,073,700㎡	2,793,500㎡
폐수처리장 면적	27,891㎡	46,726㎡(공원과 중복)	31,805㎡
구성비(%)	0.6%	1.5%	1.1%
폐기물처리장 면적	26,728㎡	28,580㎡	67,000㎡
구성비(%)	0.6%	0.9%	2.4%

○ 사업지구 전력사용량을 고려한 전기공급시설(변전소) 부지면적을 확보하고 추후,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시 적정규모 설정 필요

○ 개별 시설에 인원별 전용면적을 산출하고 이 전용 면적을 기준으로 공용면적을 산출함. 통상 건폐율 40%, 용적률 100% 기준임.

- 「산업입지 원단위 산정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음식료품 업종에서의 사업체당 부지면적은 5,023.5㎡임.

○ 산업단지 규모별 토지 이용을 살펴보면, 종사자수 23.6명, 생산액 5,523.8백만원, 부지면적 5023.5㎡, 건물연면적 1,999.3㎡임.

표 6-8. 산업단지규모별 토지 이용

구분	종사자수(명)	생산액(백만원)	부지면적(㎡)	건물연면적(㎡)
음식료품	23.6	5,523.8	5,023.5	1,999.3

자료: 건설교통부 외, 산업입지원단위 설정에 관한 연구, 2006

나. 연구시설

○ 연구시설의 경우 유사 사례의 1인당 전용 면적을 산출한 후 공용면적(20%)과 공동이용시설(25%)을 산정하고, 각 시설별 특수 시설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출함.

○ 유기농특구 협력 연구소 시설규모를 보면, 인원 87명, 1인당 전용 면적 기준은 57㎡, 전체 전용면적 4,959㎡, 공용면적 1,239.8㎡, 공동시설 991.8㎡, 연면적 7,190.1㎡임.

표 6-9. 유기농특구 협력 연구소 시설규모 산정

인원	1인당 전용 면적기준(㎡)	전체 전용면적	공용면적 (25%)	공동시설 (20%)	연면적
87	57	4,959	1,239.8	991.8	7190.1

표 6-10. 계획지표 설정

구 분	계획지표	비고
계 획 유 발 인 구	4,647인	「산업입지 원단위 산정에 관한 연구」(2006, 건교부 외)상의 업종별 부지면적당 2015년 원단위 적용
산업용지	1,003인	
지원시설	1,235인	
물류시설	1009인	
주거시설	950인	추정치: 주거-단독형200가구*2.5인+집합형300가구*1.5인 =950인, 학교-정원200명+교원등50인, 병원-100병상+직원등50인, 농업시설-50인 (검토 필요할 수 있음)
기타시설(학교용지 등)	400인	
기타시설(농업시설 등)	50인	
산 업 시 설 용 지	174,665㎡	유상공급 면적의 50% 이상 확보 전체면적의 53.8%
주 거 용 지	210,000㎡	전체면적의 7.0%
상 업 용 지		전체면적의 2.8%
물 류 용 지	47,318㎡	전체면적의 2.5%
지 원 시 설 용 지	71,975㎡	생산공간과 연계하여 시설규모 결정 전체면적의 4.1~4.5%
공 공 시 설 용 지	357,061㎡	전체면적의 27.5%
도 로	60,076㎡	단지규모 1㎢ 이상: 10% 전체면적의 13.1%
공 원	170,444㎡	단지규모1~3㎢: 7.5~10% 전체면적의 12.0%
녹 지	73,002㎡	
주 차 장	4,127㎡	사업부지면적의 0.6% 이상 전체면적의 0.6%
학 교	33,000㎡	학교 1개소
저 류 지	11,075㎡	저류지, 폐기물처리시설, 오·폐수처리시설 각 1개소
변 전 소	㎡	장연변전소 및 괴산변전소에서 공급
폐기물처리시설	㎡	생활폐기물은 괴산군 폐기물처리계획에 의하며, 사업장 폐기물은 선별하여 전량 위탁처리 (충청북도 고시 제 2011-43호)
오·폐수처리시설	5,337㎡	

참고: 밝은 부분은기승인 된 산업단지 계획이며, 어두운 부분은 산업단지 외부 용지의 계획임

1.1.4. 사업비 산정

가. 용지보상비와 직접공사비

○ 용지보상비

- 용지보상비는 부지매입비, 지장물보상비, 간접보상비, 납부분담금, 부대비로 구성

○ 직접공사비

- 직접공사비는 건축공사비, 부지조성공사비로 구성됨.
- 건축공사비는 2009년 하반기 공공시설물 유형별 공사비 분석 (조달청 건축설비과)을 기준으로 2011년 하반기 변동지수 적용(조달청 기준)하여 계산함.

표 6-11. 용지보상비 산정

단위: 원

구 분	기본계획	비 고
대지면적(㎡)	1,390,001	
소계	19,049,890,814	
용지매입비	15,022,103,503	예비타당성 조사지침
지장물 보상비	2,904,420,701	용지매입비의 20%
간접보상비	90,000,000	-
납부 분담금	462,850,237	산림자원조성비 및 생태계보전협력금 등
부대비	570,516,374	

나. 건축공사비

○ 가공단지

표 6-12. 가공단지 건축 공사비

구 분		기 본 계 획	
대지면적(㎡)			174,665
연면적(㎡)			132,232
시설물의 ㎡당 공사비용		단가(천원)	금액(천원)
공사비 내역	건축공사	592	78,291,923
	기계설비	275	36,341,836
	전기설비	272	35,910,905
	통신설비	100	13,215,213
	토목 및 부대비용	134	17,742,123
합계		1,373	181,502,000

표 6-13. 발효식품농공단지 건축 공사비

구 분		기 본 계 획	
대지면적(㎡)			323,511
연면적(㎡)			132,232
시설물의 ㎡당 공사비용		단가(천원)	금액(천원)
공사비 내역	건축공사	592	78,291,923
	기계설비	275	36,341,836
	전기설비	272	35,910,905
	통신설비	100	13,215,213
	토목 및 부대비용	134	17,742,123
합계		1,373	181,502,000

○ 유기농종합물류센터

- 유기농종합물류센터는 물류센터, 유기농산물종합처리센터(Org-APC), 유기쌀가공센터(Org-RPC)로 구성됨.

표 6-14. 물류센터 건축 공사비

구 분		기 본 계 획	
대지면적(㎡)			33,229
연면적(㎡)			33,058
시설물의 ㎡당 공사비용		단가(천원)	금액(천원)
공사비 내역	건축공사	597	19,736,089
	기계설비	74	2,441,942
	전기설비	20	646,396
	통신설비	5	179,555
	토목 및 부대비용	262	8,672,456
합계		958	31,676,437

○ 유기농산물종합처리센터(Org-APC)

표 6-15. Org-APC 건축 공사비

구 분		기 본 계 획	
대지면적(㎡)			12,926
연면적(㎡)			12,860
시설물의 ㎡당 공사비용		단가(천원)	금액(천원)
공사비 내역	건축공사	725	9,327,332
	기계설비	417	5,364,410
	전기설비	115	1,480,801
	통신설비	5	69,849
	토목 및 부대비용	134	1,725,480
합계		1,397	17,967,872

○ 유기쌀가공처리센터(Org-RPC)

표 6-16. Org-RPC 건축 공사비

구 분		기 본 계 획	
대지면적(㎡)			1,163
연면적(㎡)			1,157
시설물의 ㎡당 공사비용		단가(천원)	금액(천원)
공사비 내역	건축공사	597	690,745
	기계설비	1,725	1,995,876
	전기설비	396	458,750
	통신설비	38	43,990
	토목 및 부대비용	134	155,240
합계		2,891	3,344,601

○ 유기농포장디자인센터

표 6-17. 유기농포장디자인센터 건축 공사비

구 분		기 본 계 획	
대지면적(㎡)			22,648
연면적(㎡)			9,074
시설물의 ㎡당 공사비용		단가(천원)	금액(천원)
공사비 내역	건축공사	1,152	10,449,578
	기계설비	275	2,493,843
	전기설비	272	2,464,272
	통신설비	93	847,709
	토목 및 부대비용	296	2,689,396
합계		2,088	18,944,798

○ 유기농특구협력연구소

표 6-18. 유기농특구협력연구소 건축 공사비

구 분		기 본 계 획	
대지면적(㎡)			6,000
연면적(㎡)			6,033.5
시설물의 ㎡당 공사비용		단가(천원)	금액(천원)
공사비 내역	건축공사	1,152	8,280,088
	기계설비	275	1,976,083
	전기설비	272	1,952,651
	통신설비	93	671,712
	토목 및 부대비용	296	2,131,036
합 계		2,088	15,011,571

○ 유기농식품진흥원(유기농푸드밸리종합지원센터)

표 6-19. 유기농식품진흥원(유기농푸드밸리종합지원센터) 건축 공사비

구 분		기 본 계 획	
대지면적(㎡)			4,000
연면적(㎡)			3,306
시설물의 ㎡당 공사비용		단가(천원)	금액(천원)
공사비 내역	건축공사	1,152	5,922,455
	기계설비	275	908,601
	전기설비	272	897,827
	통신설비	93	308,852
	토목 및 부대비용	296	979,848
합 계		2,088	6,902,303

○ 국제유기농컨벤션센터

- 국제유기농컨벤션센터는 기존 문화공연장, 국제회의장, 세미나실로 구성되었으며, 대지면적 24,000㎡, 연면적 8,000㎡이며 총 건축 공사비는 17,605,060(천원) 임.

(1) 부지조성 공사비

표 6-20. 부지조성 공사비

구 분	기본계획	비 고
대상면적(㎡)	1,404,954	녹지,농업용지,생태마을용지 및 계획 미확정부지 제외
㎡당 단가(천원)	85	구례 용방단지에 비해 30% 할증, 발효식품농공단지 경우 52(천원) 적용
조성공사비	110,984,526	

주: 유기농푸드밸리의 경우 555억, 발효식품농공단지의 경우 260억의 국비 및 지방비가 투입되어 부지조성중임.

(2) 기타 시설부대경비

표 6-21. 기타 시설부대경비

단위: 천원

	구 분	비 용
기타 경비	조사 및 측량비	4,583,297
	설계용역비	9,896,791
	감리용역비	5,566,985
	합 계	20,047,073

다. 대상 사업 공사비 집계

○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 공사비를 보면 유기농포장디자인센터 18,944,798천 원, 유기농국제컨벤션센터 17,605,060천 원, 유기농특구협력연구소 15,011,571천 원, 유기농식품진흥원 6,902,303천 원 등 총 74,170,817천 원으로 나타남.

표 6-22.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 공사비 집계

단위: 천원

구 분	부지면적(㎡)	연면적(㎡)	총비용
유기농포장디자인센터	22,648	9,074	18,944,798
유기농국제컨벤션센터	24,000	8,000	17,605,060
유기농특구협력연구소	6,000	7,190	15,011,571
유기농식품진흥원 (유기농푸드밸리종합지원센터)	4,000	3,306	6,902,303
용지보상비			722,262
부지조성비			4,786,756
부대비용			3,455,265
예비비	(공사비+부대비+용지보상비 총합의 10%)		6,742,802
총사업비			74,170,817

표 6-23. 경제성분석 대상 사업 공사비 집계

단위: 천원

구 분		부지면적(㎡)	연면적(㎡)	총비용
가공단지		174,665	132,232	181,502,000
유기농종합 물류센터	물류센터	33,229	33,058	31,676,437
	Org-APC	12,926	12,860	17,967,872
	Org-RPC	1,163	1,157	3,344,601
생산(시범)단지		561,000	11,000	부지조성비에 포함
발효식품농공단지		319,633	132,232	181,502,000
유기농포장디자인센터		22,648	9,074	18,944,798
유기농국제컨벤션센터		24,000	8,000	17,605,060
유기농특구협력연구소		6,000	7,190	15,011,571
유기농식품진흥원 (유기농푸드밸리종합지원센터)		4,000	3,306	6,902,303
용지보상비		1,390,001		19,049,891
부지조성비		1,404,954		110,984,526
부대비용				20,047,073
예비비		(공사비+부대비+용지보상비 총합의 10%)		43,931,113
총사업비				668,469,245

라. 연차별 투입계획

표 6-24. 경제성 분석을 위한 연차별 투입계획

단위: 백만 원

구 분	합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이후
부지매입비	19,050	18,328	0	722	0	0	0
부지조성비	110,985	8,920	45,679	44,115	10,356	718	1,197
건축비	474,457	0	187,197	204,736	59,138	8,770	14,616
부대비용	20,047	2,180	6,844	8,605	1,037	518	864
예비비	43,931	7,615	13,184	15,735	4,701	1,011	1,686
합 계	668,469	37,042	252,903	273,913	75,232	11,017	18,362

1.1.5. SW 사업비 및 장비비, 운영비의 추정

○ 유기농특구협력연구소

표 6-25. 유기농특구협력연구소 및 오가닉의농연구센터 인력 현황

구 분		연 구 원			계
		책임급	박사급	보조원	
유기농특구협력연구소	유기농특구협력연구소 소장	1			1
	· 유기농식품연구부	3	3	6	12
	· 유기농생산환경연구부	2	3	6	11
	· 유기농특구지역개발연구부	3	3	6	12
	· 유기농품질인증센터	4	4	8	16
	· 경영유통연구부	3	3	6	12
오가닉의농연구센터	오가닉의농연구센터 소장	1			1
	· 오가닉의농연구센터 산업화연구부	2	3	6	11
	· 오가닉의농연구센터 소재개발부	2	3	6	11
계		21	22	44	87

표 6-26. 유기농특구협력연구소 및 오가닉의농연구센터 연간 운영비

단위: 백만 원

시설구분	비 용 구 분		비 용	비 고
시설1	인건비		3,800	
	경상운영비	사무관리비	140	
		공공운영비	160	
		시설장비유지비	160	
		여비	100	
		기타운영비	140	
합계			4,500	

표 6-27. 유기농특구협력연구소 SW 사업내용 및 예산

단위: 억 원

구 분	합계	주 요 내 용
유기농산물 생산기술개발사업	108	- 고품질 유기농산물 재배 생산 기술개발 연구 - 유기농산물 재배 생산 환경 개선 연구 - 유기농특구 특화작물의 신품종 개발 및 탐색 발굴 활용에 관한 연구
유기농산물 가공제품개발사업	117	- 유기농산물 수확 후 저장관리 기술 - 유기농산물의 가공 및 제품 개발 - 유기농산물의 기능성 및 약효성분 연구
유기농특구 경영유통지원사업	90	- 유기농산물의 유통 및 브랜드화 - 유기농산물 품질평가 및 인증 컨설팅
유기농특구 지역개발사업	135	- 유기농 작물소량 산정 및 지속적인 관개방법 연구 - 유기농특구 주거환경 개선 및 농촌 어메니티 체험공간 조성 - 유기농특구 조성 및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방지 대책
오가닉의농연구센터	108	- 유기농산물의 치유농산물화
계	558	

표 6-28. 유기농특구협력연구소 장비비

단위: 억 원

구 분	유기농특구협력연구소	오가닉의농연구센터	합 계
장비비	74	108	182
기자재	6	27	31
합 계	80	135	215

○ 유기농포장디자인센터

표 6-29. 유기농포장디자인센터 장비비

단위: 억 원

구 분	비 용
flexible packaging	29.70
Corrugated Packaging	8.50
Inner-Box	10.00
합계	48.2

○ 유기농식품진흥원(유기농특구종합협력센터)

- 유기농식품진흥원의 인력 현황을 보면 종합지원센터장 1명, 기획관리부 8명, 인적자원 및 기업육성센터 8명, 유기농포장디자인센터 5명, 국제유기농컨벤션센터 5명 등 전체 40명임.

표 6-30. 유기농식품진흥원(유기농특구종합협력센터) 인력 현황

구 분	연 구 원			계
	책임급	박사급	보조원	
종합지원센터장	1			1
기획관리부	2	2	4	8
인적자원및기업육성센터	2	3	3	8
유기농포장디자인센터	1	2	2	5
국제유기농컨벤션센터	1	1	3	5
유기농종합물류센터	1	1	6	8
테마체험관광지원센터	1	1	3	5
계	9	10	21	40

표 6-31. 유기농식품진흥원(유기농특구종합협력센터)의 연간 운영비

단위: 백만 원

시설구분	비용구분		비용	비고
시설1	인건비		2,160	40인
	경상운영비	사무관리비	50	
		공공운영비	150	
		시설장비유지비	40	
		여비	15	
		기타운영비	85	
합계			2,500	

표 6-32. 유기농식품진흥원(유기농특구종합협력센터) SW 사업내용 및 예산

단위: 억 원

구 분	비용	사 업 내 용
인적자원 및 기업 역량강화 사업	27	- 유기농식품 유관 활동인력에 대한 역량 증진 컨설팅 시행 - 유기농식품 유관 활동인력에 대한 실무/전문분야 단계별 교육과정 기획 - 기업의 산지관리력 및 가공공정 효율 증진을 위한 전문 컨설팅 시행
유기농포장디자인 연구개발 사업	9	- 기존 시제품 디자인에 대한 항목별 소비자 반응척도 조사 - 친환경유기농식품 포장 재질에 관한 연구(단가 효율화 방안 포함) - 제품별 특성에 따른 유기농식품 포장디자인 컨셉 추출 컨설팅 시행
유기농식품 물류 효율화 연구 사업	13	- 물류 단계별 개선 방안 및 연관 설비 현황에 대한 조사 - 수도권~남부지역을 잇는 교통집결지인 유기농푸드밸리의 최대 물류 효율 달성을 위한 시스템 구축 관련 컨설팅 시행
맞춤형 테마체험 프로그램 개발사업	4	- 제품별 원작물 생산 특징에 따른 체험 프로그램 개발 - 피체험자군 특성에 따른 체험 프로그램 개발 - 소비유발 연계성이 높은 체험 프로그램 특성에 관한 연구
계	53	

표 6-33. 유기농특구 종합 협력 센터 장비비

단위: 백만 원

구 분	HW1
장비비	1,600
기자재	80
합 계	2,400

○ 입주기업 시설투자비

- 신규 투자기업의 시설장비비를 산출하기 위하여, 기업체 설문조사를 했으며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입주기업의 시설장비에 대한 투자비 분석을 다음과 같음.

표 6-34. 입주기업 시설투자비

단위: 개, 천 원, m^2

표본기업수	18
18개업체 입주면적 합	70,358
18개업체 10년간 시설장비투자액	33,468,560
m^2 당 시설장비 투자금액	476
입주기업 총 예상 건축면적	264,464
총 예상 시설투자비	125,801,954
신규투자분에 대한 시설투자비	94,351,466
신규투자분에 대한 시설투자비(예비비 10% 포함)	103,786,612

1.1.6. 총 사업비 세부 내역 및 재원 분담

표 6-35. 예비타당성 대상 총사업비 세부내역

단위: 억 원

구 분		총사업비						운영비			
		건축비	부지 조성비	부대비	예비비	용지 보상비	소계	장비비	인건비 등	소계	합계
HW(4)	유기농특구협력연구소	150.1	5.1	9.1	16.5	0.77	181.6	215.0	225	440	621.6
	국제유기농 컨벤션센터	176.1	20.3	10.4	21.0	3.06	230.7	-	-	-	230.7
	유기농포장디자인센터	189.4	19.1	10.9	22.2	2.89	244.6	48.2		48.2	292.8
	유기농식품진흥원 (유기농푸드밸리종합지원센터)	69.0	3.4	4.2	7.7	0.51	84.8	24.0	125	149	233.8
	소계	584.6	47.9	34.6	67.4	7.22	741.7	287.2	350	637.2	1,378.9
SW(9)	유기농산물 생산기술개발사업	-	-	-	-	-	-	-	-	108	-
	유기농산물 가공제품 개발 사업	-	-	-	-	-	-	-	-	117	-
	유기농푸드밸리 경영유통 지원 사업	-	-	-	-	-	-	-	-	90	-
	유기농특구 지역 개발사업	-	-	-	-	-	-	-	-	135	-
	오가닉 의농 연구 센터	-	-	-	-	-	-	-	-	108	-
	인적 자원 및 기업 역량 강화 사업	-	-	-	-	-	-	-	-	27	-
	유기농 포장디자인 연구개발 사업	-	-	-	-	-	-	-	-	9	-
	유기농식품 물류 효율화 연구 사업	-	-	-	-	-	-	-	-	13.5	-
	맞춤형 테마 체험 프로그램 개발 사업	-	-	-	-	-	-	-	-	4.5	-
	소계	-	-	-	-	-	-	-	-	612	612
	총사업비	-	-	-	-	-	-	-	-		1,990.9

○ 국가는 공사비 및 개원전 운영비의 경우 50% 지원하고 장비비는 100%, SW사업비는 70% 지원.

- SW사업비의 30% 지방비 및 민자, 운영비의 50%는 지방비 및 민자로 구성됨.

표 6-36. 예비타당성 대상 재원 분담

단위: 억 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민 자	합계
공사비	370.9	370.9	0	741.7
장비비	287.2	0	0	287.2
SW사업비	428.4	91.8	91.8	612
운영비	175	87.5	87.5	350
합계	1261.5	550.2	179.3	1990.9

표 6-37. 경제성 분석 대상 총사업비 세부내역

단위: 억 원

구 분		총사업비						운영비			
		건축비	부지 조성비	부대비	예비비	용지 보상비	소계	장비비	인건비 등	소계	합계
HW(4)	유기농특구협력연구소	150.1	5.1	9.1	16.5	0.77	181.6	215.0	225	440	621.6
	국제유기농 컨벤션센터	176.1	20.3	10.4	21.0	3.06	230.7	-	-	-	230.7
	유기농포장디자인센터	189.4	19.1	10.9	22.2	2.89	244.6	48.2		48.2	292.8
	유기농식품진흥원 (유기농푸드밸리종합지원센터)	69.0	3.4	4.2	7.7	0.51	84.8	24.0	125	149	233.8
	소계	584.6	47.9	34.6	67.4	7.22	741.7	287.2	350	637.2	1,378.9
	유기농 생산·가공 및 물류 단지	2,344.9	892.0	146.0	351.6	133.2	3,867.6	-	-	-	3,867.6
	발효식품농공단지	1815.0	170.0	20.0	20.3	50.1					2075.3
SW(9)	유기농산물 생산기술개발사업	-	-	-	-	-	-	-	-	108	-
	유기농산물 가공제품 개발 사업	-	-	-	-	-	-	-	-	117	-
	유기농푸드밸리 경영유통 지원 사업	-	-	-	-	-	-	-	-	90	-
	유기농특구 지역 개발사업	-	-	-	-	-	-	-	-	135	-
	오가닉 의농 연구 센터	-	-	-	-	-	-	-	-	108	-
	인적 자원 및 기업 역량 강화 사업	-	-	-	-	-	-	-	-	27	-
	유기농 포장디자인 연구개발 사업	-	-	-	-	-	-	-	-	9	-
	유기농식품 물류 효율화 연구 사업	-	-	-	-	-	-	-	-	13.5	-
	맞춤형 테마 체험 프로그램 개발 사업	-	-	-	-	-	-	-	-	4.5	-
	소계	-	-	-	-	-	-	-	-	612	612
	총사업비	-	-	-	-	-	-	-	-		7,933.8

1.2. 편익추정

○ 경제성 분석시 사업추진으로 발생하는 신규투자 효과만 반영하며 기투자된 시설이 발생시키는 경제적 효과는 제외함.

○ 푸드밸리 및 발효식품농공단지 입주기업에 제공되는 편익은 두 가지로 구분됨.
- R&D 투자지원을 통한 입주기업의 매출 증대
- 기업 집적 및 HW시설의 지원이 기업의 역량 강화로 이어져 매출 증대

○ 이와 같은 푸드밸리 및 발효식품농공단지 조성 사업으로 발생 가능한 주요 편익은 다음과 같음.

표 6-38. 유기농푸드밸리 및 발효식품농공단지 조성사업 편익항목

구 분	편 익 항 목		
방법론	신규투자에 따른 부가가치 증대	R&D 투자로 인한 부가가치 증대	생산성(혁신) 제고
	신규 창출분의 매출 추정 및 이에 따른 부가가치 증대 산출	전체 산업 R&D대비 매출액 비율	부가가치 개선 효과

○ 신규 투자 편익
- 기존 투자시설의 이전효과는 편익에서 제외
- 신규투자로 인한 편익은 단계별 과정을 통해 도출

표 6-39. 신규투자로 인한 편익 도출 과정

1단계	입주업체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건축연면적당 매출액(출하액) 도출
2단계	1단계에서 도출된 건축연면적당 매출액을 본 사업 규모에 적용하여 본 사업으로부터 발생되는 총 매출액(출하액) 도출
3단계	산업단지의 평균적인 유효가동율을 적용하여 산출 가능한 총 매출액 (출하액) 도출 - 유효가동율 = 입주율*가동률
4단계	푸드밸리 및 발효식품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매출(출하액) 중 신규투자분에 의해 신규로 창출되는 매출(출하액) 정의
5단계	신규창출분에 대해 식품산업의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경제적 편익 산출

○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7년 기준의 신규투자 편익은 다음과 같음.

- 입주 대상 기업 설문조사 결과는 신규투자 비율이 75%이었으나, 본 분석에서는 현실을 고려하여 60%로 설정하였음.

표 6-40. 신규투자로 인한 편익 산출 (2017년 기준)

단위: 백만원, m^2

구 분	값
건축면적당 매출액	2.76
건축면적	264,464
건축기준 매출액	729,446
유효가동률	75.4%
유효가동률 적용 후 매출액	550,014
신규투자비율	60%
신규투자매출	330,008
부가가치율	23.41%
신규투자의 부가가치 창출 편익	77,255

○ R&D 투자로 인한 창출 편익(전체 산업 평균을 활용한 접근)

- R&D 투자지출로 인한 경제적 편익 발생과정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정리됨.

산정방식: ① 해당 R&D와 관련된 연구개발비 투자 ×
② 사업화성공률 ×
③ R&D 투자대비 매출액 비율 ×
④ 부가가치율

① R&D와 관련된 연구개발비 투자

- 유기농특구 협력 연구소와 유기농특구 종합 협력 센터의 연간 S/W사업비 는 각각 62억 원, 6억 원이며 6년간 투자될 계획임.

② 사업화성공률

- 사업화 성공률은 한국산업기술평가원(2008)에서 제시한 사업화 성공률이며 37.09%임.

③ R&D 투자대비 매출액 비율

- 한국산업기술평가원(2008)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개발 총투자비 1억당 순매출액은 약 4.43억임. 따라서 사업화 성공률을 감안하지 않을 경우 R&D 투자 대비 매출액 비율은 11.95배(4.43/37.09%)임.

④ 부가가치율

- 부가가치율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기업경영분석에서 제조업 중 음식료품 업종 부가가치의 3년 평균치인 24.75%를 사용함.

⑤ 연도별 연구개발비 투입대비 발생편익 결론

- 위의 방법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유기농푸드밸리의 R&D 투자 지출에 대한 사회적 편익을 산정함.

산정방식: ① 해당 R&D와 관련된 연구개발비 투자 × ② 사업화성공률(37.09%) × ③ R&D 투자대비 매출액 비율(11.95배) × ④ 부가가치율(24.75%)

○ 이전투자 기업의 생산성 제고 효과

- 클러스터의 효과는 집적 및 기타 지원의 효과로 인해 전문화된 소기업들이 특정지역을 단위로 대기업처럼 조직되는 방식임.
- 클러스터의 생산성 제고(부가가치 개선 효과)는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산출됨.

부가가치 개선효과 = 클러스터 입주 전 기업의 매출액 × (입주 후 개선된 부가가치율 - 입주 전 부가가치율)

- 대기업의 경우 3개년 평균 부가가치율은 25.70%로 산출되고,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3개년 평균 부가가치율은 21.86%로 산출됨. 따라서 부가가치 개선 효과는 3.84%이며, 이중 40.2%가 실현 가능할 것으로 가정하여 순수 부가가치 개선 효과는 1.54%임.
- 이전 기업의 입주 전 연간 매출액은 다음과 같음.

표 6-41. 입주 대상업체의 입주전 매출액(2017년 기준)

단위: 백만원

구 분	값
건축면적당 매출액	2.76
건축면적	264,464
건축기준 매출액	729,446
유효가동률	75.4%
유효가동률 적용후 매출액	550,014
이전투자비율	40%
이전투자매출	220,005

1.3. 경제성 분석

1.3.1. 경제성 분석기법

○ 일반적으로 경제성 분석은 순현재가치(net present value: NPV), 편익/비용 비율

(benefit-cost ratio: B/C Ratio), 내부수익률(internal rate of return: IRR)의 기법을 사용하여 시행함.

- 순현재가치는 미래의 여러 시점에서 발생 할 현금의 순유출입(net cash flow)을 분석 시점의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더한 값으로, 특정 프로젝트의 순현재가치를 나타냄.
- 편익/비용 비율기준을 사용하여 각 사업이나 정책을 평가할 경우에는 편익의 현재가치의 합을 비용의 현재가치의 합으로 나누어 그 비율이 1이상이면 일반적으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1보다 작으면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게 됨.
- 내부수익률기준은 어떤 공공사업이나 정책의 순편익의 현재가치의 합, 즉 NPV를 0으로 만들어주는 할인율로 다음의 관계를 충족하는 I의 값이 됨. 내부수익률이 사회적 할인율로 선택되는 이자율보다 더 클 경우에는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해당사업이 효율적인 사업으로 판단 가능함.

표 6-42. 경제성 분석기법의 비교

구분	판단기준	장점	단점
순현재가치 (NPV)	NPV > 0	• 대안선택시 명확한 기준제시 • 타 분석에 이용가능 • 장래발생편익의 현재가치제시	• 할인율 사전선정 필수 • 대안 선순위결정시 규모의 차이로 인한 오류발생가능
편익/비용비율 (B/C Ratio)	B/C비율> 1	• 이해용이 • 사업규모 고려가능	• 할인율 사전선정 필수 • 상호 배타적 대안의 오류발생가능
내부투자수익률 (IRR)	IRR> r	• 사업상 수익성 측정가능 • 타 대안과 비교가 용이 • 평가과정과 경과 이해가 용이	• 사업의 절대적 규모 비고려 • 몇 개의 내부수익률이 동시에 도출될 가능성

1.3.2. 경제성 분석 결과 제시

○ 자산의 내용연수는 건물은 30년, 장비 및 운영설비비는 연구설비자산의 경우 5년으로 하였으며, 기타 시설장비는 10년으로 가정. 사회적 할인율(5.5%), 분석기간 30년으로 함.

- 잔존가치의 회수의 경우 일반적으로 용지보상비(지장물 보상비 제외)는 토지가액으로 사업 종료시 전액 회수되는 것으로 가정함. 장비별 내용년수에 따라 사업기간 종료시 잔여 내용 연수가 존재하는 장비의 경우에는 잔존가액만큼 회수되는 것으로 가정함. 건물 잔존 가치는 30년 분석을 기준으로 함으로 잔존가치는 없음. 분석결과 B/C비율=1.17, NPV=172,561(백만원), IRR=8.1% 임.

표 6-43. 비용-편익 연차별 흐름표

연도	비용(백만원)						편익(백만원)				
	사업비	SW 사업비	장비비	운영비	합계	현재 가치	신규투자	연구 개발	이전 투자	합계	현재 가치
2015	37,042		25,947		62,988	62,988	0	0	0	0	0
2016	252,903		25,947		278,850	264,313	8,094	0	356	8,450	8,009
2017	273,913		25,947		299,860	269,410	56,967	0	2,504	59,471	53,432
2018	75,232		25,947		101,178	86,165	77,255	0	3,396	80,651	68,684
2019	11,017		0		11,017	8,893	77,255	0	3,396	80,651	65,103
2020	11,017		14,360		25,377	19,417	77,255	0	3,396	80,651	61,709
2021	7,345	6,800	14,360	7,000	35,505	25,750	77,255	0	3,396	80,651	58,492
2022		6,800	0	7,000	13,800	9,487	77,255	0	3,396	80,651	55,443
2023		6,800	0	7,000	13,800	8,992	77,255	1,492	3,396	82,143	53,524
2024		6,800	0	7,000	13,800	8,523	77,255	2,984	3,396	83,635	51,655
2025		6,800	37,897	7,000	51,697	30,265	77,255	4,476	3,396	85,127	49,836
2026		6,800	37,897	7,000	51,697	28,687	77,255	5,968	3,396	86,619	48,066
2027		6,800	25,947	7,000	39,747	20,906	77,255	7,459	3,396	88,111	46,345
2028		6,800	25,947	7,000	39,747	19,816	77,255	7,459	3,396	88,111	43,928
2029		6,800	0	7,000	13,800	6,521	77,255	7,459	3,396	88,111	41,638
2030			14,360	7,000	21,360	9,568	77,255	7,459	3,396	88,111	39,468
2031			14,360	7,000	21,360	9,069	77,255	7,459	3,396	88,111	37,410
2032			0	7,000	7,000	2,817	77,255	5,968	3,396	86,619	34,859
2033			0	7,000	7,000	2,670	77,255	4,476	3,396	85,127	32,473
2034			0	7,000	7,000	2,531	77,255	2,984	3,396	83,635	30,241
2035			37,897	7,000	44,897	15,387	77,255	1,492	3,396	82,143	28,153
2036			37,897	7,000	44,897	14,585	77,255	0	3,396	80,651	26,200
2037			25,947	7,000	32,947	10,145	77,255	0	3,396	80,651	24,835
2038			25,947	7,000	32,947	9,616	77,255	0	3,396	80,651	23,540
2039			0	7,000	7,000	1,937	77,255	0	3,396	80,651	22,313
2040			14,360	7,000	21,360	5,601	77,255	0	3,396	80,651	21,149
2041			14,360	7,000	21,360	5,309	77,255	0	3,396	80,651	20,047
2042			0	7,000	7,000	1,649	77,255	0	3,396	80,651	19,002
2043			0	7,000	7,000	1,563	77,255	0	3,396	80,651	18,011
2044			0	7,000	7,000	1,482	77,255	0	3,396	80,651	17,072
2045			37,897	7,000	44,897	9,008	77,255	0	3,396	80,651	16,182
2046			37,897	7,000	44,897	8,539	77,255	0	3,396	80,651	15,339
2047			25,947	7,000	32,947	5,939	77,255	0	3,396	80,651	14,539
2048			25,947	7,000	32,947	5,630	77,255	0	3,396	80,651	13,781
2049			0	7,000	7,000	1,134	77,255	0	3,396	80,651	13,063
2050			14,360	7,000	21,360	3,279	77,255	0	3,396	80,651	12,382
2051	-19,050		-54,452	7,000	-66,502	-9,677	77,255	0	3,396	80,651	11,736
합계	649,419	61,200	532,915	217,000	1,460,534	987,916	2,459,963	67,135	108,142	2,635,240	1,160,476

1.3.3. 경제성 분석의 시사점

○ 경제성 분석 결과 편익/비용 비율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신규 유기가공식품업체의 입주 업체수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유기 원료농산물의 공급능력이 증가하고 국내 유기농식품의 수출시장이 확대되는 경우 신규 유기가공식품업체의 입주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향후 유기농푸드밸리 및 발효식품농공단지 조성 사업의 경제적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사업성이 높은 신규업체의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유기농푸드밸리 및 발효식품농공단지 조성사업의 B/C 비율은 여러 가지 가정조건 하에서 산출되며, 할인율 5.5% 적용과 신규투자비율 60% 적용 시 B/C=1.17, 내부수익율(IRR)은 8.1%로 산정됨. 유기농포장디자인센터의 연구성과의 사업화로 포장비 등이 절감될 경우, 유기농식품 집적단지의 브랜드가치로 부가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국제유기농컨벤션센터를 통한 산학협력이 활성화되어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오가닉 의농연구센터의 사업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경제적 편익이 증가하여 B/C 비율이 높아질 수 있음.

○ 유기농푸드밸리 및 발효식품농공단지 조성사업의 경제적 효과를 보다 정확하게 계측하기 위해서는 핵심적 HW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유기농식품진흥원(유기농푸드밸리종합지원센터), 유기농특구협력연구소, 국제유기농컨벤션센터, 유기농포장디자인센터 등에 대한 설득력 있는 편익추정이 이루어져야 함. 이 연구에서는 한국산업기술평가원(2008)의 관련분야 기초자료를 적용하여 사업화성공률(37.09%), R&D 투자대비 매출액 비율(11.95배), 부가가치율(24.75%) 등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음. 따라서 적용된 이들 관련 파라미터의 값이 달라지게 되면 B/C비율도 조정되므로 적정한 수준의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파라미터 선택이 중요함.

○ 유기농푸드밸리 및 발효식품농공단지 조성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향후 세부 사업별(HW/SW) 동태적인 편익의 흐름과 관련사업 간의 유기적인 관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또한 유기농푸드밸리 및 발효식품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시장가치 외에도 환경질 개선과 보전 및 악화된 환경에 대한 복원, 온실가스 저감 등의 환경가치에 대한 비시장가치(nonmarket value)에 대한 고려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2. 유기농푸드밸리 조성의 정책적 타당성 분석

2.1. 국가사업화의 타당성 논리

2.1.1. 미래 농업부문의 성장동력으로 활용

○ 농업부문의 미래 성장동력인 유기농식품산업

- 웰빙과 로하스 등 건강과 환경 질을 중시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부응하여 유기농식품 분야는 경기위축에도 불구하고 2008년 시장규모는 약 509억 달러로 2003년의 약 250억 달러의 두 배에 해당하며, 2000년 이후 매년 20~30%의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IFOAM, 2010).
- 우리나라의 친환경농산물 시장은 2000년 이후 매년 약 55%의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 2010년 시장규모는 약 3조 6,500억 원, 2015년 5조 3,100억 원, 2020년 6조 6,300억 원으로 전망됨.
- 향후 국민소득 증가로 안전한 농식품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경 유기농식품은 농업부문의 성장동력으로 국가 식품산업에서 핵심분야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됨.

⇨ 국내 유기농식품산업이 체계적이고 건실하게 육성되지 않을 경우 해외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국내 유기농식품기반이 위축될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미래 농업부문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유기농식품산업 분야의 전략적 육성방안 모색이 시급하며, 유기농푸드밸리는 유기농식품 발전을 위한 전진기지로 중요한 의미를 가짐.

2.1.2. 농업분야의 대표적인 녹색산업으로 유기농식품산업 육성

○ 농업부문의 녹색성장의 핵심부문으로 유기농식품 선정

- 2009년 7월 정부는 국가 미래발전 전략으로 제시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행과 관련하여 녹색 투자대상의 저변을 확충하고 핵심 녹색산업을 선정하여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녹색투자 촉진 방안」을 발표함. 핵심 녹색산업으로 미래 주력 수출품목화가 가능하고,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분야 등을 선정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제시함.

- 2010년 4월에 정부의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농식품부문의 핵심 녹색산업으로 유기농식품산업을 선정함. 유기농식품산업이 선정된 이유는 유기농업의 경우 화학비료와 농약을 투입하지 않아 관행농업에 비해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높기 때문에 지속가능 자연자원의 이용과 관리를 통한 녹색성장 기여도가 높음. 또한 유기농식품부문은 친환경·웰빙·식품안전 등 안전·안심 먹을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 증가와 부합되며, 생산·유통·가공·소비 등 유기농식품 전과정에 연관된 전후방 산업의 성장도가 높아 급속하게 성장하는 글로벌 시장의 선점을 위한 매력적인 산업임.
- 웰빙 트렌드와 안전성을 중시하는 소비패턴으로 시장규모 성장 가속화되고 있으나 대부분이 수입 원료로 농가 소득화로 직접 연결되지 못하고 있음. 2008년 기준 유기가공식품 비중은 53.4%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 가운데 국산원료는 13.7% 정도에 그침. 따라서 국산원료 활용으로 유기농가 소득 증대 및 수입대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유기농업은 화학비료와 농약 등 화학적 농자재를 사용하지 않아 관행농업에 비해 생태효율성(eco-efficiency)이 높아 중요한 녹색산업으로 평가
- 유기농업은 관행농업에 비해 약 30%정도 생태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어 농업분야 녹색성장에 크게 기여하는 분야임(김창길 외 7인, 2010).
- 유기농업은 관행농업에 비해 화석연료 에너지를 적게 투입하는 저탄소 농법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은 작목에 따라 다르나 20~30% 감축하는 효과를 가짐. 또한 간작과 피복작물 재배 등을 실천하는 유기농법의 경우 유기물질의 공급을 통한 토양 비옥도 증진과 탄소고정(carbon sequestration)의 효과도 상당한 것으로 과학적으로 분석됨(ITC and FiBL, 2007).
- 영국과 덴마크에서는 국가 온실가스 관리와 저탄소 녹색산업 육성 전략으로 유기농식품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음.

⇨ 유기농푸드밸리 조성을 통한 유기농업과 유기농식품산업의 육성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과 생태효율성 개선을 통한 녹색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함.

2.1.3. 국가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에 부합되는 핵심사업

○ 농림수산식품부의 제3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2011~2015)에서 "유기농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에 부합하는 정책사업
- 농림수산식품부의 '유기농식품 클러스터'는 생산자-소비자 연대(생협) 및 전문

유통·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하고,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유기농특구 조성사업과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 및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등과 연계하는 방식을 제시함.

표 6-44. 농식품부의 유기농식품 클러스터(가칭) 조성 개요

구 분	주 요 내 용
추진방식	생산자-소비자 연대 및 전문 유통·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민간투자 방식 도입 검토
생산기반	지자체와 협의 또는 기 추진 중인 대규모 친환경 단지 등을 중심으로 조성, 향후 추진 예정인 「유기농특구」 및 「유기농 생태마을」 등과도 연계
관련정책과의 연계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및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등과 연계, 협력시스템 구축 지원
기 타	주변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최대한 유지시키는 에코 농식품 산업단지로 조성, 「유기농 융복합 클러스터」 체계 구축

자료: 농림수산식품부(2011).

○ 유기농푸드밸리 조성사업은 제3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에서 제시하는 '유기농식품 클러스터' 조성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며, 또한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에서 제시하는 '(주)유기식품클러스터사업단'과도 연계됨.

- 유기식품클러스터사업단은 2011~'13년까지 60억 원을 투입하여 국내 콩 주산지인 괴산과 단양지역의 유기농 콩을 원료로 산(아이쿱생협, 우리콩식품, 장익는마을, 청복, 푸드원텍, 불정농협 등)·학(중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연(충북개발연구원, 충북테크노파크)·관(괴산군, 단양군)이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농가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지역혁신 프로그램임. 특히 농가 조직화를 통해 양질의 유기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생산기반 구축과 유통·가공시설 구축 등을 통해 유기농식품산업의 메카로 정착시키기 위한 체계적으로 사업을 운용함.

○ 유기농푸드밸리 조성사업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유기농체험과 관광을 연계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임.

- 괴산군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2007년부터 4년간 총 사업비 77억을 투입하여 유기농푸드밸리 조성지역 인근인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에 '산막이 옛길'을 조성하여 관광지로 운영하고 있음.
- '산막이 옛길'은 괴산호 물길을 따라 조성된 옛 오솔길을 산과 물, 수목 등 수려한 자연경관이 어울어진 4km의 명품길로 복원되어 평일 6천~7천명, 주말

1만명, 연간 60~70만명이 방문하는 전국의 관광명소로 정착됨.

- 유기농푸드밸리 조성사업은 소비자의 유기농식품 체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개발되므로 '산막이 옛길' 관광프로그램과 연계하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함.

2.1.4. 농산물시장개방에 대응한 전략적 육성 분야와 부합

○ 정부는 FTA 대응 농업부문 대책으로 직접적 피해보전 대책 외에도 경쟁력 강화 대책과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조성 등을 제시함(관계부처 합동, 2011).

- 경쟁력 강화대책으로 농림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관련해서 생명공학기술 기술개발을 기초로 광역 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수출단지 조성을 통한 농식품 수출확대를 제시함. 유기농푸드밸리 조성 사업은 유기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유기농식품 수출단지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사업으로 농산물시장개방에 대한 전략적 육성분야와 부합됨.
- 친환경농업지구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을 구축하고, 광역친환경농업단지를 조성하여 유기 및 친환경농산물의 생산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원순환형 유기농업을 활성화 지원책을 제시함. 유기농푸드밸리 조성 사업은 생산측면에서 자원순환형 유기농업 육성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으므로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조성을 위해 핵심적인 사업으로 볼 수 있음.

○ 농산물시장개방에 대응한 소득창출 및 수출 분야로 유기농식품 산업

- WTO/DDA, FTA 등 협상에 따라 외국산 농산물 급증으로 농가의 활로를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일반농산물과 차별화될 수 있는 유기농산물 및 유기가공식품 확대를 통해 농가소득을 보전하는 방안이 유력한 수단으로 제시되고 있음.
- 향후 한중일 FTA에 대응하여 일본 및 중국으로의 주요 수출 품목의 전략적 선택과 대단위 유통 인프라 구축 필요함. 이런 맥락에서 유기농푸드밸리는 대일본 및 대중국 수출을 위한 안전한 유기농식품 수출의 전진기지로 활용할 수 있음.

2.1.5. 집적단지를 통한 비용절감효과와 소비자 후생 증대 기여

○ 유기농푸드밸리에 입주하는 업체들 가운데 대표적으로 2개를 선정하여 비용절감효과를 조사한 결과, 공용시설 활용, 시너지 효과 등으로 현재와 비교하여 비용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생산측면의 비용절감효과를 살펴보면, 장치설비의 경우 현재의 개별 구입 및 관리에서 공동 구입 및 관리로 바뀔 경우 가동율 및 효율성이 제고되고, 소요인력이 줄어 전체적으로 A업체와 B업체 모두 20%의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에너지의 경우 현재의 계약 전력 사용에서 산업단지 계약 전력 사용으로 20~40%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남. 온수보일러의 경우 공용보일러를 이용함에 따라 초기 투자비가 절감되며, 폐기물 관리의 경우 폐수처리장 이용에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바뀌면서 88%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수전설비의 경우 공용설비를 이용함에 따라 변압기 설치비가 절감되며, 마지막으로 원료구입의 경우 공동구매를 통해 원료구입을 위한 금융비용이 절감되고, 저장을 통해 안정적으로 원료를 공급하게 됨에 따라 5%(B업체 기준)의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유통측면의 비용절감효과를 살펴보면, 창고관리의 경우 공용창고 이용으로 보증금 및 임대료가 100% 절감되며, 포장의 경우 공동포장을 이용함에 따라 원자재와 운송비가 절감되어 10~20%의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

- 구매의 경우도 공동구매를 통해 10%의 비용이 절감되는 것으로 조사됨. 디자인 및 브랜드 형성의 경우 1인 인건비가 100% 절감되고, 유통의 경우 현재도 공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절감효과가 없는 것으로 조사됨. 물류비의 경우는 현재 업체의 위치에 따라 달라지며 물류비 절감효과는 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표 6-45. 푸드밸리 입주업체의 비용절감효과(재무적분석)

단위: %

구 분		현 재	푸드밸리입주	A업체	B업체
생산	장치설비	개별 구입 및 관리	공동 구입 및 관리	20	20
	에너지	한전 계약전력사용	한전 산업단지와의 계약	40	20
	온수보일러	초기 투자비 소요	공용보일러 이용	100	100
	폐기물관리	폐수처리장 이용	하수 종말처리장 이용	88	88
	수전설비	변압기 설치비	공용설비 이용	100	100
	원료구입	개별구매	공동구매: 금융비용 절감	-	5
유통	창고관리	보증금 및 임대료	공용창고 이용	100	100
	포장	개별포장	공동포장	20	10
	구매	개별구매	공동구매: 비용절감	10	10
	브랜드 형성	1인 인건비	공동디자인 및 브랜드 형성	100	100
	유통	공동유통	공동유통	0	0
	물류비	현재 입지	푸드밸리 입지	0	1
인력	인력관리	소요인력 개별 고용	인력회사에서 운용	50	50
전 체				30	15

자료: 유기농푸드밸리 입주희망 A업체와 B업체의 내부자료 조사치(2011).

○ 인력관리 측면의 비용절감효과를 살펴보면, 단순인력, 생산인력, 기술인력 등 소요 인력을 개별단위로 고용하다가 인력회사 운용을 통해 고용할 경우 보다 탄력적인 운용이 가능하여 50%의 비용절감이 기대되는 것으로 조사됨. 입주업체의 비용절감효과는 생산, 유통, 인력관리 등 전체적으로 15~30%가 될 것으로 조사되었음.

○ 푸드밸리 입주업체의 비용절감은 곧 유기농가공식품의 판매가격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즉 유기가공식품의 가격이 낮아지고 소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이와 같이 유기농푸드밸리는 안전한 유기농가공식품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공급함으로써 유기가공식품의 소비를 촉진시키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임.

⇨ 유기농푸드밸리를 조성하는 경우 집적단지를 통해 20~30%정도의 생산비용 인하 효과가 있어 가격프리미엄이 낮아지고, 유기농식품의 소비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분석됨.

2.1.6. 가공원료 수요 창출을 통한 국내 유기농산물 가격안정화 기여

○ 유기농푸드밸리 입주예정인 전국 16개 업체들에 대한 연간 친환경농산물(무농약 이상) 주요 원료 사용물량 추이를 조사함. 조사 결과 2011년 기준 16개 업체 친환경농산물 원료 사용량은 4,122톤으로 조사되었음.

- 쌀류는 962톤으로 전체 친환경농산물 원료의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곡류는 759톤으로 18%, 육류는 1,245톤으로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6-46. 입주예정업체 친환경농산물 원료 사용량 조사 결과

단위: 톤

원료	2008	2009	2010	2011
쌀류	183	259	352	962
기타곡류	65	120	208	759
육류	38	145	1,225	1,245
과일류	0	0	424	623
두류	86	115	158	162
채소류	25	38	222	252
당류	0	33	102	111
유제품	0	0	6	8
합계	397	709	2,697	4,122

○ 2014년 이후 40개 업체가 유기농푸드밸리에 유치될 경우 모두 유기농가공제품을 생산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기존의 무농약 원료 친환경가공제품에 대한 생산능력은 유기농 원료 유기가공제품에 대한 생산능력으로 전환될 것임. 그러므로 2014년 이후 친환경농산물 원료 사용량은 유기농산물 원료 사용량이 되며, 그 양은 10,305톤으로 추정됨. 향후 연간 30%의 성장률을 가정할 경우 2020년에는 49,738톤의 유기농산물 원료가 수요될 것으로 예측됨.

표 6-47. 40개 업체 유치시 원료 수요량 추정

단위: 톤

원료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쌀류	2,406	3,127	4,066	5,285	6,871	8,932	11,612
기타곡류	1,896	2,465	3,205	4,166	5,416	7,041	9,153
육류	3,113	4,047	5,261	6,839	8,891	11,558	15,026
과일류	1,558	2,025	2,632	3,422	4,448	5,783	7,518
두류	405	527	684	890	1,157	1,504	1,955
채소류	630	819	1,065	1,384	1,799	2,339	3,041
당류	276	359	467	607	789	1,026	1,333
유제품	21	27	35	46	59	77	100
합계	10,305	13,396	17,415	22,639	29,431	38,260	49,738

주: 2014년 원료 수요량은 2011년 원료 사용량에 2.5(=40/16)를 곱하여 산정하였음. 2014년 이후는 연평균 성장률 30%를 가정함.

○ 한편 2014년 이후 50개 업체가 유치될 경우 2014년 유기농산물 원료 사용량은 12,881톤으로 추정되며, 향후 연간 30%의 성장률을 가정할 경우 2020년에는 62,172톤의 유기농산물 원료가 수요될 것으로 예측됨.

표 6-48. 50개 업체 유치시 원료 수요량 추정

단위: 톤

원 료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쌀류	3,007	3,909	5,082	6,607	8,589	11,165	14,515
기타곡류	2,370	3,081	4,006	5,208	6,770	8,801	11,441
육류	3,891	5,059	6,576	8,549	11,114	14,448	18,782
과일류	1,947	2,531	3,290	4,277	5,560	7,229	9,397
두류	506	658	856	1,112	1,446	1,880	2,444
채소류	788	1,024	1,331	1,730	2,249	2,924	3,801
당류	345	449	584	759	986	1,282	1,667
유제품	26	34	44	57	74	96	125
합 계	12,881	16,745	21,768	28,299	36,788	47,825	62,172

주: 2014년 원료 수요량은 2011년 원료 사용량에 3.125(=50/16)를 곱하여 산정하였음. 2014년 이후는 연평균 성장률 30%를 가정함.

○ 충북도의 유기농산물 출하량과 유기농푸드밸리 가공업체의 유기농산물 수요량을 비교해 보기로 함. 우선 충북도의 유기농산물 재배면적은 2020년을 목표연도로 전체 농산물 면적의 20%로 설정하고 추정하였으며, 저농약인증제 폐지로 저농약 인증 농산물 중 2011~2015년까지는 20%, 2016년 이후는 30%가 유기와 무농약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정함. 그리고, 생산량은 인증단계별 최근 5개년 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제외한 평균단수를 재배면적에 곱하여 산출함. 2020년 기준 충북지역 유기농산물 재배면적은 7,392ha, 생산량은 159,599톤으로 전망됨.

표 6-49. 충북지역 유기 및 무농약 농산물 생산 전망

단위: ha, 톤

구 분		2010	2012	2015	2020
재배면적	유기	870	1,574	3,205	7,392
	무농약	2,114	3,816	7,701	14,209
생산량	유기	12,805	33,985	69,200	159,599
	무농약	36,007	92,087	185,844	342,904

주: 재배면적은 2020년을 목표연도로 전체 농산물 면적의 20%로 설정하고 추정하였음. 저농약인증 농산물 중 2011~2015년까지는 20%, 2016년 이후는 30%가 유기와 무농약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가정함. 생산량은 인증단계별 최근 5개년 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제외한 평균단수를 재배면적에 곱하여 산출함.

○ 유기농산물 인증생산량 가운데 시장에 출하되는 비중을 65%로 가정할 경우 103,739톤이 되며, 가공원료로 사용되는 비중을 16%로 가정[6]할 경우 16,598톤이 됨. 2020년 기준 유기농푸드밸리에 입주한 가공업체의 유기농산물 수요량이 49,738~62,172톤으로 추정되므로 충북지역 유기농산물을 원료로 100% 사용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양이 부족하게 될 것이며, 이 부족분은 타 도로부터 충당해야 할 것으로 예상됨. 이와 같이 유기농푸드밸리가 타 도의 유기농산물을 가공원료로 흡수할 경우 전국적인 유기농산물 가격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2.1.7. 지역낙후도 개선과 타 부문의 산업생산유발 기여 특화산업

○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의 충북 유기농푸드밸리 조성의 적합성

- 수도권과 대전권(세종시 포함)에 상수 공급원으로 충주호와 대청호가 있어 충청북도의 5개 시군 22개 읍면동이 댐 규제지역, 2개 시군 10개 읍면이 댐주변

6) 유기농식품 시장규모를 살펴보면, 국산원료 국내생산 유기가공식품과 국산 신선유기농산물을 합한 국산유기식품에서 유기가공식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16%임.

지역으로 개발이 제한됨. 따라서 국가적 차원에서의 친환경/유기농업 육성이 필요하며, 안정적인 유기농업(생산)을 하기 위한 유기가공산업 육성이 필요함.

○ 충청북도 괴산군은 대표적인 낙후지역으로 국토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성장동력이 필요함.
  - 괴산군은 유기농푸드밸리 조성을 계기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낙후도 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

○ 유기농푸드밸리 조성은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충북도의 생산유발과 고용유발효과뿐만 아니라 충북 이외 타 지역의 생산유발과 고용증가에도 상당히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됨.

2.2. 정책추진 의지

2.2.1. 도정 최고의사결정자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 발표

○ 충청북도 도지사의 친환경농축산업 육성 공약 발표
  - '자원순환원순환형 친환경농업·농촌 4개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발표함.
  - 4개년 종합대책의 중점 추진사항으로 유기농특구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특히 유기농특구 조성의 핵심사업으로 유기농푸드밸리를 조성하여 추진하는 계획을 발표함.
  - 유기농푸드밸리 조성사업의 적극적 추진을 위해 농정국장을 추진단장으로 하는 유기농특구추진단 구성 회의를 개최함(2011년 5월 3일).
  - 충북전역을 대상으로 남부권, 북부권, 중부 2권, 중부 1권 등 4개 권역으로 권역별 유기농업 사업단을 구성하여 추진함.

○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과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지속적으로 유기농업 기반을 마련하는 성과를 달성함. 또한 자원순환형 친환경농업·농촌 4개년 종합계획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친환경농업특구를 조성할 계획임.
  - 농업분야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구축 및 체계적인 친환경농축산업 육성을 위해 '선순환 친환경농업·농촌 실현으로 농촌·도시 균형발전'을 비전으로 설

정한 '자원순환형 친환경농업·농촌 4개년 종합계획(2011~2014)'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 자원순환형 친환경농업·농촌 4개년 종합계획의 추진목표로 2009년 대비 2014년까지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은 93% 증가한 10,500ha, 유기농특구 조성은 지경부 1개소, 농식품부 2개소, 친환경축산물은 200% 증가한 57,792톤, 농산촌 방문객수는 20% 증가하는 102만 9천명으로 설정함.
- '자원순환형 친환경농업·농촌 4개년 종합계획'의 투자액은 1,514억 원으로 5분야 25개 과제에 투입함.

○ 행정부지사를 추진위원장으로 하는 유기농특구 조성 추진위원회 구성하고, 산하에 농정국장을 추진단장으로 하는 유기농푸드밸리 전담 T/F팀을 설치하여 유기농식품분야 대형 국책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

○ 유기농특구 및 유기농푸드밸리 조성에 대한 제도적인 기반 구축을 위해 2012년 상반기에 『충청북도 친환경 유기농특화구역 조성 및 유기농명인 지정·운영에 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음(조례 제정안은 <부록 1>에 제시). 또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도차원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2013년 9월 '유기농 특화도 선포식을 개최할 예정임. 또한 제도적인 기반 구축을 위해 2013년 하반기에 『충청북도 친환경 유기농특화구역 조성 및 유기농명인 지정·운영에 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할 계획임.

2.2.2. 유기농특구 추진위원회 설치·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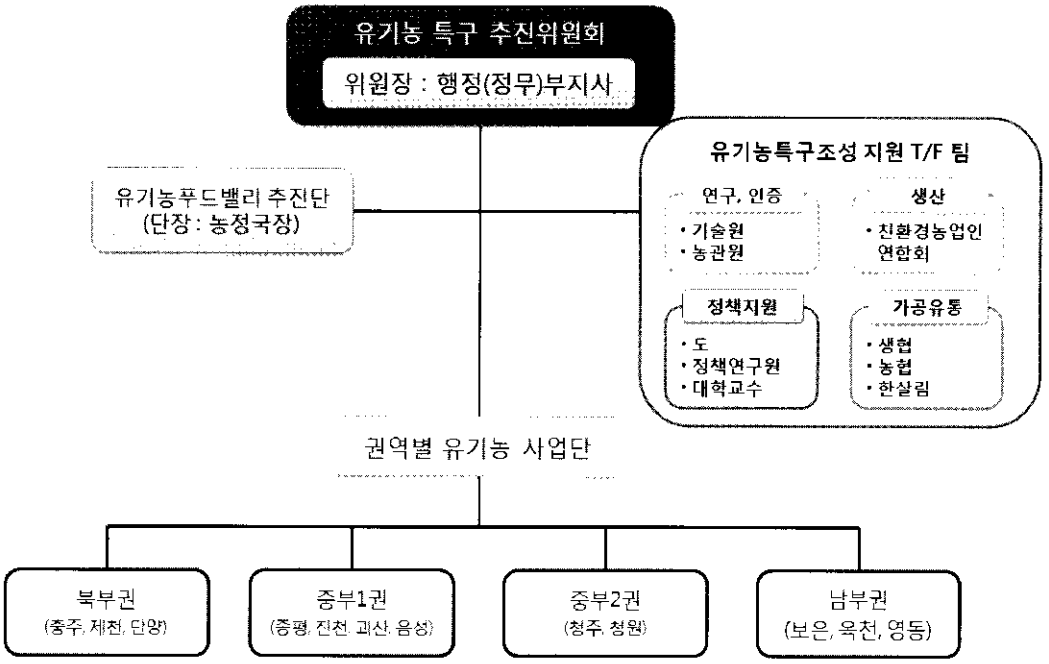
○ 추진배경

- 충청북도는 2010년 12월 유기농특구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남부3권 유기농업사업단, 유기농푸드밸리 조성 T/F팀, 북부권(남한강 상류권) 유기농업사업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 유기농식품 시장의 급속한 성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농업 실현을 위한 유기농특구 조성을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추진단 운영

○ 구성

- 행정부지사(또는 정무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유기농특구조성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산하에 유기농푸드밸리 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함.

그림 6-1. 유기농특구 조성 추진위원회



○ 운영실적

- 유기농특구 추진단 회의를 2011년 11월 4일 충북도청 소회의실에서 개최함.

2.2.3. 충청북도 유기농푸드밸리 추진단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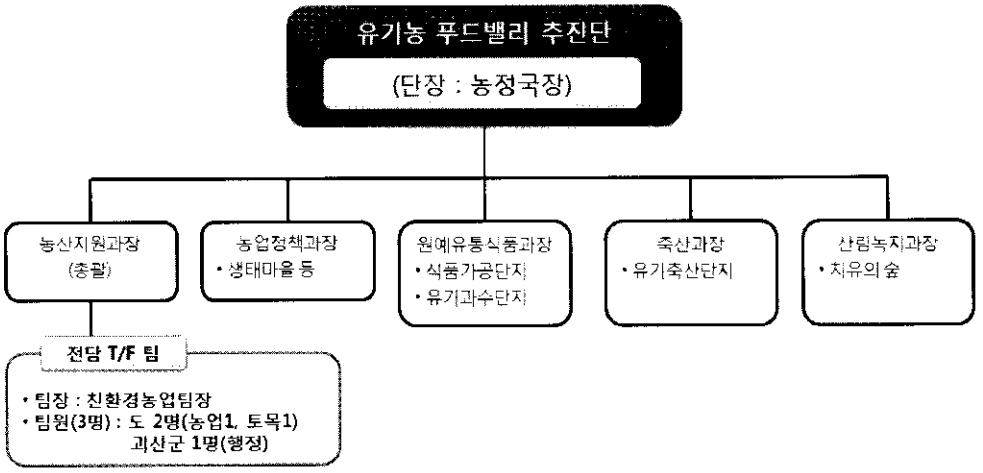
○ 추진배경

- 유기농푸드밸리 조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업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함.

○ 구성

- 행정부지사(또는 정무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유기농특구조성 추진위원회 산하에 유기농푸드밸리 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함.
- 농정국장을 추진단장으로 하고, 농산지원과장을 총괄과장, 그 밑에 전담 T/F팀을 설치함. 전담 T/F팀은 도와 괴산군 간의 원활화 소통과 사업 추진을 위해 괴산군에서 1명(행정)을 파견하고, 농정국 내 토목직 중 1명, 친환경농업팀 2명 등으로 구성함.

그림 6-2. 유기농푸드밸리 추진단



○ 역할

- 분야별 전문가를 편성하여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유기농특구 조성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 등 자문역할 수행

○ 운영실적

- 1차 추진단 구성 회의가 2011년 5월 3일, 14:00-16:00까지 충북발전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개최됨. 참석자는 도청, 시군 관계자와 친환경농업전문가 등 22명이 참석하여 유기농특구 추진단 구성과 운영방안 등에 협의함.

2.2.4. 유기농푸드밸리 조성 협력을 위한 지역별 협의회 개최

○ 남부3군(보은, 옥천, 영동) 유기농업 활성화를 위한 협의회 개최

- 일시: 2011년 2월 23일, 14:00-17:00
- 장소: 옥천군청 회의실
- 참석자: 15명(도청 3명, 시군 7명, 친환경농업전문가 5명)
- 주요내용: 충북지역의 유기농특구조성,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공급, 유기농산물 생산체제 구축,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제도보완, 유기농업직불제 사업 도입 등

○ 중부2권(청주 · 청원) 유기농업 활성화를 위한 협의회 개최

- 일시: 2011년 8월 31일(수), 14:00-16:00